

정책연구

이용자 중심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User-Centered Remodeling Plan
for Jinjeop Library

강민경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특성	7
제2절 공공도서관 이용자 특성 및 확장 전략	52
제3절 공공도서관 공간 계획의 주요 요소	62
제4절 시사점	69
제3장 진접도서관 공간 및 이용자 분석	71
제1절 진접도서관 현황 및 이용 동향	71
제2절 진접도서관 미래 이용자 분석	88
제3절 진접도서관 공간 이용 문제	93
제4절 소결	96

제4장 공공도서관 사례분석	99
제1절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 방법	99
제2절 복합문화형 도서관 및 운영 사례	102
제3절 시사점	131
제5장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안	133
제1절 리모델링 기본 방향 및 전략	133
제2절 공간 구성 전략	145
제3절 공간 재구성 및 설계안	152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략	165
제5절 지역 연계 전략	16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연구요약	171
제2절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79

연구요약

연구목적

-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생활양식의 다변화 속에서 공공도서관에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남양주시 진접도서관은 2013년 개관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공간 기능 약화가 진행되어, 현재의 공간 구성이 미래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진접도서관의 1층 보로로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 · 문헌정보실, 3층 디지털자료실 · 노트북실 · 열람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임
 - ① 이용자 분석을 통해 현재 · 미래 이용자를 유형화하고, 이용 목적 · 행태 · 공간 선호를 종합적으로 도출함
 - ② 개방형 · 통합형 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공용 · 집중 · 휴게 공간 간 기능과 경계를 재정의하고, 적절한 분리 수준을 설정함
 - ③ 이러한 이용자 분석 결과와 공간 구성 원칙을 통합해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리모델링 계획안(공간 설계 방향)을 제시함
- 아울러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통합 적용하여,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 직관적 공간 인지, 안전한 이용 환경, 다양한 이용 행태를 수용하는 공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 및 결과

- 전국 · 경기도 · 진접도서관 통계(2016~2025) 분석 결과, 전자자료 소장량은 급증하는 반면 고정형 PC와 총 좌석 수는 감소해 도서관 환경이 디지털 · 개방형으로 재편되고 있음
- 진접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석은 2016년 100석에서 2025년 40석으로 60% 감소하고, 이용자용 PC 역시 84대에서 28대로 67% 감소하였으며, 총 좌석 수도 422석에서 354석으로 줄어 공간 기능 약화가 통계적으로 확인됨
- 2025년 기준 진접읍 인구 구조 분석에서는 중장년층(35~54세)과 초등 · 청소년,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청년층의 도서관 비이용률이 높아, 가족 단위 수요 대응과 고령화 대비, 청년 유입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하고 이용자를 6개 군으로 유형화함

- 공공도서관 사례분석에서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례인 독산도서관 · 동작도서관(개방형 · 체류형 전환, 디지털 라운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신축 사례인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순천 어울림도서관(지역 명소화, 복합시설 연계, 테마 특화)을 분석하여, 리모델링 방법론은 독산 · 동작에서, 공간 구성 · 운영 방향은 인제 · 순천에서 취해 진접도서관 계획에 반영함
-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성장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거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채광 · 접근성 한계가 있는 지하 1층은 현행 기능을 유지하되 지상 1~4층은 내부 공간 재배치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함
 - 1층(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층) : 보로로도서관과 어린이자료실을 통합하고 패밀리 카페존을 신설하며, 인근 장승다담공원 · 움집터와 연계되는 개방 동선을 확보하고자 함
 - 2층(정보 · 복합문화층) : 문헌정보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능과 폴딩도어 기반 가변형 강의 공간을 통합한 개방형 복합문화층으로 재편하고자 함
 - 3층(통합 개방형 열람층) : 디지털자료실 · 노트북실 · 열람실을 통합해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파 라운지 등 체류 공간과 별도의 1인 집중 구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4층(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 기존 강좌실 · 세미나실을 유지하면서 가족 동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대관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정책제언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지속을 위해서는 이용자 참여, 구조 · 설비 사전 진단에 기반한 단계적 시공, 유니버설디자인, 인근 시설 연계, 장기 수요 대응, 개방형 · 가변형 공간의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체계적 실행 전략이 필요함
- ① 이용자 참여형 계획 추진) 설계 확정 이전에 주민 · 이용자 · 사서 대상 설문 · 워크숍으로 공간 수요를 검증하고, 리모델링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② 사전 진단에 기반한 단계적 시공 및 임시 운영) 실 통합 · 칸막이 철거 등 핵심 계획은 철거 대상 벽체의 내력 여부와 전기 · 설비 배관 조건에 따라 실행 범위가 달라지므로, 설계 착수 전 구조 · 설비 사전 진단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차 · 2차 실행 범위를 조정하여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③ 유니버설디자인 설계-운영 연계) 물리적 접근성과 자료 · 서비스 접근성을 설계 초기부터 통합 반영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정기 점검과 만족도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④ 인근 시설 · 지역사회 연계) 장승다담공원 · 장승초등학교 · 인근 아파트 단지 및 교육 · 복지 기관과의 공간 · 프로그램 · 주민 참여 연계를 협약 등으로 제도화해 생활권 거점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⑤ 장기 수요 대응 및 확장성 확보) 미래 디지털 기능의 단계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공간과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반영하고, 성과지표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리모델링 효과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⑥ 개방형 · 가변형 공간의 운영관리 체계 구축) 실 경계를 해체한 개방형 구조와 폴딩도어 기반 가변형 공간이 계획대로 기능하도록 흡음 · 차음 마감과 구역별 공조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활동-전이-정숙' 조닝 · 전환 기준을 담은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진접도서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이용자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개방형 공간,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열람실, 지역사회 연계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공공도서관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지식 ·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옴
- 그러나 디지털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용자 생활양식의 다변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전환으로 인해 전통적인 도서관 모델은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공공도서관은 ‘정보 수집 및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 경험 설계와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AI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확대, 고령화에 따른 정보취약계층 증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의 유입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는 점차 다층화 · 복합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학습, 체험, 협업, 디지털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동시에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서관 공간과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유니버설디자인은 가능한 한 모든 장애 요인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설계 개념
 - (유니버설디자인 목표)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아우르는 공간을 만드는 것
- 남양주시 진접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문화시설로 기능해 왔으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

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이용 환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은 과거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어 미래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 기능의 비효율, 이용 동선의 불합리성, 세대별 · 계층별 요구 반영의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의 분산 배치, 디지털 정보 이용 환경의 미흡한 통합, 유사 기능 공간의 분리 운영 등은 향후 증가할 다양한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진접도서관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 이용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공간 재구성과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진접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 환경 변화와 이용자 특성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구성 방향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리모델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첫째, 이용자 분석을 통해 진접도서관의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향후 유입 가능성이 있는 예비 이용자를 포함한 미래 이용자까지 고려하여 주요 이용자군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이용 목적, 행태, 체류 시간, 공간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 둘째, 개방형 도서관 공간 개념을 반영하여 개방형 · 통합형 공용공간, 집중형 학습공간, 휴게 · 커뮤니티 공간 간의 기능과 경계를 재정의하고, 이용자 행태 및 소음 특성을 고려한 적정 분리 수준을 설정하고자 함
- 셋째, 상기 이용자 분석과 공간 구성 원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상 공간의 재배치 및 기능 재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도면 및 3D 모델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본 연구는 전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 직관적인 공간 인지, 안전한 이용 환경,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수용하는 공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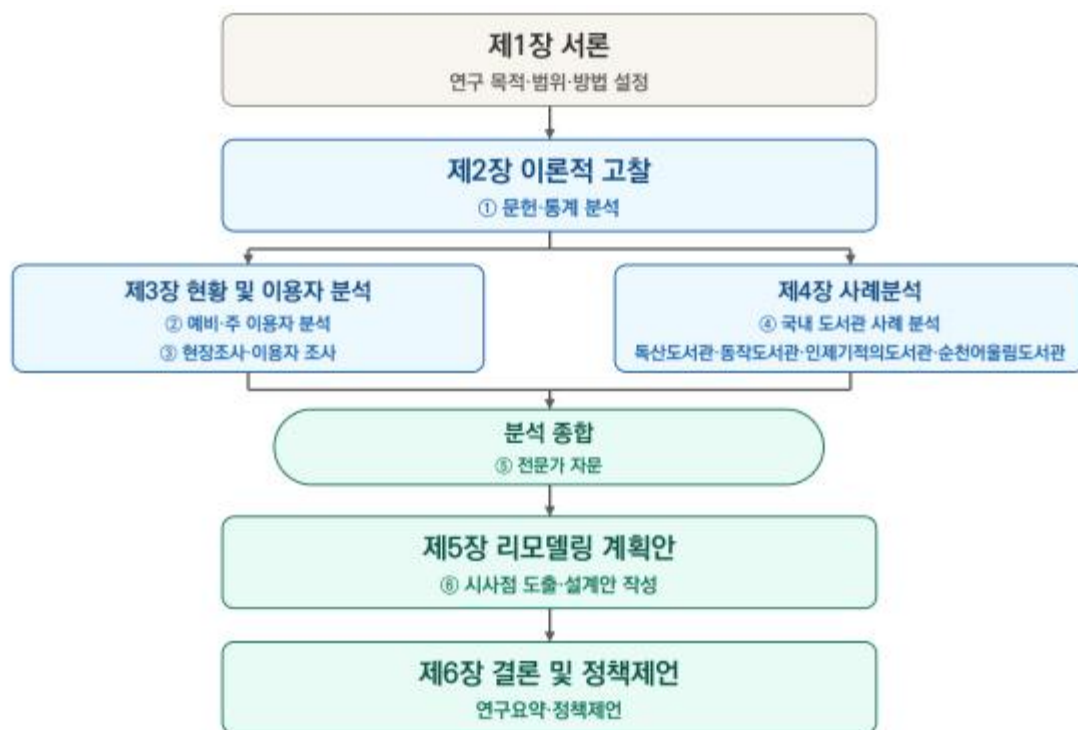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양주시 진접도서관으로 한정하며, 이용 행태 변화와 기능 재편의 필요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설정함
 - 리모델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차에서는 핵심 대상 공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차에서는 도서관 전체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 리모델링 대상 공간은 1층의 보로로도서관(248.27㎡), 2층의 어린이자료실(82.32㎡)과 문헌정보실(298.6㎡), 그리고 3층의 디지털자료실(121.55㎡), 노트북실(114.49㎡), 열람실(254.93㎡)로 구성됨
-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6년을 기준으로 함
 - 현 시점 진접도서관의 이용 현황과 시설 여건 등을 반영한 리모델링 실행 가능성 고려
 -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변화와 도서관 기능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재구성 방향 함께 검토
-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 진접도서관의 현재 이용자 및 예비 이용자(잠재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자 분석과 유형화, 이용 목적 · 행태 · 공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
 - 이용자 유형에 기반한 어린이 공간, 디지털 활용 공간, 열람 및 학습 공간의 기능 재정립과 공간 재구성 방향 설정
 - 개방형 · 집중형 공간의 적절한 조합과 운영 방식(가변형 공간, 시간대별 분리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 전략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및 BF(Barrier-Free) 기준을 반영하여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 계획 방안 도출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진접도서관 대상 공간에 대한 실질적 리모델링 방안(공간 배치, 기능 재조정, 활용 시나리오 등) 마련
-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재편과 포용적 도서관 환경 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① 문헌·통계 분석, ② 예비 이용자 및 주 이용자 분석, ③ 현장조사 및 이용자 조사, ④ 국내 도서관 사례 분석, ⑤ 전문가 및 운영자 자문, ⑥ 이용자 유형화, ⑦ 진접도서관 적용 시사점 도출 및 설계안 작성 순으로 수행하고자 함
- (① 문헌·통계 분석) 공공도서관 통계를 분석하고 진접도서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내 공공도서관(전국, 경기도, 진접도서관) 통계 분석
 - 시설 현황, 공간 구성,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용자 수 및 이용 패턴 등 기초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 (② 예비 이용자 및 주 이용자 분석) 진접도서관 인근 생활권 중심으로 이용 수요를 도출하고 이용자 범주를 설정함
 - 진접도서관 인근 생활권(장승초등학교, 주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 연령 분포,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하여 잠재적 이용 수요를 도출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예비 이용자 범주를 설정하고, 각 집단별 도서관 이용 가능성과 요구 특성 파악
- (③ 현장조사 및 이용자 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 행태를 조사함
 - 현장 조사를 통해 이용자 동선, 공간 점유 패턴, 이용 밀도 등을 조사함
- (④ 국내 도서관 사례 분석) 진접도서관과 유사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서관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 수립을 위한 실증적 참고 자료로서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간 전략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사례 선정은 ① 진접도서관과 규모·조건의 유사성, ② 개방형·체류형 공간 전환 전략의 적용 여부, ③ 지역사회 연계 및 이용자 유입 효과의 확인 가능성, ④ 복합문화시설 연계 및 지역 특화 전략의 구현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소규모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방법론 분석을 위한 독산도서관, 체류형·개방형 전환 및 디지털라운지 공간 전략 분석을 위한 동작도서관, 소규모 도서관의 지역 명소화 전략 분석을 위한 인제 기적의 도서관, 복합시설 연계 및 지역 특화 테마 전략 분석을 위한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4개 사례를 선정함

- (⑤ 전문가 및 운영자 자문) 도서관 설계자, 건축 및 공간계획 전문가,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여 공간 구성 방향과 설계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함
 - (⑥ 진접도서관 적용 시사점 도출 및 설계안 작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진접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공간 재구성 방향과 전략을 도출함
- CAD 도면 및 3D 모델링을 활용하여 공간 배치, 기능 재조정, 이용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한 리모델링 설계안 제시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02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특성

1 국내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이용 동향

1) 개요

- 본 장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최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전체, 경기도,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지인 남양주시 진접도서관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에 활용한 통계 자료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로, 공공도서관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기간을 설정함
- 첫 번째로 국내 공공도서관 통계를 통해 관 수, 소장자료, 인력, 시설, 이용, 프로그램·동아리 운영, 어린이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전국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를 검토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특징과 차별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전국 및 경기도 수준의 10년간 추세를 토대로 대상지인 남양주시 진접도서관의 장서, 시설·좌석, 디지털 환경, 인력·자원봉사, 예산, 이용 및 프로그램·동아리, 어린이서비스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진접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전반의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와 특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환경 변화의 거시적 흐름과 경기도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접도서관의 공간 재구성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함

- 분석 항목은 소장자료, 시설·좌석, 인력·예산, 이용, 프로그램·동아리, 어린이서비스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국과 경기도는 14개 항목, 진접도서관은 도서관 수·부지면적을 제외한 12개 항목으로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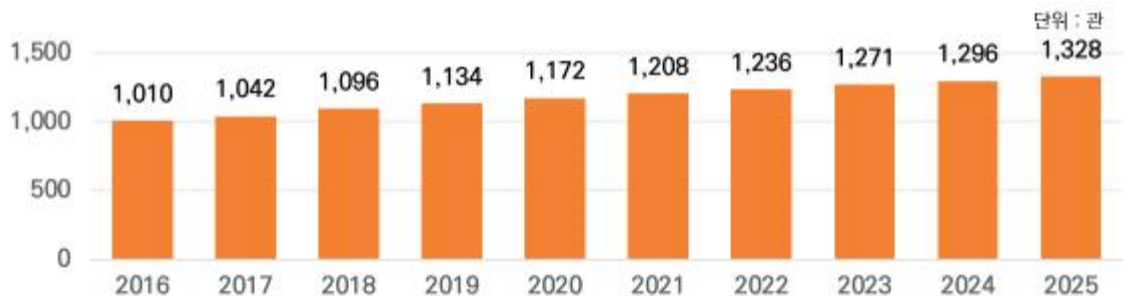
〈표 2-1〉 공공도서관 통계(전국·경기도·진접도서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전국	경기도	진접도서관
도서관 수	○	○	-
인쇄·전자 소장자료	○	○	○
소장자료 증가·제적	○	○	○
부지·연면적	○	○	-
좌석 수	○	○	○
사서직·자원봉사자	○	○	○
자료구입비	○	○	○
대출이용자 수	○	○	○
인쇄·전자자료 대출이용자	○	○	○
이용자 교육	○	○	○
온라인 프로그램	○	○	○
오프라인 프로그램	○	○	○
동아리·참가자 수	○	○	○
어린이 서비스	○	○	○

2)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 현황

(1) 공공도서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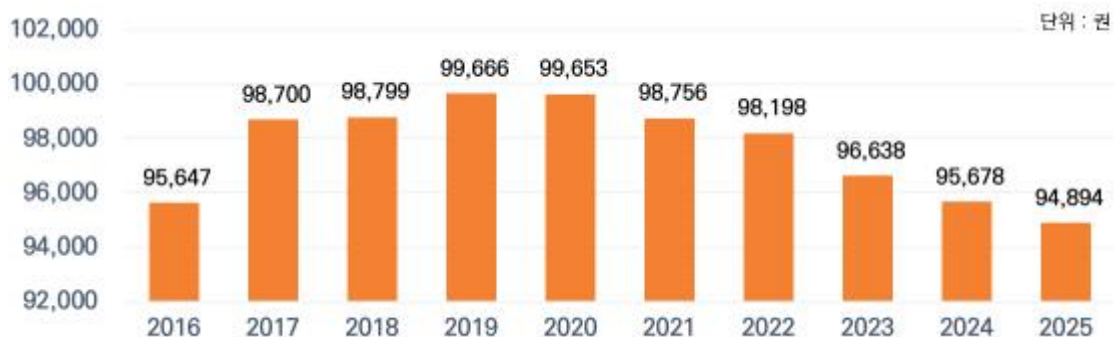
-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간 약 31.5% 성장했으며, 특히 2018년을 중심으로 확충이 집중됨
-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2016년 1,010관에서 2025년 1,328관으로 10년간 318관이 증가하여 약 31.5%의 성장률을 보임
 - 이는 연평균 약 35관이 신설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8년에는 한 해에 54관이 증가하여 10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해당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해석됨



[그림 2-1] 전국 공공도서관 수 추이('16~'25)

(2) 인쇄자료 소장현황 추이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며, 제적 증가와 전자자료 확대에 따른 디지털 중심의 장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자료 소장량은 2016년 95,647권에서 2020년 99,653권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5년에는 94,894권을 기록함
 -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후반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매년 감소로 전환함
 -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인쇄자료 중 국내자료는 2021년 94,054권에서 2025년 89,702권으로 4,352권 감소한 반면, 국외자료는 같은 기간 4,702권에서 5,192권으로 490권 증가하여 국외 자료 비중이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인쇄자료의 감소 추세는 전자자료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자료 구성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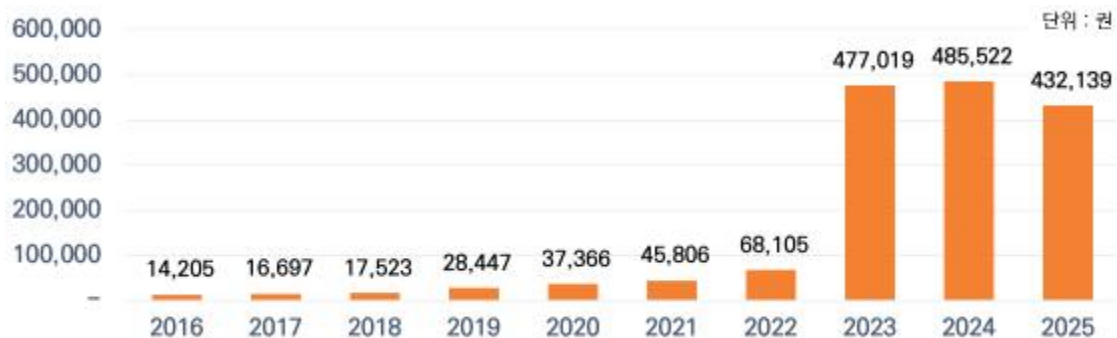


[그림 2-2]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자료 소장량 추이('16~'25)

(3) 전자자료 소장현황 추이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전자자료 소장량은 공동구매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 강화에 힘입어 급증하며, 장서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전자자료 소장량은 2016년 14,205권에서 2025년 432,139권으로 약 3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함
 - 연도별로 전자자료 소장량 수를 분석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477,019권으로 전년 대비 약 7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함
 - 2023년의 급증은 전국적인 전자자료 공동구매 확대 및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됨

- 2024년에는 485,522권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5년에는 432,139권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독 계약 만료나 라이선스 갱신 조건 변화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볼 수 있음
- 인쇄자료가 감소하는 추세와 대조적으로 전자자료의 지속적 확충은 공공도서관이 물리적 장서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매체 활용 습관 변화와도 맞물려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됨



[그림 2-3]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전자자료 소장량 추이('16~'25)

〈표 2-2〉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 · 전자 소장자료 추이('16~'25)

단위 :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쇄소장자료	95,647	98,700	98,799	99,666	99,653
추이	-	3,053	98	868	-13
국내	91,993	94,828	94,683	95,157	95,047
국외	3,655	3,873	4,116	4,509	4,606
전자소장자료	14,205	16,697	17,523	28,447	37,366
추이	-	2,492	826	10,924	8,919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쇄소장자료	98,756	98,198	96,638	95,678	94,894
추이	-897	-558	-1,560	-960	-785
국내	94,054	93,294	91,681	90,619	89,702
국외	4,702	4,905	4,957	5,060	5,192
전자소장자료	45,806	68,105	477,019	485,522	432,139
추이	8,440	22,299	408,914	8,503	-53,383

(4) 소장자료 증가 및 제적 수

-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증가와 제적이 동시에 확대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자자료 도입과 장서 회전을 제고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 증가 수는 2016년 8,468권을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20

년 14,250권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크게 들었다가 2025년에는 10,772권으로 급감함

- 연간 증가 수의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은 자료 구입 예산의 불안정성과 연도별 구매 패턴의 불균형을 반영함

○ 소장자료의 제적 수는 2016년 2,021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4,864권까지 확대된 후, 2023년 4,666권, 2024년 4,571권, 2025년 4,048권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제적 수 증가는 노후화된 자료를 정리하고 최신 자료로 교체하는 장서 관리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연간 소장자료의 증가 수가 제적 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므로 전체 장서량은 순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증가 수 대비 제적 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장서 회전율을 높이고 최신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나타냄

〈표 2-3〉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증가 및 제적 수 추이('16~'25)

단위 :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 수	8,468	8,897	8,533	9,301	14,250	9,350	16,096	25,018	32,108	10,772
제적 수	2,021	2,421	2,619	3,435	3,793	4,231	4,864	4,666	4,571	4,048
증가-제적수	6,447	6,476	5,914	5,866	10,457	5,119	11,232	20,352	27,537	6,724

(5) 시설현황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부지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연면적은 증가하며, 도심 내 고밀·복합시설 중심으로 공간 조성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부지면적은 2016년 7,704㎡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5년 7,040㎡를 기록하였으며, 연면적은 2016년 2,509㎡에서 2025년 2,647㎡로 소폭 증가함

○ 부지면적의 감소와 연면적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신설 도서관이 기존 대규모 부지 확보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문화시설 내 입주 형태나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 고밀도로 건립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표 2-4〉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부지면적 및 연면적 추이('16~'25)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지면적	7,704	6,919	7,520	7,488	7,468	7,755	7,535	6,226	7,046	7,040
증감	-	-785	600	-31	-20	286	-219	-1,310	820	-6
연면적	2,509	2,775	2,510	2,523	2,531	2,571	2,536	2,539	2,569	2,647
증감	-	266	-265	13	8	39	-35	3	30	77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좌석과 이용자용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공간 활용이 재편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좌석 감소는 과제로 남아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총 좌석 수는 2016년 346석에서 2025년 279석으로 67석이 감소하여 약 19.4%의 감소율을 보임
 - 연도별로는 매년 5~12석씩 감소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어린이 열람석은 2016년 64석에서 2019년 66석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20년 54석으로 급감한 후 2025년 57석으로 다소 회복됨
- 2020년 어린이 열람석의 급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2016년 7.1석에서 2025년 5.6석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감소 경향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 이용자용 컴퓨터 수는 2016년 24.5대에서 2025년 16.6대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및 개인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공용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5〉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총 좌석 수 및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열람석 수 추이('16~'25)
단위 : 석, 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좌석 수	346	337	330	319	310	300	288	279	277	279
증감	-	-9	-7	-11	-9	-10	-12	-9	-2	2
어린이 열람석 수	64	65	66	66	54	55	55	55	56	57
증감	-	1	1	0	-12	1	0	0	1	1
노인 · 장애인 열람석 수	7.1	6.6	6.6	6.9	6.7	6.8	6.3	5.7	5.8	5.6
증감	-	-0.5	0	0.3	-0.2	0.1	-0.5	-0.6	0.1	-0.2
이용자용 컴퓨터 수	24.5	23.4	22.5	21.4	20.5	19.3	18.5	17.5	17.1	16.6
증감	-	-1.1	-0.9	-1.1	-0.9	-1.2	-0.8	-1	-0.4	-0.5

(6) 직원 및 지원 인력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직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나, 자원봉사자 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직 수는 2016년 3.15명에서 2025년 4.73명으로 10년간 1.58명이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이는 전문 사서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꾸준히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1관당 사서직 수가 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은 프로그램 기획, 이용자 서비스, 장서 관리,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여전히 인력이 부족함
- 자원봉사자 수는 2016년 395명에서 2019년 427명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00명으로 급감하여 전년 대비 약 76.6%가 감소함
 - 이는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의 특성상 팬데믹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줌
-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21년 132명에서 2024년 17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136명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인 400명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표 2-6〉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직 및 자원봉사자 수 추이('16~'25)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관당 사서직	3.15	3.29	3.55	3.78	3.94	4.16	4.3	4.42	4.56	4.73
증감	-	0.14	0.26	0.23	0.16	0.22	0.14	0.12	0.14	0.17
1관당 자원봉사자	395	409	423	427	100	132	143	162	172	136
증감	-	14	14	4	-327	32	11	19	10	-36

(7) 자료구입비

-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인쇄 · 비도서에서 전자자료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도서자료 구입비는 2018년 73,017천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5년에는 60,850천 원까지 하락함
 - 도서자료 구입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과 도서 단가 인상을 고려할 때,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더 큰 폭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장서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 비도서 구입비는 2016년 3,645천 원에서 2025년 1,100천 원으로 감소하여, 비도서 자료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남
 - 또한 해당 유형의 자료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자자료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흐름과 연관이 있음
 - 반면 전자자료 구입비는 2016년 4,966천 원에서 2023년 13,321천 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7,868천 원, 2025년 8,226천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임
 - 전자자료 구입비 비중의 확대는 자료구입비 구성에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투자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이용자의 디지털 자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예산 배분의 전환으로 해석됨
 - 연속간행물 구입비는 2016~2025년 동안 전반적으로 정체 · 감소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다른 자료유형 구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남

〈표 2-7〉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추이('16~'25)

단위 : 천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도서자료 구입비	66,821	68,193	73,017	71,196	66,291	66,733	69,844	63,782	63,636	60,850
증감	-	1,372	4,824	-1,821	-4,905	442	3,111	-6,062	-146	-2,786
비도서 구입비	3,645	3,847	3,692	3,611	2,967	2,673	2,983	1,744	1,498	1,100
증감	-	202	-155	-81	-644	-294	310	-1,239	-246	-398
전자자료 구입비	4,966	5,833	6,344	6,693	9,287	11,076	11,430	13,321	7,868	8,226
증감	-	867	511	349	2,594	1,789	354	1,891	-5,453	358
연속간행물 구입비	7,530	7,431	7,488	7,814	7,366	7,393	7,484	7,149	7,333	7,210
증감	-	-99	57	326	-448	27	91	-335	184	-123



[그림 2-4]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추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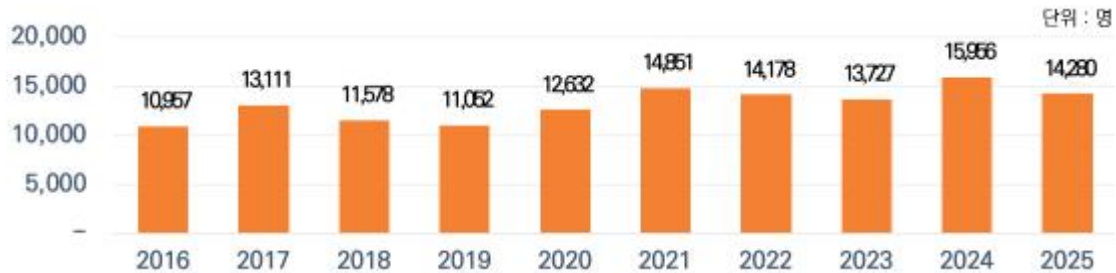
(8) 대출 이용자 수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는 변동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이용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 수는 2016년 이후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임
 - 이후 2018~2019년 일시적 감소 이후 2021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이후 2022~2023년에는 소폭 조정 국면을 거침
 - 2024년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용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2025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에도 대출이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 확대, 전자자료 서비스 강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독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됨
 - 이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대면 방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이용자와 접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8〉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 수 추이('16~'25)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출 이용자수	10,957	13,111	11,578	11,052	12,632	14,851	14,178	13,727	15,956	14,280
증감	-	2,154	-1,533	-526	1,580	2,219	-673	-451	2,229	-1,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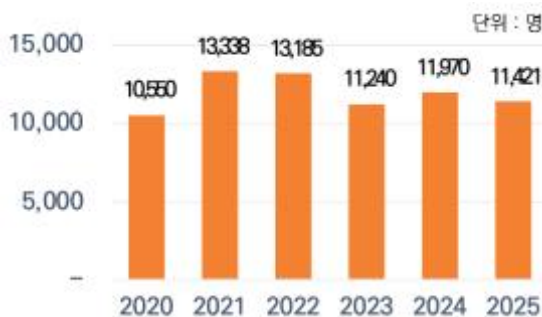
[그림 2-5]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 수 추이('16~'25)

- 전국 공공도서관 인쇄자료 이용은 감소 후 정체되는 반면 전자자료 이용은 증가세로, 자료 이용이 디지털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는 2021년 13,33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13,185명, 2023년 11,240명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11,970명, 2025년 11,421명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전자자료 대출이용자 수는 2020년 2,082명에서 2022년 994명으로 일시 감소하였다가 2023년 2,487명에서 2025년 2,86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자자료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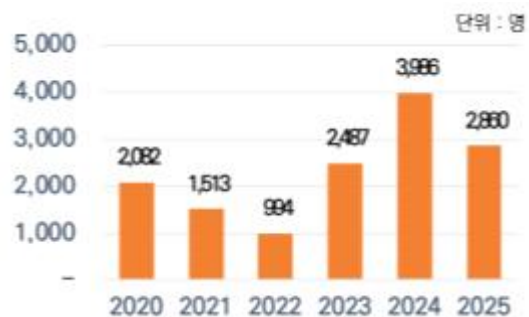
〈표 2-9〉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 · 전자자료 대출 이용자 수 추이('20~'25)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쇄자료 대출 이용자수	10,550	13,338	13,185	11,240	11,970	11,421
증감	-	2,788	-153	-1,945	730	-549
전자자료 대출 이용자수	2,082	1,513	994	2,487	3,986	2,860
증감	-	-569	-519	1,493	1,499	-1,126



[그림 2-6]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 추이('20~'25)



[그림 2-7]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 추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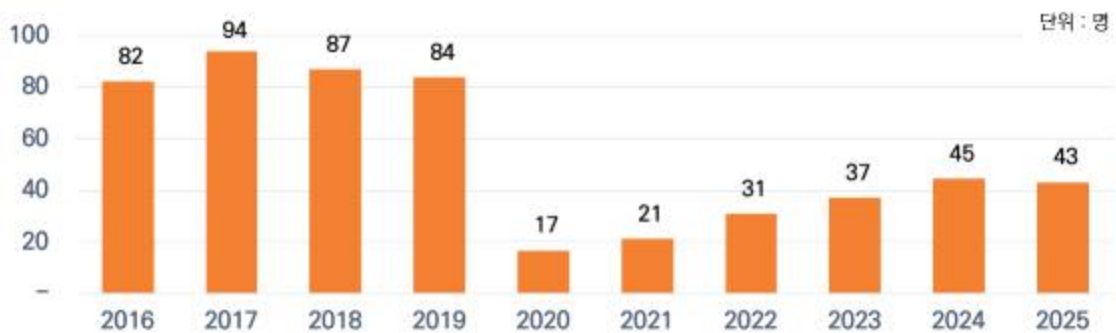
(9) 이용자 교육

□ 공공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나, 운영 규모와 참여 모두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건수는 2016년 82건에서 2019년 84건으로 80건 이상의 활발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7건으로 급감함

- 이후 2021년 21건에서 2024년 45건으로 매년 꾸준히 회복되었으나 2025년에는 43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인 80건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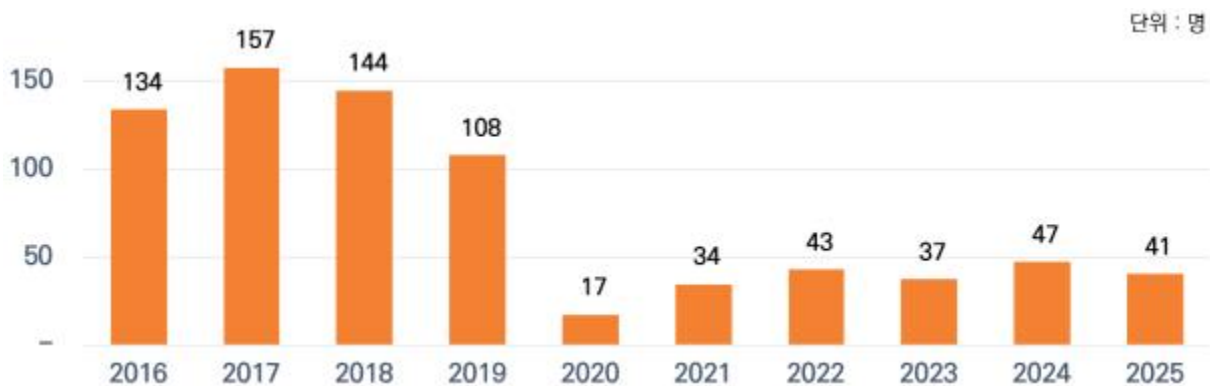


[그림 2-8]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건수 추이('16~'25)

○ 이용자 교육 시간 역시 코로나19로 급감 후 회복 중이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6년 134시간에서 2017년 157시간으로 증가한 후 2018년 144시간, 2019년 108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17시간으로 급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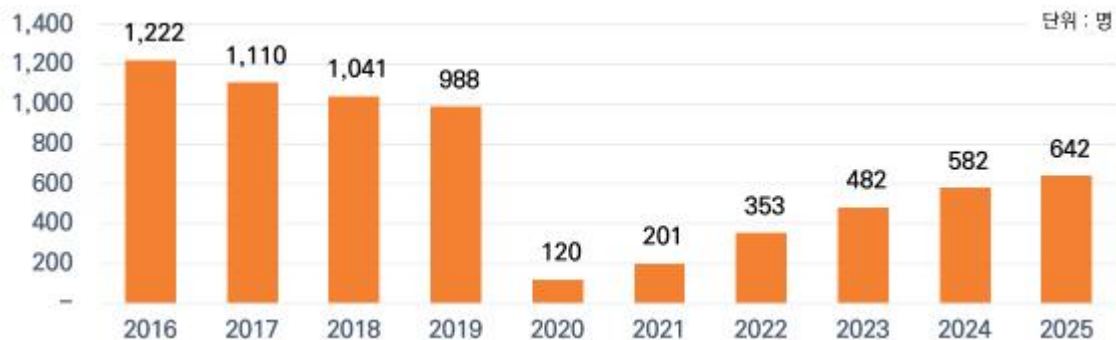
- 이후 2021년 34시간, 2022년 43시간, 2023년 37시간, 2024년 47시간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는 41시간으로 소폭 감소함



[그림 2-9]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시간 추이('16~'25)

○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는 코로나19로 급감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는 2016년 1,222명에서 2019년 98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12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함
-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2021년 201명 2025년 64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0명 이상에는 아직 회복되지 못함
- 이용자 교육은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효과적 활용을 돕는 기능으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과 교육 방법의 혁신이 요구됨



[그림 2-10]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추이('16~'25)

(10)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그램

- 온라인 프로그램은 축소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크게 확대되며, 도서관 서비스가 대면 중심으로 재편되고 독서 프로그램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을 정점으로 운영이 확대되었다가 이후 급격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는 2020년 8개, 2021년 18개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9개, 2023년 2개, 2024년 3개, 2025년 2개로 대폭 감소함
 - 1회성 프로그램도 2021년 11개에서 2025년 1개로 감소하였으며, 정규강좌 참가자 수도 2021년 1,926명에서 2025년 481명으로 줄어듦
 - 이는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비상 대응 수단의 성격에서 벗어나 선택적 보완 채널로 역할이 재편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반면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는 2020년 20개에서 2025년 49개로 증가하였고, 1회성 프로그램은 15개에서 41개로 증가함
 - 정규강좌 참가자는 2020년 2,354명에서 2025년 8,922명으로 증가하였고,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도 4,412명에서 13,518명으로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독서 프로그램 모두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독서 분야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025년 10,508명으로 문화 프로그램(3,010명)을 크게 상회하여,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높음을 확인 가능함

〈표 2-10〉 전국 공공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온라인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8	18	9	2	3	2
	1회성 프로그램 수	7	11	6	2	1	1
	정규강좌 참가자 수	1,984	1,926	1,284	563	398	481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1,736	2,075	963	477	325	350
문화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3	7	4	1	2	1
	1회성 프로그램 수	2	4	2	1	0	0
	정규강좌 참가자 수	837	691	558	179	99	86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679	512	255	104	104	76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5	11	5	1	1	1
	1회성 프로그램 수	5	7	4	1	1	1
	정규강좌 참가자 수	1,147	1,235	726	384	299	395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1,057	1,563	708	373	221	274

〈표 2-11〉 전국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오프라인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20	28	37	40	52	49
	1회성 프로그램 수	15	25	36	37	37	41
	정규강좌 참가자 수	2,354	3,827	6,372	7,012	8,471	8,922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4,412	8,454	11,620	13,142	13,114	13,518
문화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12	15	20	20	26	23
	1회성 프로그램 수	5	8	13	13	12	14
	정규강좌 참가자 수	1,051	1,699	2,855	2,806	2,720	2,591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1,204	2,192	2,943	3,195	2,879	3,010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8	13	17	20	26	26
	1회성 프로그램 수	10	17	23	24	25	27
	정규강좌 참가자 수	1,303	2,128	3,517	4,206	5,751	6,331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3,208	6,262	8,677	9,947	10,235	10,508

(11) 도서관 동아리

- 공공도서관 동아리는 일시적 급증 이후 안정화되었으며, 독서동아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동아리 수는 2016년 5개에서 2019년 61개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학습동아리 수가 2018년 2개에서 2019년 56개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임
 - 이는 2019년의 특정 정책 사업 또는 통계 집계 방식 변화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이후 2020년에는 5개로 급감하여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됨
 - 코로나19 이후에는 2021~2022년 5개, 2023~2025년 6개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동아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서동아리가 4~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학습동아리는 2023년 이후 1개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며 기타 동아리는 2022년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동아리 참가자 수는 2017년 122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급감한 후 2025년 58명 수준으로 소폭 회복됨
- 동아리 활동은 도서관을 단순 자료 제공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독서동아리 외에 다양한 유형의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 운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표 2-12〉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동아리 · 참가자 수('16~'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독서 동아리	동아리 수	3	4	4	4	4	4	4	4	5	5
	참가자 수	45	80	58	17	42	45	45	42	43	46
학습 동아리	동아리 수	1	2	2	56	1	1	1	1	1	1
	참가자 수	18	32	19	1	11	9	8	8	8	8
기타 동아리	동아리 수	1	2	1	1	0	0	0	1	0	0
	참가자 수	6	10	11	9	6	4	4	3	4	4
합계	동아리 수	5	8	7	61	5	5	5	6	6	6
	참가자 수	69	122	88	27	59	58	57	53	55	58

(12) 어린이서비스

- 어린이 서비스 이용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 자료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수요와 장서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44,163명에서 2017년 41,929명, 2018년 39,972명으로 감소하다 2019년 40,541명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6,239명으로 급감함
 - 이는 전년 대비 약 59.9%가 감소한 수치로, 어린이 이용자가 감염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 도서관 방문이 크게 제한되었던 상황이 반영됨
 - 이후 2021년 24,600명에서 2023년 29,387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4년 30,799명, 2025년 32,52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자료 수는 2016년 30,299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33,088권까지 늘었다가 2022년 32,401권에서 2025년 31,994권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어린이 자료 수의 감소는 전체 인쇄자료 감소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후 자료의 제적 증가와 신규 구입 예산 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표 2-13〉 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 자료 수('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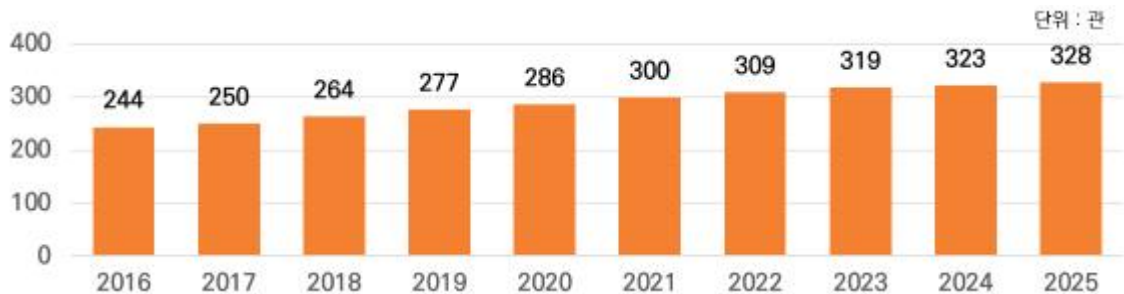
단위 : 명,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용자 수	44,163	41,929	39,972	40,541	16,239	24,600	29,295	29,387	30,799	32,523
증감	-	-2,234	-1,957	569	-24,302	8,361	4,695	92	1,412	1,724
자료 수	30,299	31,789	31,654	32,079	32,094	33,088	32,401	32,271	32,136	31,994
증감	-	1,490	-135	425	15	994	-687	-130	-135	-142

3)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현황

(1) 경기도 공공도서관 수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로 확대되어 최대 규모를 형성하며,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두드러짐
 - 경기도 공공도서관 수는 2016년 244관에서 2025년 328관으로 10년간 84관이 증가하여 약 34.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31.5%)을 상회함
 - 특히 2018년에는 14관이 신설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2021년에도 14관이 신설되어 300관을 처음으로 돌파함
 - 경기도는 전국 도서관 수의 약 24.7%를 차지하며 광역 단위 중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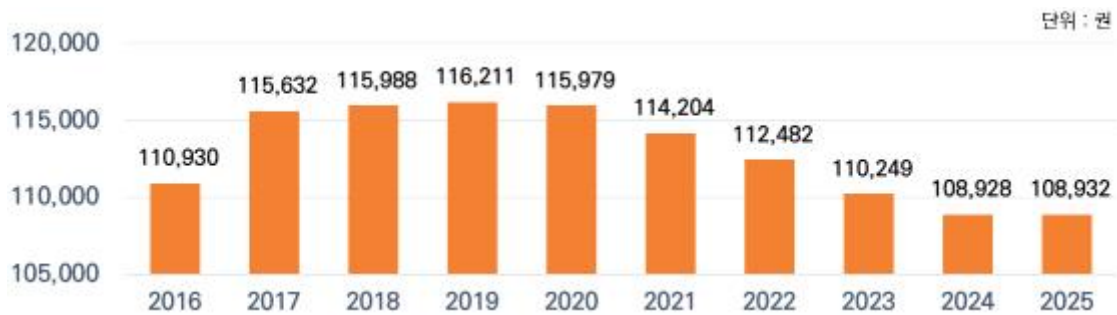


[그림 2-11] 경기도 공공도서관 수 추이('16~'25)

(2) 인쇄 도서 소장자료

- 경기도 공공도서관 인쇄자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내 감소 · 국외 증가의 구조 변화가 나타남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 도서 소장자료는 2016년 110,930권에서 2019년 116,211권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115,979권을 시작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5년 108,932권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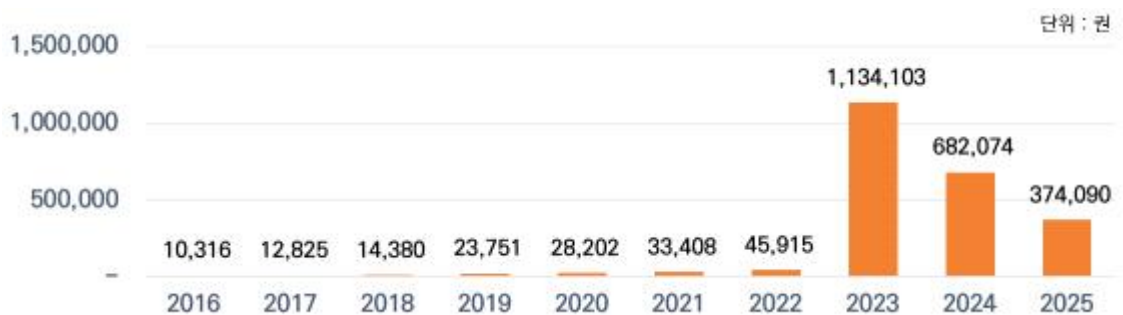
- 인쇄 소장자료의 전국 평균(94,894권)보다 약 14,000권 이상 많은 수준으로, 경기도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쇄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내자료는 2016년 105,427권에서 2025년 102,317권으로 3,110권 감소한 반면, 국외자료는 5,503권에서 6,614권으로 1,111권 증가함
- 국내 인쇄자료의 감소와 국외자료의 소폭 증가라는 구성 변화는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하는 흐름임



[그림 2-12] 경기도 공공도서관 인쇄 소장자료 추이('16~'25)

(3) 전자 소장자료

- 경기도 전자자료는 2023년 일시적 급증 이후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며, 구독 기반의 비지속적 확충 구조가 드러남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전자자료 소장량은 2016년 10,316권에서 2022년 45,915권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3년 1,134,103권으로 급증함
 - 이는 전국 2023년 증가율(약 7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 이후 2024년 682,074권, 2025년 374,090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단위의 전자자료 구독 계약 방식의 변화 또는 라이선스 규모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림 2-13]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자 소장자료 추이('16~'25)

〈표 2-14〉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 · 전자 소장자료 추이('16~'25)

단위 :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쇄소장자료	110,930	115,632	115,988	116,211	115,979
증감	-	4,703	355	223	-231
국내	105,427	110,056	110,154	109,429	109,797
국외	5,503	5,577	5,834	6,781	6,182
전자소장자료	10,316	12,825	14,380	23,751	28,202
증감	-	2,509	1,556	9,370	4,451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쇄소장자료	114,204	112,482	110,249	108,928	108,932
증감	-1,775	-1,722	-2,233	-1,321	3
국내	107,887	106,053	103,717	102,362	102,317
국외	6,317	6,429	6,532	6,566	6,614
전자소장자료	33,408	45,915	1,134,103	682,074	374,090
증감	5,206	12,507	1,088,187	-452,029	-307,983

(4) 소장자료 증가 및 제적 수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전자자료 도입 시기에 자료 증가가 급증하는 변동성을 보이며, 제적 관리와 함께 장서를 조정하는 구조가 나타남
 -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연간 자료 증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 권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1년 8,174권, 2022년 8,002권으로 감소함
 - 이후 2023년 20,438권, 2024년 24,336권으로 급증하였다가 2025년 8,104권으로 다시 감소함
 - 2023~2024년의 급증은 앞서 살펴본 전자자료 대규모 도입과 연동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기의 자료 증가 수치는 전자자료 구매량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제적 수는 2016년 1,845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5,185권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24년 5,038권, 2025년 4,041권으로 감소함
 - 경기도의 제적 수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며, 장서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15〉 경기도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증가 및 제적 수 추이('16~'25)

단위 :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 수	10,052	9,705	9,378	10,269	10,616	8,174	8,002	20,438	24,336	8,104
제적 수	1,845	2,709	2,996	3,718	4,361	4,464	4,986	5,185	5,038	4,041
증가-제적수	8,207	6,996	6,382	6,551	6,255	3,710	3,016	15,253	19,298	4,063

(5) 시설현황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부지 축소 · 좌석 감소 속에서도 전국 대비 넓은 시설 규모를 유지하나, 공간 구성은 고밀화와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음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부지면적은 2016년 10,667㎡에서 2025년 7,993㎡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7,288㎡로 급감하였다가 2024년 8,061㎡로 소폭 회복함
- 연면적은 2016년 3,171㎡에서 2021년 3,314㎡로 증가하였다가 2022~2023년 소폭 감소 후 2025년 3,247㎡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2,647㎡)보다 약 600㎡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2-16〉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부지면적 및 연면적 추이('16~'25)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지면적	10,667	10,508	10,217	10,015	9,951	10,755	10,505	7,288	8,061	7,993
증감	-	-159	-291	-202	-64	804	-250	-3,217	773	-68
연면적	3,171	3,196	3,164	3,191	3,195	3,314	3,168	3,108	3,122	3,247
증감	-	25	-32	27	4	119	-146	-60	14	125

- 총 좌석 수는 2016년 405석에서 2025년 321석으로 84석이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279석) 보다는 42석 높은 수준임
- 어린이 열람석은 2016~2019년 80~83석을 유지하다가 2020년 66석으로 감소한 후 2025년 64석을 기록함
-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7석에서 5석으로 감소하였고, 이용자용 컴퓨터 수는 30대에서 20대로 감소함

〈표 2-17〉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총 좌석 수 및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열람석 수 추이('16~'25)

단위 : 석, 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좌석 수	405	398	391	378	369	356	342	331	324	321
증감	-	-7	-7	-13	-9	-13	-14	-11	-7	-3
어린이 열람석 수	80	80	82	83	66	65	64	63	62	64
증감	-	0	2	1	-17	-1	-1	-1	-1	2
노인 · 장애인 열람석 수	7	7	7	7	7	7	6	6	6	5
증감	-	0	0	0	0	0	-1	0	0	-1
이용자용 컴퓨터 수	30	29	28	26	25	23	23	22	21	20
증감	-	-1	-1	-2	-1	-2	0	-1	-1	-1

(6) 직원 및 지원인력 현황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사서 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며, 자원봉사자

는 감소 후 회복이 미흡한 상태임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사서직 수는 2016년 2.75명에서 2025년 4.06명으로 10년간 1.31명이 증가하여 증가 추세를 보임
- 다만 전국 평균(4.73명)에 비해 0.67명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도서관 수가 많고 규모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 수는 2019년 575명으로 최고치에 달하였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121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2021년 153명에서 2024년 237명으로 꾸준히 회복하였으나 2025년 172명으로 다시 감소함
-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집 · 관리 방안이 요구됨

〈표 2-18〉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직 및 자원봉사자 수 추이('16~'25)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관당 사서직	2.75	2.89	3.1	3.4	3.55	3.66	3.71	3.91	3.96	4.06
증감	-	0.14	0.21	0.3	0.15	0.11	0.05	0.2	0.05	0.1
1관당 자원봉사자	374	461	540	575	121	153	193	222	237	172
증감	-	87	79	35	-454	32	40	29	15	-65

(7) 자료구입비

- 경기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전자자료는 일시적 집중 투자 이후 변동성을 보이고 인쇄 · 비도서 · 연속간행물은 축소되는 구조가 나타남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도서자료 구입비는 2016년 80,083천 원에서 2018년 88,228천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5년 58,386천 원까지 하락함
- 이는 전국 평균(60,850천 원)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며, 2018년 정점 대비 2025년은 29,842천 원, 약 33.8%가 감소함
 -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전자자료 구입비는 2016년 4,145천 원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3년 22,107천 원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2024년 7,842천 원, 2025년 9,370천 원으로 감소함
- 2023년의 급증은 전자자료 소장량의 폭발적 증가와 연동된 결과로, 대규모 전자자료 구입이 단기 집중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함

- 비도서 구입비는 2016년 3,548천 원에서 2025년 853천 원으로 76%가 감소하였으며, 연속 간행물 구입비도 11,038천 원에서 8,416천 원으로 줄어드는 전반적 감소 추세를 보임

〈표 2-19〉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추이('16~'25)

단위 : 천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도서자료 구입비	80,083	84,683	88,228	83,881	80,373	71,223	72,837	61,621	58,506	58,386
증감	-	4,600	3,545	-4,347	-3,508	-9,150	1,614	-11,216	-3,115	-120
비도서 구입비	3,548	4,223	4,190	3,462	2,391	1,571	1,685	1,172	882	853
증감	-	675	-33	-728	-1,071	-820	114	-513	-290	-29
전자자료 구입비	4,145	3,320	4,237	3,731	7,960	10,455	8,870	22,107	7,842	9,370
증감	-	-825	917	-506	4,229	2,495	-1,585	13,237	-14,265	1,528
연속간행물 구입비	11,038	11,205	10,790	10,888	9,667	9,750	10,029	8,962	8,578	8,416
증감	-	167	-415	98	-1,221	83	279	-1,067	-384	-162



[그림 2-14]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추이('16~'25)

(8) 대출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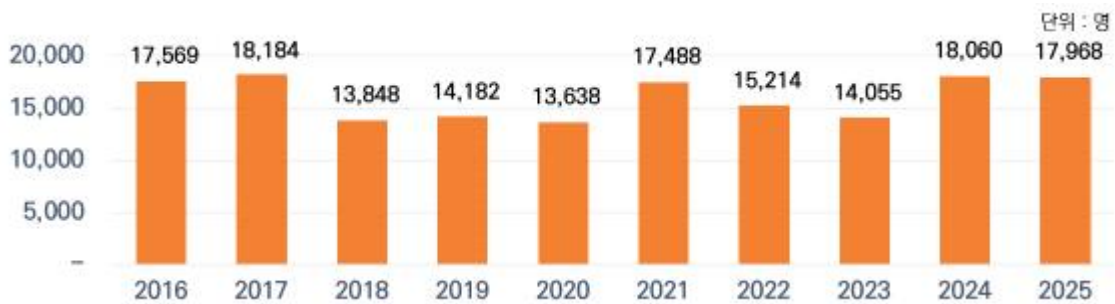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전국 대비 높은 대출 이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쇄자료는 감소하고 전자자료 이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 수는 2016년 17,569명, 2017년 18,184명으로 전국 평균(10,957명, 13,111명)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임
 - 이후 2018년 13,848명, 2019년 14,182명, 2020년 13,63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1년 17,488명으로 회복하였고, 2022년 15,214명, 2023년 14,055명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24년 18,060명으로 재차 최고치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5년에도 17,968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전국 평균(14,280명)보다 약 26% 높은 수치로, 경기도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 수준이 전국 대비 우수함을 보여줌
-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높은 이용률은 경기도의 젊은 인구 구성, 활발한 독서문화, 접근성 높은 도서관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표 2-20〉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 수 추이('16~'25)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출 이용자수	17,569	18,184	13,848	14,182	13,638	17,488	15,214	14,055	18,060	17,968
증감	-	615	-4,336	334	-544	3,850	-2,274	-1,159	4,005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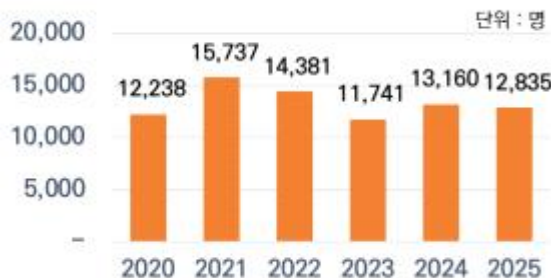
[그림 2-15]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이용자 수 추이('16~'25)

-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는 2021년 15,7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5년 12,83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 전자자료 대출이용자 수는 2020년 1,400명, 2021년 1,750명, 2022년 833명으로 등락이 있다가 2023년 2,314명에서 2025년 5,133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경기도의 전자자료 이용 확산이 전국 평균을 뚜렷하게 상회하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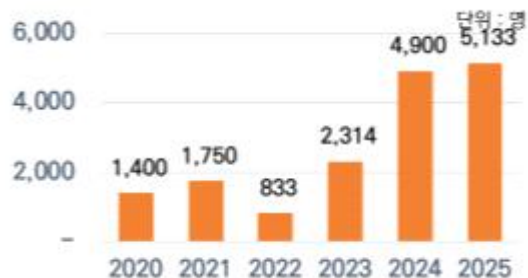
〈표 2-21〉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전자자료 대출 이용자 수 추이('20~'25)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쇄자료 대출 이용자 수	12,238	15,737	14,381	11,741	13,160	12,835
증감	-	3,499	-1,356	-2,640	1,419	-325
전자자료 대출 이용자 수	1,400	1,750	833	2,314	4,900	5,133
증감	-	350	-917	1,481	2,586	233



[그림 2-16]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 추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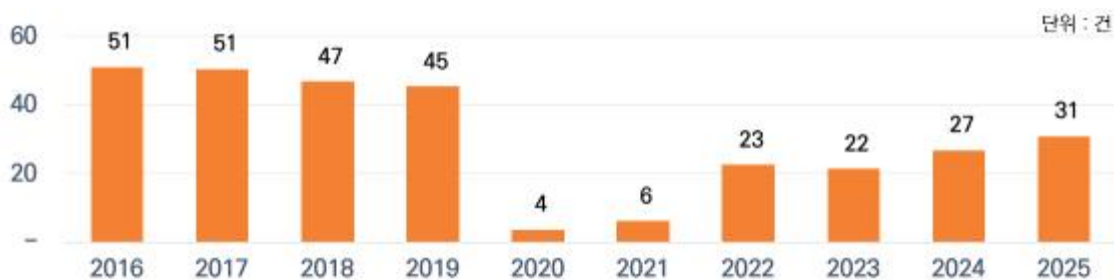


[그림 2-17]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전자자료 대출이용자 수 추이('20~'25)

(9) 이용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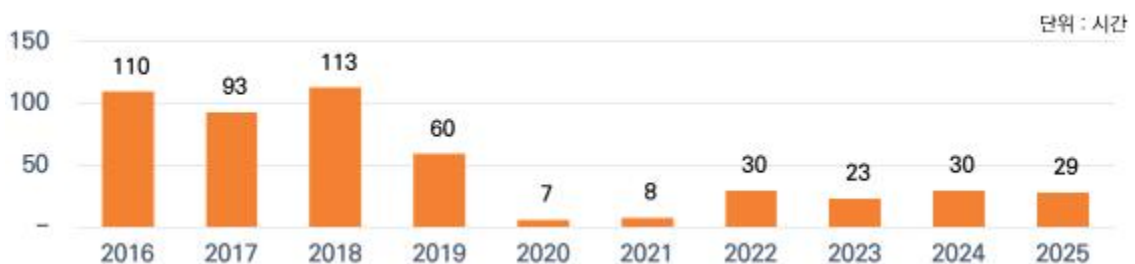
□ 경기도 공공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이나 전국 대비 참여와 운영 규모가 낮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건수는 2016~2017년 각 51건, 2018년 47건, 2019년 45건으로 전국 평균(82~94건)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급감함
- 이후 2022년 23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 2025년 31건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의 31건은 팬데믹 이전 수준(45~51건)에 비해 약 60% 수준까지 회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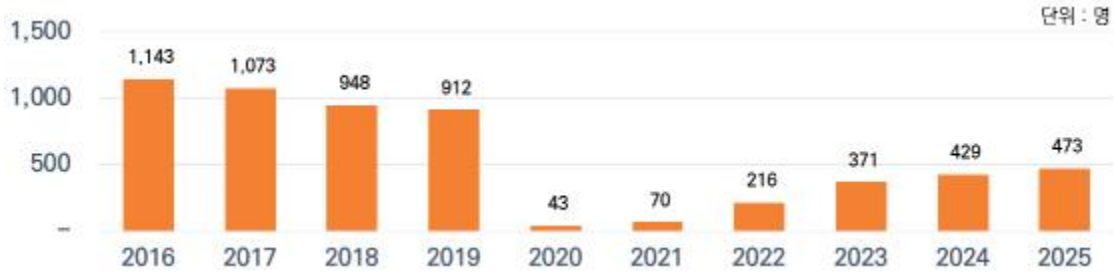
[그림 2-18]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건수 추이('16~'25)

- 이용자 교육 시간은 2016년 110시간에서 2018년 113시간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60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7시간, 2021년 8시간으로 급감한 후 2022~2025년에는 23~30시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19]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건수 추이('16~'25)

-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는 2016년 1,143명에서 2019년 912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에는 43명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임
- 전국 평균 참가자 수(642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다양한 교육 주제 개발이 필요함



[그림 2-20]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 추이('16~'25)

(10)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그램

-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크게 축소된 반면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전국보다 빠르게 확대되어 대면 중심 운영이 강화되고 있음
 - 경기도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2020~2021년 운영이 확대되었다가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2025년에는 정규강좌 프로그램 2개, 1회성 1개로 최소 수준에 그침
 -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이 더욱 위축된 양상으로, 대면 서비스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됨
 - 다만 온라인 프로그램은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육아 중인 부모, 장거리 거주 이용자 등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 채널로서 일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함

〈표 2-22〉 경기도 공공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온라인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10	19	11	3	2	2
	1회성 프로그램 수	6	13	6	2	1	1
	정규강좌 참가자 수	2,124	1,746	1,813	514	262	301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1,384	1,750	769	276	284	312
문화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4	6	4	1	0	1
	1회성 프로그램 수	2	5	2	1	1	1
	정규강좌 참가자 수	1,479	510	1,113	135	34	66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782	918	407	179	196	183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6	13	7	2	1	1
	1회성 프로그램 수	4	8	4	1	1	0
	정규강좌 참가자 수	646	1,236	700	379	229	235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602	832	362	97	88	129

-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경우 전국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여,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2020년 8개에서 2025년 35개로 4.4배 증가하였고, 1회성 프로그램은 7개에서 37개로 5.3배 증가함
-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20년 1,405명에서 2025년 8,388명으로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약 3.1배)을 크게 상회함

〈표 2-23〉 경기도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오프라인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8	6	19	26	37	35
	1회성 프로그램 수	7	11	24	30	34	37
	정규강좌 참가자 수	1,024	1,370	2,750	3,538	3,940	4,090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1,405	2,345	3,417	7,270	7,349	8,388
문화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3	2	7	9	11	12
	1회성 프로그램 수	3	3	9	12	12	16
	정규강좌 참가자 수	416	460	734	1,327	1,414	1,346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615	845	1,147	1,994	1,812	2,206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5	4	12	17	25	23
	1회성 프로그램 수	4	7	16	19	22	21
	정규강좌 참가자 수	609	910	2,016	2,211	2,526	2,744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790	1,500	2,270	5,277	5,537	6,182

(11) 도서관 동아리

- 경기도 공공도서관 동아리는 일시적 급증 이후 소규모로 안정화되었으나, 참여 인원 감소로 커뮤니티 활성화 과제가 남아 있음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동아리 수는 2016년 6개에서 2019년 52개로 급증하였다가 2020년 5개로 급감한 후 2021~2025년에는 4~5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국과 마찬가지로 2019년의 급증은 학습동아리 수의 폭발적 증가(47개)에 기인하며, 이후 안정화된 추세를 보임
 - 독서동아리는 3~4개를 꾸준히 유지하며 가장 지속적인 동아리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
 - 동아리 참가자 수는 2017년 142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25년 4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58명)보다 낮은 수준임
 - 동아리 참가자 수의 감소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모임 문화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동아리 유형의 발굴과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표 2-24〉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동아리 · 참가자 수('16~'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독서 동아리	동아리 수	3	3	4	4	3	4	3	3	4	4
	참가자 수	42	91	62	11	35	37	33	31	34	35
학습 동아리	동아리 수	1	1	1	47	1	1	0	0	0	0
	참가자 수	13	33	14	1	6	5	6	4	3	3
기타 동아리	동아리 수	2	5	2	1	0	0	0	1	0	0
	참가자 수	8	19	21	13	4	4	3	4	4	4
합계	동아리 수	6	10	6	52	5	5	4	5	4	5
	참가자 수	63	142	96	25	46	46	42	39	42	42

(12) 어린이서비스

- 경기도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는 전국보다 높은 이용 수준으로 회복 중이나, 팬데믹 이전에는 미치지 못해 장서 · 공간 ·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43,563명에서 2019년 40,745명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16,315명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2025년 35,176명을 기록함
- 이는 전국 평균(32,523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기도 내 어린이 인구 비중이 높고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만명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어린이 특화 서비스 강화와 공간 개선이 요구됨
- 어린이 자료 수는 2016년 35,762권에서 2021년 39,133권으로 증가하다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5년 36,780권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평균(31,994권)보다 약 4,800권 높은 수준임
- 어린이서비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서의 양적 확충과 함께, 그림책, 정보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 자료를 균형 있게 갖추고,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표 2-25〉 경기도 공공도서관 1관당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 자료 수('16~'25)

단위 : 명,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용자 수	43,563	41,374	39,728	40,745	16,315	24,707	29,280	28,713	31,888	35,176
증감		-2,189	-1,646	1,017	-24,430	8,392	4,573	-567	3,175	3,288
자료 수	35,762	37,849	37,380	37,604	37,705	39,133	37,818	37,476	37,237	36,780
증감		2,087	-469	224	101	1,428	-1,315	-342	-239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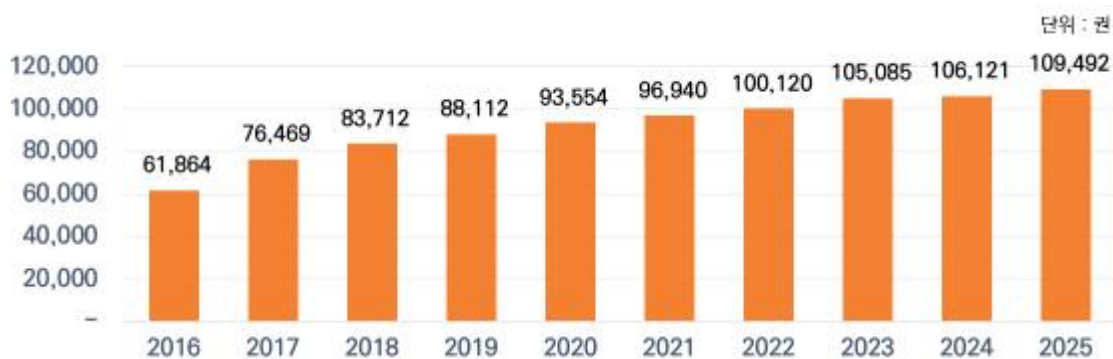
4) 진접도서관 통계 현황

(1) 소장자료

- 진접도서관은 인쇄자료는 꾸준히 확충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자료는 급증과 급감을 반복하며 전국 대비 취약한 불안정 구조를 보임
- 진접도서관의 인쇄자료 소장량은 2016년 61,864권에서 2025년 109,492권으로 10년간 47,628권이 증가하여 약 7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이나 경기도 평균 증가율과 대조적으로 진접도서관이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이어왔음을 보여줌
-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61,864권에서 2017년 76,469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서관 개관 초기 또는 서비스 확대 시기에 장서를 집중적으로 확충한 결과로 해석됨

- 이후 2018년 83,712권에서 2025년 109,492권으로 증가 폭은 줄었으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현재 진접도서관의 인쇄자료 소장량(109,492권)은 전국 평균(94,894권)을 약 15.4% 상회하며, 경기도 평균(108,932권)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장서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자료는 2016년 58,023권에서 2025년 104,542권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외자료는 3,841권에서 4,950권으로 소폭 증가함



[그림 2-21] 진접도서관 도서 인쇄자료 소장량 추이('16~'25)

- 진접도서관의 전자자료 소장량은 2016년 0권으로 전자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2017년 7,611권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2019년에는 658권으로 대폭 감소함
 - 초기 전자자료 구독 계약이 종료되고 후속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자자료 확충에 대한 체계적 계획의 부재를 나타냄
- 이후 2020년 9,810권, 2021년 9,625권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2년 75,078권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2023년 104,945권, 2024년 385,087권으로 증가함
- 그러나 2025년에는 187,493권으로 전년 대비 약 51.3%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432,139권)의 43.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경기도 평균(374,090권)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전자자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줌
- 2024년의 급증과 2025년의 급감은 전자자료 구독 계약의 일시적 확대와 축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자료 구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그림 2-22] 진접도서관 전자자료 소장량 추이('16~'25)

〈표 2-26〉 진접도서관 인쇄 · 전자 소장자료 추이('16~'25)

단위 :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쇄소장자료	61,864	76,469	83,712	88,112	93,554
추이	-	14,605	7,243	4,400	5,442
국내	58,023	72,265	79,392	83,355	88,795
국외	3,841	4,204	4,320	4,757	4,759
전자소장자료	0	7,611	658	658	9,810
추이	-	7,611	-6,953	-	9,152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쇄소장자료	96,940	100,120	105,085	106,121	109,492
추이	3,386	3,180	4,965	1,036	3,371
국내	92,095	95,244	100,154	101,170	104,542
국외	4,845	4,876	4,931	4,951	4,950
전자소장자료	9,625	75,078	104,945	385,087	187,493
추이	-185	65,453	29,867	280,142	-197,594

(2) 소장자료 증가 및 제적 수

- 진접도서관은 최근 장서 증가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제적은 확대되어, 장서 확충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가 나타남
 - 진접도서관의 연간 자료 증가 수는 2016년 8,684권, 2017년 14,542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 6,780권에서 2020년 6,443권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21년 3,510권, 2022년 3,239권으로 감소함
 - 2023년에는 3,699권, 2024년에는 2,312권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 2025년에는 2,552권을 기록함
 - 이는 전국 평균의 연간 증가 수(2025년 10,772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진접도서관의 신규 장서 확충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을 보여줌
 - 제적 수는 2016년 69권에서 2020년 23권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29권, 2022년 28권으로 등락을 보인 후, 2024년 1,185권, 2025년 718권으로 크게 증가함

〈표 2-27〉 진접도서관 소장자료 증가 및 제적 수 추이('16~'25)

단위 :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 수	8,684	14,542	6,780	6,843	6,443	3,510	3,239	3,699	2,312	2,552
제적 수	69	184	40	22	23	129	28	81	1,185	718
증가-제적수	14,358	6,740	6,821	6,420	3,381	3,211	3,618	1,127	1,834	4,063

(3) 시설 현황

- 진접도서관은 전체 좌석과 컴퓨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 취약계층 좌석이 크게 부족해 공간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 진접도서관의 총 좌석 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14~422석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 354석으로 감소함
- 전국 평균(279석), 경기도 평균(321석)보다 높은 수준이나, 감소 폭이 크고 특히 어린이 열람석이 2016~2024년 100석에서 2025년 40석으로 급감함
- 어린이 열람석 수(40석)는 전국 평균(57석), 경기도 평균(64석)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향후 공간 재구성 과정에서 어린이 전용 공간의 확충이 고려되어야 함
-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은 2석으로 고정되어 있어 전국 평균(5.6석), 경기도 평균(5석)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임
-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전용 좌석과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이 시급함
- 이용자용 컴퓨터 수는 2016~2018년 84대로 전국 평균(24.5대)의 3배 이상을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부터 28대로 급감한 후 2025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28대는 전국 평균(16.6대), 경기도 평균(20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2-28〉 진접도서관 총 좌석 수 및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열람석 수 추이('16~'25)

단위 : 석, 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좌석 수	422	422	422	422	422	422	414	414	414	354
증감	-	0	0	0	0	0	-8	0	0	-60
어린이 열람석 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0
증감	-	0	0	0	0	0	0	0	0	-60
노인 · 장애인 열람석 수	2	2	2	2	2	2	2	2	2	2
증감	-	0	0	0	0	0	0	0	0	0
이용자용 컴퓨터 수	84	84	84	28	28	28	28	28	28	28
증감	-	0	0	-56	0	0	0	0	0	0

(4) 직원 및 지원인력 현황

- 진접도서관은 사서 인력은 평균 수준이나 서비스 대비 확충 필요성이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감소세를 보임
- 진접도서관의 사서직 수는 2016년 2명에서 2017~2023년 3명을 유지하다가 2024년 5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4명으로 감소함

- 전국 평균(4.73명), 경기도 평균(4.06명)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임
- 자원봉사자 수는 2016년 102명에서 2017년 409명, 2018년 446명, 2019년 624명으로 급증하여 전국 평균(42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 코로나19로 2020년 124명으로 급감하였으나, 이후 2021년 311명, 2022년 381명, 2023년 437명으로 빠르게 회복하였다가 2024년 281명, 2025년 238명으로 감소함
- 2025년 현재 238명은 전국 평균(136명)보다 74.9% 높고, 경기도 평균(172명)보다도 38.4% 높은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서관 참여 의지가 높음을 보여줌

〈표 2-29〉 진접도서관 정규직 사서직 및 자원봉사자 수 추이('16~'25)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관당 사서직	2	3	3	3	3	3	3	3	5	4
증감	-	1	0	0	0	0	0	0	2	-1
1관당 자원봉사자	102	409	446	624	124	311	381	437	281	238
증감	-	307	37	178	-500	187	70	56	-156	-43

(5) 자료구입비

- 진접도서관은 초기 대규모 투자 이후 도서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장서 확충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전자자료는 자체 예산이 아닌 공동구매 의존 구조가 나타남
- 진접도서관의 도서자료 구입비는 2016년 180,000천 원으로 전국 평균(66,821천 원)의 약 2.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7년 88,000천 원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5,000천 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함
- 2022년 50,000천 원으로 크게 반등한 후 2023년 31,800천 원, 2024년 38,160천 원, 2025년 41,976천 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60,850천 원)의 약 68.9%, 경기도 평균(58,386천 원)의 약 71.9%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16년 이후 도서자료 구입비의 급격한 감소는 초기 장서 구축을 위한 일시적 대규모 투자 이후 예산이 정상화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후 장기간 저조한 구입비가 지속된 것은 안정적인 장서 확충에 걸림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2021년의 5,000천 원은 도서자료 구입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수준으로, 해당 연도 연간 증가 수(3,510권)와 비교할 때 다른 예산 항목을 통한 자료 구입이 이루어졌거나 기증 자료로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됨
- 비도서 구입비는 2016~2022년 3,000천원에서 ~7,000천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

터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자료 구입비도 2022년 6,192천 원을 끝으로 2023년 이후 집행 실적이 없음

- 이는 진접도서관의 전자자료 소장이 자체 예산 구입보다는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 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속간행물 구입비는 2016~2022년 14,400~16,200천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이후 8,100천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함

〈표 2-30〉 진접도서관 자료구입비 추이('16~'25)

단위 : 천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도서자료 구입비	180,000	88,000	88,333	88,333	50,000	5,000	50,000	31,800	38,160	41,976
증감	-	-92,000	333	-	-38,333	-45,000	45,000	-18,200	6,360	3,816
비도서 구입비	7,000	5,000	5,000	5,000	3,000	3,000	3,000	-	-	-
증감	-	-2,000	-	-	-2,000	0	0	-	-	-
전자자료 구입비	-	916	916	-	-	3,542	6,192	-	-	-
증감	-	-	-	-	-	-	2,650	-	-	-
연속간행물 구입비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16,200	14,400	8,100	8,100	8,100
증감	-	-	-	-	-	-	-1,800	-6,300	-	-



[그림 2-23] 진접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 추이('20~'25)

(6) 대출 이용자 수

- 진접도서관은 장서 규모 대비 대출 이용이 낮고 전자자료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 촉진이 필요한 상황임

- 진접도서관의 대출이용자 수는 2016년 15,022명에서 2017년 9,795명으로 급감하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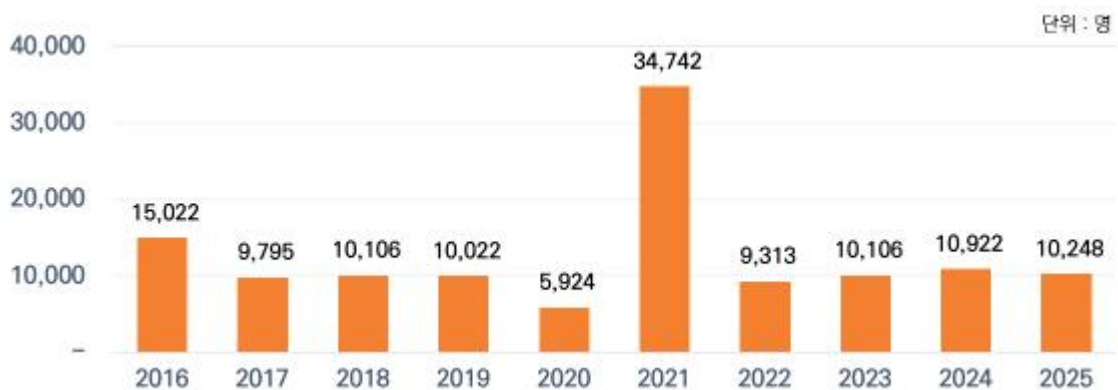
2018년 10,106명, 2019년 10,022명으로 소폭 회복함

-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924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가 2021년 34,742명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함
- 이는 전국 평균(14,851명), 경기도 평균(17,488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2021년의 특수한 서비스 환경이나 집계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2년에는 9,313명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2023년 10,106명에서 2025년 10,248명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현재 진접도서관의 대출이용자 수(10,248명)는 전국 평균(14,280명)의 71.8%, 경기도 평균(17,968명)의 5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는 장서 규모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서 활용률이 낮음을 의미하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전자자료 대출이용자는 2024년 563명, 2025년 206명에 그쳐 전국 평균(2,860명), 경기도 평균(5,133명)과의 격차가 매우 크며,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2-31〉 진접도서관 대출이용자 수 추이('16~'25)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출 이용자수	15,022	9,795	10,106	10,022	5,924	34,742	9,313	10,106	10,922	10,248
증감	-	-5,227	311	-84	-4,098	28,818	-25,429	793	816	-674



[그림 2-24] 진접도서관 대출이용자 수 추이('16~'25)

(7) 인쇄자료 대출 · 이용수

- 진접도서관은 인쇄자료 이용은 회복세를 보이나 전자자료 이용은 급감 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디지털 서비스 기반이 취약함
- 진접도서관의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는 2020년 5,924명에서 2021년 9,028명으로 증가하

였고, 2022년 9,313명에서 2025년 10,04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평균(2025년 11,421명), 경기도 평균(12,835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2020년 최저점 이후 지속적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인쇄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장서 확충과 함께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편의성 강화가 중요
- 전자자료 대출이용자 수는 2021년 25,714명이었다가 이후 2024년 563명, 2025년 20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전국 평균(2,860명)의 7.2%, 경기도 평균(5,133명)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은 진접도서관의 전자자료 이용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줌

〈표 2-32〉 진접도서관 인쇄 · 전자자료 대출 이용자 수 추이('20~'2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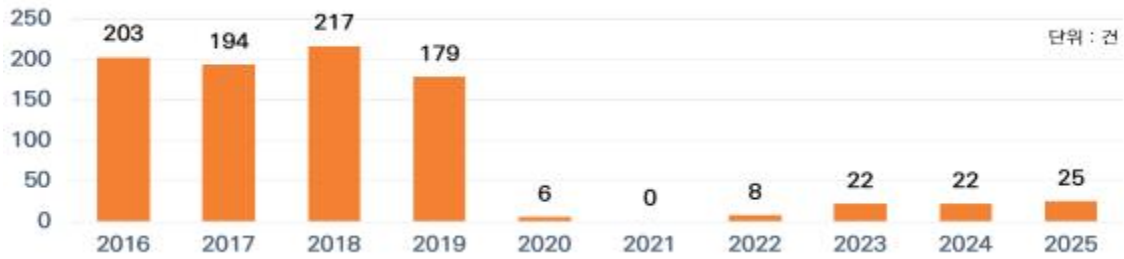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쇄자료 대출 이용자 수	5,924	9,028	9,313	10,106	10,359	10,042
증감	-	3,104	285	793	253	-317
전자자료 대출 이용자 수	-	25,714	-	-	563	206
증감	-	25,714	-25,714	-	-	-357



[그림 2-25] 진접도서관 인쇄자료 대출이용자 수 추이('20~'25) [그림 2-26] 진접도서관 전자자료 대출이용자 수 추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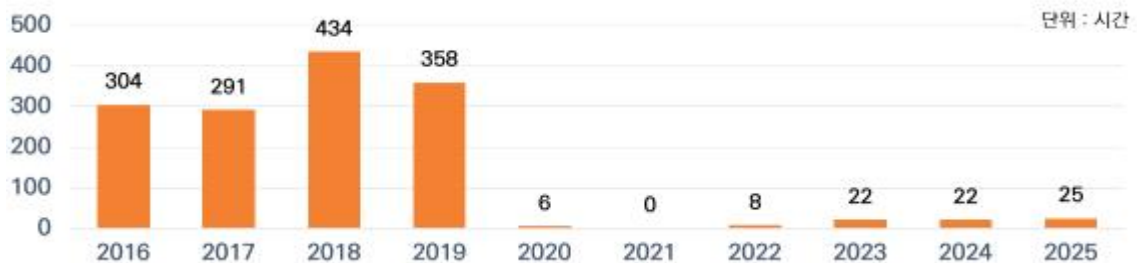
(8) 이용자 교육

- 진접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팬데믹 이전 매우 활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크게 위축되어 회복 중이나 여전히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진접도서관의 이용자 교육 건수는 2016년 203건, 2017년 194건, 2018년 217건, 2019년 179건으로 전국 평균(82~94건)의 2배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6건, 2021년 0건으로 사실상 중단 수준에 이른 후 2022년 8건에서 2025년 25건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의 200건에 가까운 수준과는 큰 격차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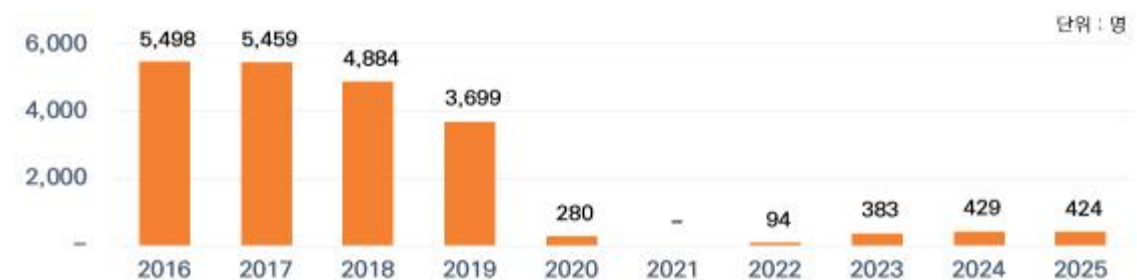
[그림 2-27] 진접도서관 이용자 교육 건수 추이('16~'25)

- 이용자 교육 시간도 2016년 304시간, 2017년 291시간, 2018년 434시간, 2019년 358시간으로 높았다가 2020년 6시간, 2021년 0시간으로 급감한 후 2022년 8시간, 2023~2025년 22~25시간 수준으로 회복함
- 이는 전국 평균(41시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교육 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있어, 각 교육 프로그램의 깊이와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28] 진접도서관 이용자 교육 시간 추이('16~'25)

-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는 2016년 5,498명, 2017년 5,459명, 2018년 4,884명, 2019년 3,699명으로 전국 평균(1,222명~988명)을 4~5배 이상 상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280명, 2021년 0명으로 급감하였고, 2022년 94명, 2023년 383명, 2024년 429명, 2025년 424명으로 회복 중임



[그림 2-29] 진접도서관 이용자 교육 시간 추이('16~'25)

(9)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그램

- 진접도서관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가운데, 일회성 프로그램은 활성화된 반면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축소되어 운영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임
- 진접도서관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2021년 정규 10개, 1회성 9개, 참가자 1,049명으로 최고

- 수준을 보였다가 2022년 정규 5개, 1회성 2개로 감소하였고, 2023년 이후에는 전면 중단됨
- 대면 서비스 회복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 등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 채널로서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기간 중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2020년 5개, 2022년 7개, 2023년 5개, 2024년 8개, 2025년 3개로 등락이 있으며, 1회성 프로그램은 2022년 17개, 2023년 34개, 2024년 13개, 2025년 24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023년 4,723명, 2024년 3,183명, 2025년 4,29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회성 이벤트나 특강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높음을 보여줌
 - 반면 정규강좌 프로그램이 2025년 3개로 감소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2-33〉 진접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온라인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	10	5	-	-	-
	1회성 프로그램 수	1	9	2	-	-	-
	정규강좌 참가자 수	-	599	233	-	-	-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6	450	29	-	-	-
문화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	7	2	-	-	-
	1회성 프로그램 수	1	2	-	-	-	-
	정규강좌 참가자 수	-	396	80	-	-	-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6	15	-	-	-	-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	3	3	-	-	-
	1회성 프로그램 수	-	7	2	-	-	-
	정규강좌 참가자 수	-	203	153	-	-	-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	435	29	-	-	-

〈표 2-34〉 진접도서관 오프라인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오프라인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5	-	7	5	8	3
	1회성 프로그램 수	1	-	17	34	13	24
	정규강좌 참가자 수	200	-	383	225	564	154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88	-	1,753	4,723	3,183	4,290
문화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2	-	4	2	7	-
	1회성 프로그램 수	-	-	8	29	7	7
	정규강좌 참가자 수	76	-	194	112	327	-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	-	1,452	4,258	154	257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	3	-	3	3	1	3
	1회성 프로그램 수	1	-	9	5	6	17
	정규강좌 참가자 수	124	-	189	113	237	154
	1회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	88	-	301	465	3,029	4,033

(10) 도서관 동아리

- 진접도서관 동아리는 축소 이후 소규모로 안정화되었으며, 독서동아리 중심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이 필요한 단계임
 - 진접도서관의 동아리 수는 2016년 4개에서 2019년 13개(학습동아리 12개 포함)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2개로 급감한 후 2021~2022년 2개, 2023~2025년 3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독서동아리는 2023~2025년 3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학습동아리는 2022년 이후, 기타 동아리는 2020년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동아리 참가자 수는 2016년 58명, 2017년 455명(기타 동아리 272명 포함)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8년 29명, 2019년 8명, 2020~2022년 19~22명으로 감소한 후 2023년 32명, 2024년 36명, 2025년 30명으로 소폭 회복함
 - 현재 독서동아리 참가자 30명은 소규모지만 안정적인 수준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독서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학습동아리, 창작 동아리, 디지털 활용 동아리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도서관의 커뮤니티 허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표 2-35〉 진접도서관 동아리 · 참가자 수('20-'25)

단위 : 개, 명

구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독서 동아리	동아리 수	3	1	1	1	1	1	1	3	3	3
	참가자 수	53	183	12	-	12	12	12	32	36	30
학습 동아리	동아리 수	1	-	-	12	-	1	1	-	-	-
	참가자 수	5	-	-	1	-	7	10	-	-	-
기타 동아리	동아리 수	-	3	2	-	1	-	-	-	-	-
	참가자 수	-	272	17	7	7	-	-	-	-	-
합계	동아리 수	4	4	3	13	2	2	2	3	3	3
	참가자 수	58	455	29	8	19	19	22	32	36	30

(11) 어린이서비스

- 진접도서관은 어린이 자료는 풍부하나 이용자 수는 감소해, 공간 축소 영향 속에서 서비스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진접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6년 61,758명에서 2017년 64,061명, 2018년 72,089명, 2019년 71,015명으로 전국 평균(39,972 ~ 44,163명), 경기도 평균(39,728 ~ 43,563명)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진접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어린이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관의 어린이 특화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음을 보여줌
 - 코로나19로 2020년 29,366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21년 88,391명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어린이 이용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이거나 집계 기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2022년 이후에는 84,499명(2022년)에서 28,094명(2023년)으로 급감하였고 2024년 30,810명, 2025년 28,721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수(28,721명)는 전국 평균(32,523명), 경기도 평균(35,176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높았던 이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살펴본 어린이 열람석 감소(100석 → 40석)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 공간의 축소가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됨
 - 어린이 자료 수는 2016년 28,054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46,601권을 기록하였으며, 전국 평균(31,994권)보다 약 45.7%, 경기도 평균(36,780권)보다 약 26.7% 높은 수준임
 - 어린이 자료의 양적 기반은 충분하나, 이용자 수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표 2-36〉 진접도서관 1관당 어린이 서비스 이용자 · 자료 수('16~'25)

단위 : 명, 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용자 수	61,758	64,061	72,089	71,015	29,366	88,391	84,499	28,094	30,810	28,721
증감		2,303	8,028	-1,074	-41,649	59,025	-3,892	-56,405	2,716	-2,089
자료 수	28,054	33,186	36,023	38,887	41,014	42,340	44,130	45,736	46,275	46,601
증감		5,132	2,837	2,864	2,127	1,326	1,790	1,606	539	326

5) 소결

- 전국 · 경기도 · 진접도서관 모두에서 디지털 전환과 공간 · 서비스 재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진접도서관은 인쇄장서와 어린이 서비스는 강점이나 전자자료 · 이용 활성화 · 취약계층 공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구조를 보임

- 전국, 경기도, 진접도서관의 장서 · 시설 · 인력 · 예산 · 이용 · 프로그램 및 어린이서비스 등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음
- (① 도서관 수) 공공도서관 수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성장률(34.4%)은 전국 평균(31.5%)을 상회함
 - 진접도서관이 위치한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서 도서관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 성장과 함께 기존 도서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
- (② 장서 구성) 장서 구성에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상반된 흐름이 전국 · 경기도 · 진접도서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됨
 - 전국 기준 인쇄자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전자자료는 202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함
 - 진접도서관은 인쇄자료 면에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자료는 전국 평균의 43% 수준에 불과하여 디지털 전환 흐름에의 대응이 미흡한 상태임
- (③ 시설) 전국과 경기도의 총 좌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해 공공도서관은 단순 열람 · 학습 공간 중심에서 프로그램 · 커뮤니티 공간 중심으로 도서관 공간이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진접도서관의 경우 총 좌석 수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나, 노인 · 장애인 열람석이 2석으로 전국 평균(5.6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어린이 열람석도 최근 40석으로 급감하여 전국 ·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이는 공간의 양적 규모에 비해 특정 이용자층을 위한 접근성이 크게 부족한 불균형 상태임이 확인됨
- (④ 인력) 전국과 경기도 모두 사서직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진접도서관은 4명 수준으로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원봉사자 수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238명임
 - 자원봉사자 수를 통해 지역사회의 높은 도서관 참여 의지를 보여주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 (⑤ 도서구입비)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도서자료 구입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자자료 구입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성이 전환되고 있음
 - 진접도서관의 도서자료 구입비는 전국 평균의 약 69% 수준으로 부족하며, 전자자료 구입비는 2023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전자자료 확충이 자체 예산이 아닌 공동구매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알 수 있음

- (⑥ 대출 이용자 수) 진접도서관은 대출 및 전자자료 이용은 낮은 반면, 어린이서비스 이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용 활성화와 대상별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 진접도서관의 대출이용자 수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자자료 이용자 수는 전국 평균의 7% 수준에 불과하여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반면, 어린이서비스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접읍의 지역 특성상 어린이 이용 수요가 높은 데 기인함
- (⑦ 프로그램) 전국과 경기도 모두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프로그램은 급격히 축소됨
 - 진접도서관은 코로나19 이전 이용자 교육을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운영하는 등 교육 서비스에 강점이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딤
- 공공도서관 관련 통계 분석 결과는 보편적 접근성 개선, 어린이 · 디지털 · 커뮤니티 공간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구체적인 공간 재구성 방향은 제4절 및 제3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공공도서관 공간 트렌드

- 공공도서관은 자료 보존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자율적 탐색과 능동적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형 · 연계형 공간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복합문화 기능, 공유 · 커뮤니티 공간, 연령 · 이용 목적별 세분화, 직관적 동선, 가변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활동 중심의 공간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1) 자료 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활동 중심으로의 전환

-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폐가식 서고 중심의 보존 지향적 구조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자료에 직접 접근하고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정강훈 외, 2006)
- 기존의 도서관이 도서의 저장과 관리에 방점을 두었다면,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자율적 탐색과 능동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용 부분과 자료이용 부분의 면적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됨(최정원 · 이승민, 2025)

- 공공도서관 법령상의 목적 또한 도서 수집 · 정리 · 보존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다가, 현행에서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1963년 도서관법 제정 당시 도서 수집 · 정리 · 보존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던 것에서, 현행 도서관법 제2조는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줌(최정원 · 이승민, 2025)
- 그리고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주요 목적은 대체로 교육, 정보, 문화의 세 축으로 수렴되며, 미국, 영국,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모두 이러한 방향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한화진 외, 2004)

(2) 개방성과 연계성 중심의 공간구성 변화

- 1999년 이후 건립된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각 기능 공간을 독립된 실로 분리하기보다 로비 또는 홀을 매개로 공간들을 시각적 ·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형 공간구성은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독립형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한화진 외, 2004)
- 이용자들은 시각적 개방감, 공간 간 연계성, 내부 가구 배치의 유연성 등에서 개방형 공간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한화진 외, 2004)
- 공간구성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면적 증가나 실 수의 확대가 아니라, 도서관 내부 동선과 공간 중심성의 재배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리딩테크, 내부 계단식 서가와 같은 새로운 공간 요소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최정원 · 이승민, 2025)
-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중심의 요소들이 이용자 접근성이나 사서 운영 동선과 충돌하는 경우, 오히려 공간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음(최정원 · 이승민, 2025)

(3) 복합문화기능 공간의 등장과 확대

- 현대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 열람 기능에 더하여 전시, 공연, 강연, 문화 프로그램 등을 수용하는 복합문화 공간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정강훈 외, 2006)
- 국외 사례에서는 이미 도서관이 미술관, 극장, 강당 등과 복합화된 미디어테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공간의 탈위계성과 연속성을 특징으로 함(정강훈 외, 2006)
- 공공도서관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도 기존 지침들은 자료 수집 · 보관 등 전통적 기능 공간에 치중되어 있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의 분류와 계획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지적됨(반자연 외, 2020)

- 문화활동 공간은 다목적 홀, 전시장, 중규모 회의실 등이 같은 구역에 집중 배치되어 복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서관 주 출입 동선과는 별도로 외부 접근 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운영 시간 외에도 독립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반자연 외, 2021)

(4)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의 강화

- 현대 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정보 공유, 교육 공유, 문화 공유의 세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 이용자들은 자료 열람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카페 · 휴게공간 등 문화 공유공간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황미영, 2019)
- 이에 도서관 내 공유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 및 문화 공유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필요함(황미영, 2019)
- 또한 북카페, 로비, 옥외 테라스 등의 커뮤니티 공간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층에 배치하는 것이 지역 주민 간 소통과 친목 활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임(반자연 외, 2021)
- 그리고 실내 중정이나 대형 로비 공간은 도서관 내부 공간 구성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대형 행사나 공간들 간의 시각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반자연 외, 2021)

(5) 연령별 · 이용 목적별 공간 세분화

-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전용 공간의 분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공간은 신체적 안전성, 보호자 동선, 감각적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요구됨(반자연 외, 2020)
- 그러나 많은 도서관에서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전용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그룹 활동과 개인 학습을 동시에 수용하는 가변적 설계가 결여되어 실제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최정원 · 이승민, 2025)
- 이용자 유형에 따른 공간 분화의 필요성은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도 뒷받침됨(김소연 · 임호균, 2025)
- 복합화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다목적 이용자, 도서 대여 중심 이용자, 생활 중심 이용자, 체류 중심 이용자로 분류되며, 각 유형은 연령 · 가구 규모 ·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 공간 수요를 보임
- 이는 단일한 공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함

(6) 이용자 동선의 직관성과 접근성 확보

- 공공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물의 외관이나 규모가 아니라 진입 동선의 명확성, 공간 간 연계성, 심리적 접근성으로 나타남(김혜림 외, 2017)
- 외부에서 도서관 입구로 접근하는 동선이 직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담장이나 주차장을 건물 전면에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이용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김혜림 외, 2017)
- 내부에서는 로비를 기점으로 엘리베이터, 계단, 주요 자료실 등 주요 시설이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공간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김혜림 외, 2017)

(7) 가변성과 유연성 중심의 공간 설계

-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공공도서관 공간은 고정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설계를 지향하고 있음(최정원 · 이승민, 2025)
- 이동식 가구, 폴딩 도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분리,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체험 · 창작 공간의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사례임(반자연 외, 2021)
- 다만 상당수 도서관에서는 예산과 정책상의 제약으로 고정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 시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최정원 · 이승민, 2025)

(8) 리모델링 시 운영 효율성 중심의 공간구성 필요성

- 최근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에서는 미적 디자인 요소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이용자 동선의 안전성, 사서 업무 흐름, 장기적 공간 확장성 등 운영 측면의 기본 조건과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남(최정원 · 이승민, 2025)
-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이용자 공간, 사서 공간, 서비스 공간의 세 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기능적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주체만을 중심에 두는 방식은 도서관의 주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최정원 · 이승민, 2025)
- 특히 어린이 공간의 상층부 배치, 경사형 서가와 계단식 좌석의 결합 등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일 수 있으나 이동 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리모델링 계획 단계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최정원 · 이승민, 2025)

3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화 추세

-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요구 변화 속에서 복합문화공간이자 생활 SOC로 기능이 확대되면서, 단순 자료 이용 시설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다목적 이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 생활 기반 공공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하여 복합문화공간이자 생활 SOC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다목적 이용 행태와 사회적 자본 형성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반영한 공간 및 서비스 재구성이 요구됨
-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이 더 이상 단순한 자료 이용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 기반을 구성하는 복합 공공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1) 도서관 기능의 다원화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한 자료 보존 및 제공 기능을 넘어 교육, 문화, 여가, 생활 편의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옴 (김혜림 외, 2017)
- 현대의 도서관 이용 양상을 보면 도서 대출이나 열람과 같은 전통적 활동뿐만 아니라 전시 관람, 문화 강좌 참여, 여가 활용 등 복합적인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류태현 외, 2013)
-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료열람 공간과 서재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도서관 안으로 흡수되면서 공간 구성 자체가 복합적으로 재편되고 있음(류태현 외, 2013)
- 또한 도서관 이용자는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요구 변화 속에서 정보 수혜자에서 다양한 사회 · 정보 활동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다목적 이용 행태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허브이자 개방적 물리 공간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이용자는 과거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던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 정보적 활동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함
- 이에 따라 도서관 공간 역시 이러한 변화된 이용 행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김혜림 외, 2017)
- 역사적 흐름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독서와 공교육 중심의 시기를 거쳐 시민 참여와 지역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지역사회의 허브이자 개방적 물리 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음(반자연 외, 2021)

-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복합화 공공도서관 방문객의 약 34.7%가 단일 목적이 아닌 다목적 이용자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도서 대출이나 학습이라는 기존 목적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음을 보여줌(김소연 · 임호균, 2025)

(2) 생활 SOC로서의 공공도서관 기능

-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밀접하게 지원하는 생활 SOC 시설로서, ① 기초 공교육부터 디지털 기술 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 기능, ② 공연 · 전시 ·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활동 기능, ③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함(반자연 외, 2021)
- 실제 공간 구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은 어린이자료실 · 메이커스페이스(교육), 다목적실 · 공연장 · 전시장(문화), 로비 · 북카페 · 옥외공간(커뮤니티)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음(반자연 외, 2021)
- 이용자 방문 목적 조사에서도 이용자들은 단순 자료 이용을 넘어 생활 서비스 전반을 도서관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김소연 · 임호균, 2025)
- 복합화 공공도서관 방문 이유로 '여러 업무 처리가 가능함'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공공도서관은 학습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카페 · 상점 등과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를 수용하는 개방적 · 가변적 공간 구성을 통해 공간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습 전용 공간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카페 · 상점 등 상업시설과 결합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김혜림 외, 2017)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도서관이 진정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공간 구성이 필요하며, 개방성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때 비로소 공간적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음(김혜림 외, 2017)
- 국내 공공도서관은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복합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시설 · 공용청사 등과의 결합을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의 거점이자 예산 효율성과 이용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공간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국내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복합화 도서관이 8개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약 6배인 50개관으로 증가함(류태현 외, 2013)
- 이는 2006년 도서관법 개정과 2009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 등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도서관이 단순 자료 보존 기관에서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그 역할을 확장해온 흐름을 반영함(류태현 외, 2013)
- 복합화 유형 분석 결과, 문화시설과의 복합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용 청사와의 복합이 19.8%를 차지하여 도서관이 지역 공공서비스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류태현 외, 2013)
- 복합화는 예산 효율성과 이용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복합화된 도서관의 연간 방문자 수와 도서 대출 건수가 단독 건물 도서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김소연 · 임호균, 2025)

(3) 사회적 자본 형성 거점으로서의 역할

- 공공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 자본의 발생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주민들이 격식 없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 서비스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지역 사회통합의 주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반자연 외, 2021)
- 또한 육아, 학습, 취미 등 주민의 다양한 일상적 요구에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이용을 통해 유지되는 상호작용적 공간이 되기도 함(반자연 외, 2021)
- 공공도서관은 책을 대여하는 기능 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자원 접근, 무료 서비스 제공 등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공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짐(김소연 · 임호균, 2025)
-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을 정보 획득을 넘어 문화 경험, 사회적 소통, 개인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구특성에 따라 다목적 · 학습 · 생활 · 체류 중심 등 다양한 이용 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접근 편의성과 실용적 공간 구성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공간 · 프로그램 전략이 요구됨
-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취득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얻고 타인과 소통하며 개인적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것임(반자연 외, 2021)
- 실증 연구에 따르면 복합화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다목적 이용자, 도서 대여 중심 이용자,

생활 중심 이용자, 체류 중심 이용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연령 · 가구 규모 ·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보임(김소연 · 임호균, 2025)

-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다목적 이용 비율이 높고, 4인 가구는 학습 중심, 5인 이상 가구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함(김소연 · 임호균, 2025)
-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도서관의 물리적 규모나 외관보다는 접근 편의성,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 다양한 휴식 및 활동 지원 등 실용적 공간 구성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혜림 외, 2017)

제2절 공공도서관 이용자 특성 및 확장 전략

1 공공도서관 이용자 유형 및 행태

1) 공공도서관 이용자 유형 및 행태 관련 선행 연구

-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구는 시설 · 공간 중심 분석에서 출발해, 연령 · 집단별 특성과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이용행태 · 만족도 및 심리 · 사회적 효과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이용자 세분화 연구로 발전해 옴
 -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구는 초기에는 시설과 공간 중심 분석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연령대별 특성과 디지털 전환, 이용행태와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 변수로 확장되어 옴(김세영, 2013; 송동훈, 2019; 정미옥, 2025)
 - 최근 연구들은 이용자를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외국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의 이용 동기와 행태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신경희, 2019; 황윤정 외, 2023; 이정화, 2020; 최동민, 2025)
 - 또한 이용자의 공간 이용 방식뿐 아니라 도서관 인식, 만족도, 재이용 의도, 행복감 등 심리 · 사회적 효과까지 함께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이정화, 2020; 정유라 · 이지연, 2017; 황미영, 2019; 박성재, 2019)

(1) 공공도서관 유형별 이용자 관련 선행연구

- 어린이 이용자 관련 선행연구는 어린이자료실에서의 이용행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연령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와 공간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함(신경희, 2019)
 - 어린이자료실을 단순한 열람 공간이 아니라, 놀이 · 학습 · 체험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함
- 청소년 이용자 연구는 청소년 전용공간의 환경계획 요소가 만족도와 이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을 별도의 환경적 요구를 가진 이용자 집단으로 규정함(황윤정 외, 2023)
 - 이를 통해 청소년 공간은 소음 허용 범위, 그룹활동 가능성, 자기주도 학습 지원 등에서 성인 열람실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남(황윤정 외, 2023)

- 중장년층 이용자 관련 선행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이용 만족도와 지속 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함(정미옥, 2025)
 - 기술 도입 자체보다 디지털 소통 환경, 온라인 ·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이 신뢰와 만족을 통해 장기적인 이용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함
- 노인 이용자 관련 선행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행태가 노인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서관이 노년기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생활 기반 공간임을 보여줌(이정화, 2020)
 - 프로그램 참여, 방문 빈도, 자료 이용 정도 등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함
- 외국인 이용자 연구는 대출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 이용자의 장서 이용행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료 선택 패턴이 국내 이용자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최동민, 2025)
 - 연구 결과는 특정 주제 분야와 언어 자료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다문화 · 다언어 장서 구성과 안내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함

(2) 이용행태의 주요 특성

- 공공도서관 이용행태 연구에서는 공간구성, 동선, 좌석 배치, 자료실 배치 등 물리적 환경이 실제 이용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송동훈, 2019; 박성재, 2019)
-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용행태와 공간구성을 함께 평가하여, 이용자 인식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공간 효율성과 순환체계를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송동훈, 2019)
- 스마트폰 무선신호를 활용한 연구는 출입 · 체류 · 이동 패턴을 실측해, 설문 중심 연구보다 실제 공간 이용 밀도와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줌(박성재, 2019)
 - 특정 시간대와 특정 공간에서의 밀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좌석 재배치나 동선 개선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도서관 공유공간에 대한 연구는 이용패턴과 만족도를 분석하여, 공유공간이 단순한 통과 공간이 아니라 체류 · 교류 · 휴식이 집중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도출함(황미영, 2019)
 - 이 연구는 공유공간의 가구 배치, 개방감, 소음 수준 등이 이용자의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함(황미영, 2019)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인구 구성, 생활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방향과 이용행태가 달라지며,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운영 전략과 서비스 구성에 직접적

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시함(장혜란, 2013)

- 이 연구는 지역별 수요와 인구 구조를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장혜란, 2013)

(3) 공간 · 프로그램과 이용행태의 관계

- 여러 선행연구는 이용행태를 개인의 선호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공간 조건과 운영 프로그램이 결합된 결과로 도출함(송동훈, 2019; 김세영, 2013; 황미영, 2019)
- 공간성과 공공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복합 프로그램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용하는 구조로 계획될 때, 이용자 간 교류와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제시함(김세영, 2013)
- 공공도서관 복합화 연구는 도서관이 문화 · 복지 · 공공서비스 시설과 결합될 때, 이용자의 방문 동기와 체류 방식이 변하며, 공간 활용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함(류태현 외, 2013; 류태현 외, 2014)
- 이들 연구는 복합화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동선, 체류시간, 시설 간 이동 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석하며, 복합 프로그램 구성이 이용행태 계획의 변수임을 제시함
- 테마전시에 관한 연구는 전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도서관 인식과 이용행태가 변화하며, 전시 경험이 도서관을 ‘책만 빌리는 곳’에서 ‘문화 경험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함(정유라 · 이지연, 2017)
- 이 연구는 테마전시 이후 이용자의 방문 빈도와 자료 탐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경험이 장기적인 이용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2) 이용자 유형·행태 논의 종합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이용자 유형 연구는 연령, 국적, 디지털 역량 등 이용자 특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흐름을 보이며, 각 집단별로 상이한 이용행태와 서비스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줌(신경희, 2019; 황윤정 외, 2023; 이정화, 2020; 최동민, 2025)
- 이용행태 연구는 주로 자료 이용, 체류 · 이동, 프로그램 참여, 만족, 재이용 의도 등 관찰 가능한 행동과 주관적 인식을 함께 다루며, 물리적 환경과 운영 전략이 이를 매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함(송동훈, 2019; 황미영, 2019; 박성재, 2019)
-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 연구와 계획에서는 이용자 유형별 차이를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디지털 환경과 연계해 설명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김세영, 2013; 송동훈, 2019; 정미옥, 2025; 황윤정 외, 2023)

- 특히 중장년층 · 노인처럼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격차의 영향이 큰 집단, 그리고 아동 · 청소년처럼 공간 경험과 환경계획 요소에 민감한 집단을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정책 · 설계 · 운영 전략 수립에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남(신경희, 2019; 정미옥, 2025; 이정화, 2020; 황운정 외, 2023)

2 이용자 확장의 필요성 및 접근 방법

1) 이용자 확장 관련 선행연구

- 검토된 선행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 이용자 범위 확장 필요 → 공간 · 프로그램 · 기술 측면의 접근 전략"이라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여줌
-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확장 관련 선행연구를 ① 이용자 확장의 필요성, ② 공간구조 · 기능 변화에 따른 확장 전략, ③ 이용행태 기반 세분화 전략, ④ 디지털 · AI 기술을 활용한 미이용자 접근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함

(1) 이용자 확장의 필요성

- 공공도서관은 역할 확대와 정책 변화에 따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저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공간 · 동선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은 1관당 인구수 · 1인당 장서수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물리적 · 자료적 인프라 확충 없이는 이용자 확대가 어려움(한화진 외, 2004)
- 정보화 ·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는 공공도서관에 평생학습 · 문화복지 · 여가를 종합 지원하는 생활 SOC형 문화기반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대상 이용계층의 확대를 전제로 함(한화진 외, 2004)
- 송동훈(2019)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거치며 공공도서관의 정책 목표가 기존 학습 중심 이용자에서 다양한 연령 · 계층 · 목적을 가진 주민 전체로 이용자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분석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확장을 고려한 공간 · 동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송동훈, 2019)

(2) 공간구성 변화에 따른 이용자 확장 전략

- 한화진 외(2004)는 공공도서관이 교육 · 정보 · 문화를 통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할

때 다양한 이용자층을 포섭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님스 미디어테크 · 센다이 미디어테크 등 해외 복합문화센터 사례를 이용자 확장의 대표적 공간전략으로 제시함(한화진 외, 2004)

- 정강훈 외(2006)는 다양한 기능이 연속적으로 경험되도록 하는 '연속 흐름(continuous flow)'과 '복합 · 결합 섹션(multiplex, combined sections)' 구성이 교차 이용을 유도해 이용자 저변을 넓힌다고 주장함(정강훈 외, 2006)
- 한화진 외(2004)는 이용자공간을 독립형(A) · 로비 분산형(B) · 오픈형(C)으로 유형화하고, Type B · C가 시각적 개방감과 타실 연계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함
- 다만 분산형 · 오픈형이 프라이버시 · 동선 관리가 미흡할 경우 특정 이용자층을 배제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층에는 접근성이 높은 교육 · 정보 기능을 배치하고 로비를 매개로 문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한화진 외, 2004)
- 공용공간의 확대는 도서관을 '제3의 장소'로 전환시켜 비이용자 · 경험자 집단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기능하며, 휴게 · 라운지 · 체험 공간 등 중간 영역이 부족할수록 장기적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이용자 확장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됨(한화진 외, 2004; 송동훈, 2019)

(3) 이용행태 · 행동장면 기반 이용자 확장 전략

- 행동장면 분석에 기반한 공간 세분화와 유연한 운영 정책이 다층적 이용자 집단을 포섭하는 전략임을 선행연구들은 제시함
- 천혜선 외(2008)는 행동장면(behavior setting) 분석을 통해 이용자 유형을 분류하고, 각 그룹의 좌석 선호 · 행동 특성 · 영역(Zone)을 분석함
- 도서관이 특정 학습형 이용자에 최적화될수록 다른 유형의 이용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룹존 · 개인존 · 휴식존 등 세분화된 공간 구성을 통해 다층적 이용자 집단을 포섭해야 함을 강조함(천혜선 외, 2008)
- 또한 '너무 조용하고 경직된' 열람 환경이 일부 이용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좌석 배치 · 시선 차단 · 소음 허용 범위 등을 조정하여 다양한 이용 스타일을 수용하는 공간 정책이 이용자 확장의 중요한 접근 방법임을 제안함(천혜선 외, 2008)

(4) 디지털 · AI 기반 이용자 확장 및 비이용자 접근 전략

- 디지털 · AI 기반 이용자 확장은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 · 동선 · 인터페이스의 통합 설계와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갖출 때 실질적인 이용자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한화진 외(2004)와 정강훈 외(2006)는 비도서 자료실 도입 · 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

CMC 기능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새로운 이용자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된다고 보았으며, 송동훈(2019)은 공간 · 동선 · 인터페이스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기술 도입이 곧바로 이용자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제시함(한화진 외, 2004; 정강훈 외, 2006; 송동훈, 2019)

- 김규환 · 정도현(2023)은 AI 카메라를 활용해 이용자의 성별 · 연령 · 동선 · 공간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K-평균 군집분석으로 5개 이용자 군집을 도출함
- 각 군집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 공간 재배치 · 운영시간 조정 전략을 수립하는 데 AI 분석이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되,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김규환 · 정도현, 2023)

2) 이용자 확장 개념과 접근 방향

-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이용자 확장의 필요성은 ① 국제 비교에서 드러나는 인프라 열세, ② 평생학습 · 문화복지 · 디지털 정보권 보장 등 사회적 역할의 확장, ③ 실제 이용행태와 요구 간의 괴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됨(한화진 외, 2004; 정강훈 외, 2006; 송동훈, 2019; 천혜선 외, 2008; 김규환 · 정도현, 2023)
- 접근 방법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데, ① 교육 · 정보 · 문화를 복합한 커뮤니티 · 문화센터형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 ② 로비 분산형 · 오픈형 공간구성과 공용공간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 ③ 행동장면 · 이용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단위공간과 좌석을 다양화하는 것, ④ 디지털 ·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 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 · 운영을 설계하는 것임(한화진 외, 2004; 정강훈 외, 2006; 천혜선 외, 2008; 송동훈, 2019; 김규환 · 정도현, 2023)
-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용자 확장"을 단순한 인원 증가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양식과 이용 목적을 수용하는 공간 · 서비스의 확장'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공간전략 · 행태 기반 세분화 · 디지털 · AI 통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용자 유입 전략

1)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용자 유입 전략 관련 선행연구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용자 유입 전략과 관련해, 검토된 선행연구들은 "이용자 · 비이용자 인식 진단 →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콘텐츠 · 프로그램 고도화 → 특정 계층 맞춤 전략"이라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여줌
-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① 지역사회 인식조사 기반의 전략 수립, ② 생활권 · 공간 전략을 통한 유입 확대, ③ 장서 · 서비스 전략과 유입 동선, ④ 프로그램 · 커뮤니티 전략, ⑤ 공공성 · 커뮤니티 의식을 매개로 한 유입 메커니즘, ⑥ 고령층 대상 지역 연계 전략, ⑦ 중장년층 디지털 전환과 지속 이용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함

(1) 지역사회 인식조사 기반의 전략 수립

- 이용자 · 비이용자 설문을 통해 도서관의 강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도서관 발전전략에 직접 연계함
- 차성종 · 권선영(2025)은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운영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뒤, 대규모 이용자 · 비이용자 설문을 통해 도서관 이미지, 이용행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발전전략과 연계함(차성종 · 권선영, 2025)
- 봉사대상인구 대비 방문자 비율, 1관당 방문자 수 등 유입 성과 지표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지역사회 연계가 약한 지점을 진단하였으며, 도서관을 평생교육 · 문화활동 ·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차성종 · 권선영, 2025)
- 응답자들은 "정보취약계층 지원"과 "사회통합"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향후 지역사회 연계형 서비스 보완 과제로 제시됨(차성종 · 권선영, 2025)

(2) 생활권 · 공간 전략을 통한 유입 확대

- 생활권 단위 도서관망 재설계와 접근성 개선으로 도서관의 방문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차성종 · 권선영(2025)은 신도시 개발, 인구 급증, 도농복합 구조로 인한 생활권별 도서관 접근성 격차를 지적하며, '걸어서 10분 거리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지향하는 생활권 단위 도서관망 재설계와 추가 6개관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제안함(차성종 · 권선영, 2025)
 - 이용자들은 주차공간, 편리한 교통 접근성, 편안한 열람공간을 가장 중요한 공간 요구로 꼽았으며, 이는 자차 이용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도시 시민의 생활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따라서 도서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차 · 대중교통 · 보행 접근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방문 장벽 제거 전략으로 강조됨

(3) 장서 · 서비스 전략과 유입 동선

- 장서 확충과 운영시간 다변화로 도서관 이용자가 찾아올 실질적 이유를 도출함
- 차성종 · 권선영(2025)에 따르면 사례도시는 1관당 장서수와 1인당 장서수가 경기도 내 하위 권임에도 대출권수는 중상위권으로 나타나 장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도시로 평가됨(차성종 · 권선영, 2025)
 - 장서 부족이 불만족 1순위인 점을 고려해, 신간 중심 장서 확충과 자료구입비 증액을 통해 "찾아올 이유가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이용자 유입에 중요한 요소로 제시됨
- 이용자 서비스 요구에서는 최신자료의 신속한 제공,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 편리한 운영 시간, 교통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 콘텐츠와 이용환경이 결합될 때 유입 효과가 극대화됨을 보여줌
- 비이용자는 '거리가 멀다', '시간이 없다'를 주된 이유로 응답하여, 근거리 거점 확충과 야간 · 주말 운영시간 다변화가 구체적 유입 전략으로 제안됨(차성종 · 권선영, 2025)

(4) 프로그램 · 커뮤니티 전략

- 타깃별 맞춤 프로그램과 홍보 개선으로 도서관 비이용자의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차성종 · 권선영(2025)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의 주 목적은 '도서 대출 및 독서'가 압도적이나, 응답자들은 독서활동 지원 · 문화체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우선 강화 영역으로 인식함(차성종 · 권선영, 2025)
 - 만족도는 프로그램 수준 · 구성에서는 높지만 홍보와 이용자 요구 반영 정도는 낮게 평가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 · 홍보 방식 개선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
- 비이용자는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로 '시간 부족',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 '관심 주제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여, 직장인 · 다양한 연령을 겨냥한 시간대 분산 편성과 타깃형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을 제안함(차성종 · 권선영, 2025)
 - 특히 정보취약계층 · 청소년 · 어린이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 생활 SOC이자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략이 강조됨

(5) 공공성 · 커뮤니티 의식을 매개로 한 유입 메커니즘

- 공공성 높은 도서관 공간이 주거환경 만족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 재방문과 지역 애착을 유도함
- 변기동 · 하미경(2023)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공성 관점 만족이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는 구조적 관계를 제시함(변기동 · 하미경, 2023)
 - 공공도서관 만족이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 긍정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주거환경 만족을 매개로 간접 영향도 갖는다는 점에서, 도서관 경험이 지역사회 소속감 · 교류 증대의 기반이 됨을 보여줌
- 접근성 · 개방성 · 쾌적성 · 장소성 · 지속가능성 등 공공성 요소가 잘 구현된 도서관일수록 지역 주민의 인식과 활동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강조하며, 공간 · 서비스 디자인 단계에서 "지역주민이 머무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공성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서관 재방문과 지역 애착을 높이는 이용자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변기동 · 하미경, 2023)

(6) 고령층 대상 지역 연계 전략

- 고령자의 행복 ·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는 프로그램 · 이용교육으로 도서관을 노인 친화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하게 함
- 이정화(2020)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가 행복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관계 · 정서 안정 · 일 · 역할 영역에서 효과가 두드러짐을 확인함(이정화, 2020)
 - 도서관 이용 정도와 이용기법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고령층에게 도서관이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연구는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 이용교육 · 생활 SOC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노인의 행복감과 지역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적 이용자 유입 ·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지역 복지 · 보건 · 노인 일자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노인 친화 커뮤니티 거점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함(이정화, 2020)

(7) 중장년층 디지털 전환과 지속 이용 전략

- 기술 도입보다 신뢰 기반의 사용자 경험과 디지털 교육 지원이 중장년층의 도서관 지속 이용을 이끔
- 정미옥(2025)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인식이 도서관 이용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함(정미옥, 2025)
 - 분석 결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 · 온라인 · 모바일 서비스 · 데이터 기반 운영 인식은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기술 채택 자체는 지속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단순한 신기술 도입보다 사용자 경험 · 신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중장년층 유입 · 유지에 더 중요함을 보여주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교육 프로그램 · 모바일 기반 소통 채널 ·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장기 이용자 확보의 연계 전략으로 제시됨(정미옥, 2025)

2) 지역사회 연계 유입 전략 방향

- 검토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용자 유입 전략은 다음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 · 네트워크 재편으로, 생활권 단위 도서관망 설계와 접근성 격차 해소 등 물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 구조에 따라 대상 집단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도서관을 단순 정보기관이 아니라 주거환경 만족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생활 SOC로 규정하고, 노인 · 중장년층의 행복 및 삶의 만족과 연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 셋째, 이용 행태 · 비용 이유 · 프로그램 요구를 파악해 장서정책 · 프로그램 · 공간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디지털 서비스 확장은 필수이나 기술 중심이 아닌 사용자 경험 · 신뢰 · 조직문화 중심으로 설계할 때 지속 이용 의도가 높아지며, 고령층 ·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이용자층을 유입하는 계기가 됨
- 다섯째, 독서 · 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 높은 도서관이 주거환경 만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제3절 공공도서관 공간 계획의 주요 요소

1 복합문화시설 공간구성

1) 복합문화시설 공간구성 관련 선행연구

- 검토된 선행연구들은 "공공도서관의 기능 다변화 → 복합문화시설로의 전환 요구 → 공유공간 · 결절점 중심의 통합적 공간구성 전략 필요"라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여줌
- 본 연구에서는 복합문화시설 공간구성 관련 선행연구를 ① 공공도서관 기능 변화와 공간 재구성, ②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요소 분석, ③ 복합화 유형별 공간 특성, ④ 이용행태 · 성능평가, ⑤ 공유 · 커먼즈 개념 기반 공간 이해, ⑥ 공간 특성과 이용자 만족 ·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리함

(1) 공공도서관 기능 변화와 공간 재구성

- 공공도서관은 2000년을 전후로 설치 수가 급증하면서 양적 확대와 더불어 기능 재정립 및 공간 재구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2000년 이전에는 입시 중심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자습 기능이 중심이었고, 폐가식 서고와 목록실이 주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후에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 디지털 정보 제공 ·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강조되면서 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자 문화 · 교육 거점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됨(조우리 · 최춘웅, 2016)
- 이러한 기능 변화에 대응해 개가식 서가 · 디지털열람실 · 문화교육실은 신설 · 확대되고, 폐가 서고 · 목록실은 축소 · 소멸되는 공간구성 변화가 나타남(조우리 · 최춘웅, 2016)
 - 특히 어린이실 · 장애인열람실 · 정기간행물실 등은 독립 실에서 개방형 개가식 열람공간과 통합 · 연계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는 이용자 동선과 공간 위계의 전면적 재편을 수반함

(2)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요소 분석

- 조우리 · 최춘웅(2016)은 공공도서관의 기능 변화를 분석하는 축으로 소요시설 · 면적 구성 · 공간배치 · 동선을 제시하고,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 · 이후에 건립된 도서관을 규모별로 비교 분석함(조우리 · 최춘웅, 2016)
 - 신축관에서는 개방형 자료실과 다양한 문화 · 교육 공간의 비중이 커지면서 복수 기능을 한 평면에

통합 · 배치하고 통합 동선을 구성하는 경향이 도출됨

- 반면 기존관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면서도 구조 · 면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공간에서 기능이 중첩되거나 보조공간과 문화공간이 제한적으로 확보되는 한계가 지적됨
- 이는 리모델링 계획 시 공간 위계와 기능 배분에 대한 선제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3)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과 이용행태 · 성능평가

- 송동훈(2019)은 경북 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ANOVA · ABQET를 활용해 공간 인식 · 사용성 · 지역사회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송동훈, 2019)
- 조사 대상 도서관들은 공간 인지도와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 공공도서관이 단순 열람시설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줌
- 신축관과 증 · 개축관 간에는 초기 설계 전략 수립 여부에 따라 동선 효율 · 공간 활용도 · 이용자 장기 참여 유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복합문화시설화 과정에서 계획 초기의 공간 시나리오 설정이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디지털 자료실과 문화 프로그램 공간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경우 이용자 편의성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함

(4) 공유 · 커먼즈 개념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 이해

- 황미영(2019)은 도서관 공유공간(communs)을 이용자 활동이 집약되는 다자간 공유 · 소통의 장으로 규정하고, 국내 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IC(정보공유), EC(교육공유), CC(문화공유)로 구성된 코어 공간군의 구성과 이용 패턴, 만족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다섯 도서관 모두에서 IC 영역이 자료 열람 · 개인학습 · 교육 · 문화 활동을 연계하는 공유 활동 허브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남(황미영, 2019)
- 대부분의 사례에서 IC(정보공유)와 EC(교육공유) · CC(문화공유)가 통합된 평면 구성으로 나타났으며, 공용 공유공간의 구성과 운영이 이용 만족 및 재방문 · 추천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복합문화시설 설계에서 커먼즈 공간의 전략적 배치 필요성을 뒷받침함(황미영, 2019)

(5) 공간 특성과 이용자 만족 · 공공성

- 김혜림 외(2017)는 지역 공공도서관 5개관을 대상으로 공간 특성이 이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김혜림 외, 2017)

- 접근성 · 출입구 인지 및 동선 명료성 · 실내외 휴게공간 구성 · 동선 단순성 · 실내외 공간의 연결성이 공간 특성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이 전반적 만족과 공공성 인식에 밀접하게 연결됨을 확인함
- 특히 휴게공간의 구성과 쾌적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건물 외피의 투명성 · 진입부 강조 · 옥외 휴게공간 · 공용 공간 비율 등 물리적 공공 접근성 지표가 높을수록 개방감과 공공성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복합문화시설형 도서관에서 공적 접근성 · 개방성 · 휴게 ·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 공간구성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2) 복합문화시설의 방향성

-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공공도서관은 자료 중심 시설에서 이용자 중심 · 공유문화 기반의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가식 자료실 · 디지털열람실 · 문화교육실 · 커먼즈 · 야외 공공공간이 주요 공간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됨(조우리 · 최춘웅, 2016; 류태현 외, 2013; 황미영, 2019)
-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을 계획할 때는 기능 간 단순 병치가 아닌, IC(정보공유)-EC(교육공유)-CC(문화공유)를 연결하는 공유 동선과 허브 공간, 공용 로비 · 홀 · 야외광장과 같은 결절점 공공공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됨(류태현 외, 2013; 황미영, 2019; 김혜림 외, 2017; 송동훈, 2019)
- 또한 공간구성 · 동선 · 공공 접근성 ·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의 질은 이용행태와 만족도,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수행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성능 기반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통 결론에 이름(김혜림 외, 2017; 송동훈, 2019; 황미영, 2019)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략

1)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

- 유니버설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 여부나 문화 · 언어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의 환경과 서비스를 함께 쓰도록 설계하려는 포괄적 접근임(김은정, 2021; 김지수 외, 2025; 고영선, 2019; 전용석, 2015)

- 공공도서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통로나 출입구 같은 물리적 요소를 넘어서 서비스, 가구, 디지털 장비까지 포함하여 이용자 경험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설계 원리로 작용함(김은정, 2021; 장화 · 김민경, 2024; 이규일, 2019)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은 1980년대 Ronald Mace가 “특별한 보조시설 없이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짐(김지수 외, 2025)
- 이 접근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용자를 전제로 차별을 줄이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보조공학과 구별됨(김지수 외, 2025)
- 스마트도서관 · 자가대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정보를 알아보기 쉽고, 조작 절차를 따라가기 수월하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계 개념으로 정의함(김지수 외, 2025)
-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어린이의 발달 단계와 신체 치수, 행동 특성을 반영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환경 설계의 기준으로 정의함(고영선, 2019)
- 무장애 환경 평가 선행연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성 · 동선 · 안내체계 · 설비 치수 등 도서관 전체 공간에서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는 규범적 틀’로 정의함(전용석, 2015)

(2) 유니버설디자인의 7대 원칙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은 공평한 이용(Equitable Use), 융통성 있는 이용(Flexibility in Use),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 인지가능한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적은 신체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 · 사용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이 있음
- 공평한 이용(Equitable Use)은 장애 유무나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원칙으로, 특정 집단만을 위한 별도 단말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인터페이스를 지향함(김지수 외, 2025)
- 융통성 있는 이용(Flexibility in Use)은 연령, 신체 능력, 선호도가 다른 이용자가 여러 방식으로 같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으로 이해됨(김지수 외, 2025)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은 사용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절차를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단계 구성과 안내 방식을 단순화하는 방향을 말함(김지수 외, 2025)

- 인지가능한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는 시각·청각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 정보를 전달하고, 글자 크기나 색 대비, 아이콘 사용을 통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김지수 외, 2025)
-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은 사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전제로, 이를 치명적인 문제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인 절차와 되돌리기 기능 등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됨(김지수 외, 2025)
- 적은 신체적 노력(Low Physical Effort)은 조작 시 과도한 힘이나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는 설계를 목표로 함(김지수 외, 2025)
- 접근·사용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은 휠체어, 유모차, 동반 보호자 등 다양한 상태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됨(김지수 외, 2025; 전용석, 2015)

(3)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Barrier-free)의 관계

- 국내 공공도서관 관련 선행연구에서 무장애(Barrier-free) 개념은 대체로 경사로, 출입구 폭, 엘리베이터·화장실 설치, 서가 간격처럼 건축·설비 차원의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전용석, 2015)
- 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러한 물리적 기준에 더해 정보 접근, 심리적 부담, 서비스 운영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틀의 개념으로 설명됨(전용석, 2015; 김은정, 2021)
- 무장애 환경 평가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재검토한 선행연구는, 기존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쓰기보다 이용자의 실제 체험을 반영하여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전용석, 2015)
- 또한 법적·기술적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결국 ‘이용 경험 기반 평가 틀’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장화·김민경, 2024)
- 그러므로 도서관 등 공용공간 연구에서는 최소 법규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각기 다른 이용자 집단의 움직임과 사용 패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질적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제안함(이규일, 2019)

(4) 도서관 공간 · 가구 설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핵심 요소

- 선행연구 중 김은정(2021)의 연구에서는 도서관 공간 · 가구 설계를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의 핵심 요소를 접근성, 다양성, 유연성, 직관성, 기능성, 지원성 여섯 가지로 정리함(김은정, 2021)
 -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위치 · 동선 · 정보 접근성까지 포함하며, 특히 통로 폭, 출입구, 안내 사인, 층간 이동 수단 등이 주요 항목으로 제시됨(김은정, 2021)
 - 다양성은 연령 · 신체조건 · 활동유형(열람, 학습, 휴식, 소통 등)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공간과 가구 구성을 의미하며, 특히 어린이 · 청소년 · 어르신 공간의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함(김은정, 2021; 고영선, 2019)
 - 유연성은 이동식 가구, 모듈형 파티션, 다양한 앉기 방식(소파, 개인석, 그룹석 등)을 통해 프로그램 · 이용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구성을 지향함(김은정, 2021)
 - 직관성은 이용자가 별도의 안내 없이도 공간과 가구의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형태 · 배치 · 사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김은정, 2021)
 - 기능성과 지원성은 각 공간의 목적에 맞는 조명, 음향, 수납, 전원 · 네트워크, 보조기기 등을 통해 이용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사용성 ·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됨(김은정, 2021)

(5) 공공도서관 사례에서 나타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

- 공용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연구에서는 로비, 계단 ·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복도, 휴게공간 등 비자료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수준이 이용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보고, 향후 리모델링 시 공용공간 비중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 지향 설계를 제안함(이규일, 2019)
- 또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미끄러움, 눈부심, 정보 인지 어려움, 동선 혼잡 등 다양한 불편이 발견되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 체감 수준의 품질 관리 필요성으로 해석됨(이규일, 2019)
- 그리고 공용공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동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를 위한 안전 · 편안함의 기반으로 규정되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이규일, 2019; 전용석, 2015)
- 전용석은 전국 공공도서관의 무장애 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출입구 · 통로 · 화장실 · 열람실 · 각종 설비의 치수와 설치 상태, 접근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평가함(전용석, 2015)

- 연구는 기준의 존재보다 실제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예를 들어 기준 폭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는 가구 배치나 물품 적재로 인해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한 사례를 다수 제시함(전용석, 2015)
- 어린이실 연구에서는 서가 높이 · 책상 · 의자 치수, 안전 모서리 처리, 시야 확보, 보호자 동반 공간 등을 포함한 세부 치수 · 환경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 공간 및 신체적 노력 최소화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로 봄(고영선, 2019)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차별금지 · 장애인 편의 중심의 Barrier-Free에서 출발하여, 2000년대 이후 공용공간 치수 점검, 열람실 · 전용실 · 서비스 보편성 지표 개발, 2020년대 이용자 유형 · 고령자 경험 기반의 통합적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로 점차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어 왔음이 확인됨
- 최근 연구일수록 고령자 · 어린이 · 다양한 이용자의 경험과 선호를 전면에 놓고,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사용자 경험 기반 설계 원리로 재해석하면서 동선 단순화 · 모듈형 가구 · 직관적 사인 · 휴게공간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남
- 이는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서 공용공간 · 열람실 · 어린이실 · 휴게공간 전반에 걸쳐 최소 기준 충족을 넘어, 이용자 유형별 경험을 반영한 통합적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함

제4절 시사점

-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면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시 ① 이용자 다양성을 전제한 공간 계획, ② 이용자 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③ 복합문화시설화에 부응하는 기능 확장, ④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용자 기반 확대, ⑤ 유니버설디자인의 통합적 적용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음

① 이용자 다양성을 전제한 공간 계획

- 공공도서관 이용자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용자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이용 방식이 복합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 진접도서관 역시 영유아 · 아동, 초등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년, 노년의 6개 연령층이 서로 다른 이용 목적과 공간 요구를 가지며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적 이용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이용자를 단일한 열람 공간에 수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유형별 공간 요구를 반영한 기능 분화와 조닝 계획이 리모델링의 전제가 되어야 함

② 이용자 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형 공간 전환

- 자료 열람과 대출 중심의 이용행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학습 · 휴식 · 교류 · 디지털 활용 등 다목적 체류 방문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가 · 열람석 위주 공간 구성을 개방형 서가, 다양한 좌석 유형, 이동 동선의 체류공간화를 통해 재구성하는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진접도서관의 3층 디지털자료실 · 노트북실 · 열람실 통합 재구성은 이러한 공간 전환의 대상임

③ 복합문화시설화에 부응하는 기능 확장

- 공공도서관이 자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체험, 평생학습, 커뮤니티 활동을 통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에서는 1층 어린이 · 가족 허브층, 2층 복합문화공간, 4층 프로그램 ·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층별 기능 재편이 이 흐름에 부응하는 구체적 실행 방향이 됨

④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이용자 기반 확대

- 도서관 내부 공간 개선만으로는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도서관을 사회적 인프라로 접근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학교 · 복지관 · 문화시설 ·

주민자치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이용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만족도가 주거환경 만족과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도서관이 지역 생활 인프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계됨을 실증함

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유니버설디자인은 물리적 공간 접근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 안내체계 ·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단차 제거 · 낮은 카운터 병행 · 주동선 폭 확보 · 촉지 안내판 설치 등 기준을 설계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리모델링 이후에도 정기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체계를 운영할 것이 권장됨

03

진접도서관 공간 및 이용자 분석

제1절 진접도서관 현황 및 이용 동향

1 진접읍 인구 규모 및 구조

- 공공도서관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해 진접읍 인구를 6개 연령층으로 세분화 · 분석하고 남양주시 읍면동과 비교함으로써,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령 구분은 일반 행정통계에서 사용하는 유소년(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고령(65세 이상)의 3단계 구분과 달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실제 행태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6개 구간으로 세분화함
 - 영유아 · 아동(0~9세)은 보호자와의 동반 방문이 필수적인 연령층으로, 어린이열람실과 그림책 특화 공간의 이용층에 해당함
 - 독립적인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호자인 중장년층의 방문 행태와 직접 연동됨
 - 초등 · 청소년(10~19세)은 자기주도적 도서관 이용이 가능해지는 시기로, 학습과 독서 목적이 혼재하는 특성을 보임
 - 진접읍의 경우 인근 장승초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방과 후 이용 수요가 예측됨
 - 청년(20~34세)은 취업 준비 · 자격증 학습 등 특정 목적의 방문은 있으나 일상적 이용률은 낮아, 이 연령층을 도서관으로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중장년(35~54세)은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동반 방문하는 가족 수요와 본인의 열람 · 정보 서비스 이용 수요를 동시에 창출하는 이중 수요층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공간 체류 시간도 길다는 특성이 있음

- 장년(55~64세)은 은퇴 전후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평생학습과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독서·강좌·취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아, 도서관 문화강좌실 운영의 주요 대상층이 됨
- 노년(65세 이상)은 고령화 진행에 따라 도서관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디지털 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제적 적용 근거가 됨
- 이와 같이 6개 구간은 단순한 연령 범위의 구분을 넘어, 각 구간의 도서관 이용 목적·행태·공간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구분을 기준으로 진접읍 및 남양주시 읍면동별 인구 구조를 분석하고, 리모델링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함

〈표 3-1〉 남양주시 인구 연령 구분 기준

연령 구분	연령 범위	도서관 이용 특성
영유아·아동	0~9세	보호자 동반, 어린이열람실·그림책 이용층
초등·청소년	10~19세	자기주도 이용, 장승초등학교 연계, 학습·독서 혼재
청년	20~34세	전국적 도서관 비이용률 최고 구간
중장년	35~54세	학부모+열람 이중 수요
장년	55~64세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 수요 급증층
노년	65세 이상	고령화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선제 적용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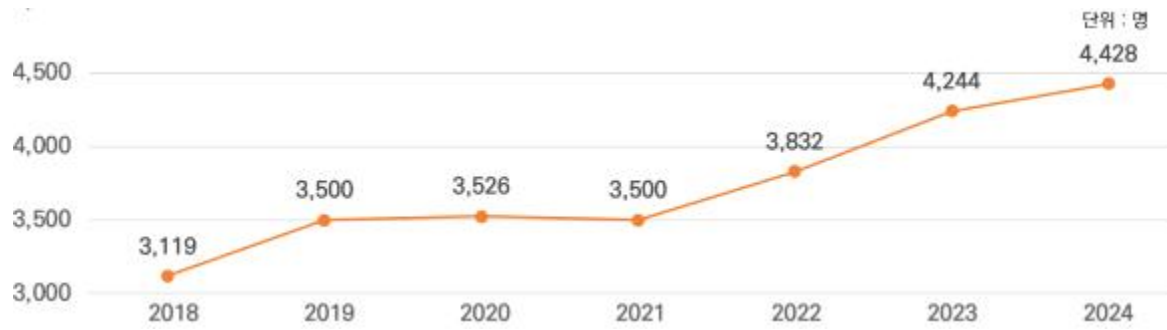
- 진접읍은 신도시 성장기를 지난 성숙형 신도시로서 영유아·아동과 초등·청소년, 중장년·장년·노년층이 모두 고르게 분포해 가족 단위 이용 수요와 고령층·장년층의 평생학습·문화 수요가 동시에 높은 인구 구조를 보이며, 특히 청년층은 도서관 비이용이 많아 별도의 유입 전략이, 노년층은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임
- 영유아·아동(0~9세) 인구는 5,311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며,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중 6위에 해당함
 - 다산1동(10.2%), 다산2동(9.2%), 별내동(7.8%), 호평동(7.2%), 평내동(6.4%)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구도심이나 농촌형 지역(수동면 2.2%, 금곡동 2.4%, 조안면 2.6%)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이는 진접읍이 신도시 성장기를 일정 부분 경과한 성숙형 신도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초등·청소년(10~19세) 인구는 11,126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며,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중 5위에 해당함

- 호평동(12.5%), 다산2동(12.4%), 다산1동(12.3%), 평내동(12.0%)에 이어 상위권에 위치하며, 인근 장승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음
- 초등·청소년은 자기주도적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고 방과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가 명확하여,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공간 배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진접읍의 청년(20~34세) 인구는 15,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하며, 16개 읍면동 중 9위에 해당함
 - 별내동(18.3%), 오남읍(17.7%), 평내동(17.6%), 퇴계원읍(17.0%), 화도읍(16.0%) 등 다수 읍면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남양주시 전체 평균(16.5%)보다 낮음
 - 청년층은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비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진접읍 역시 이 구간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유입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진접읍의 중장년층(35~54세) 인구는 28,855명으로 전체 인구의 30.4%를 차지하며, 16개 읍면동 중 6위에 해당함
 - 다산2동(36.1%), 다산1동(36.0%), 호평동(34.2%), 별내동(33.0%), 평내동(32.9%)에 비해서는 낮으나, 남양주시 전체 평균(31.4%)과 유사함
 - 중장년층은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자녀와 동반 방문하는 가족 이용 수요와, 본인 스스로 열람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수요를 동시에 창출하는 이중 수요층임
- 진접읍의 아파트 밀집 주거 환경과 인근 장승다담공원을 고려할 때, 이 연령층이 가족 단위 방문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됨
- 진접읍의 장년(55~64세) 인구는 15,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16개 읍면동 중 11위에 해당함
 - 수동면(23.2%), 진건읍(23.0%), 양정동(22.2%), 조안면(22.0%) 등 구도심·농촌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다산1동(11.2%), 다산2동(13.6%) 등 최신 신도시보다는 높음
 - 장년층은 은퇴 전후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로, 도서관 문화강좌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타깃층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진접읍의 노년(65세 이상) 인구는 18,501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하며, 16개 읍면동 중 10위에 해당함
 - 수동면(38.6%), 조안면(36.6%), 양정동(31.9%), 금곡동(31.7%) 등 농촌·구도심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미 남양주시 전체 평균(18.9%)을 상회하고 있음
 - 신도시형 지역임에도 노년층 비율이 시 평균을 넘어선 것은 진접읍이 개발 초기에 유입된 인구가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10~15년 내 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3-2〉 남양주시 읍면동별 인구수 현황(2026년 4월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진접읍	3,119	3,500	3,526	3,500	3,832	4,244	4,428
화도읍	2,955	3,278	3,352	3,374	3,149	3,302	3,450
오남읍	1,345	1,437	1,372	1,338	1,381	1,434	1,502
별내동	928	1,170	1,166	1,157	1,213	1,283	1,327
다산1동	554	711	776	965	1,128	1,195	1,292
진건읍	996	1,042	978	879	870	940	1,013
호평동	520	559	582	722	748	783	791
와부읍	781	800	744	738	720	729	722
수동면	680	719	679	644	683	730	714
평내동	385	401	413	429	466	499	499
퇴계원읍	410	414	463	453	472	486	485
다산2동	177	322	371	371	401	445	465
별내면	280	313	306	311	292	308	306
금곡동	288	291	263	258	248	290	300
양정동	163	173	172	168	152	150	134
조안면	110	97	82	63	61	67	61

- 진접읍은 가족 단위 이용 수요가 높고 중·장년·노년층 비중도 커, 가족 친화 공간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병행하는 리모델링이 요구됨
 - 진접읍은 신도시형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중장년층(35~54세)이 30.4%로 가장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등·청소년층(11.7%)도 상위권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령 구조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가 도서관의 주요 이용자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인근에 위치한 장승초등학교와 장승다담공원은 이러한 가족 단위 방문 수요를 더욱 강화하는 입지적 요소로 작용함
 - 한편 노년층(65세 이상)은 19.5%로 이미 남양주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장년층(55~64세) 역시 16.5%로 두텁게 분포하고 있어, 중·장년과 노년층 이용 수요가 동시에 높은 지역적 특성이 나타남
 - 진접읍의 외국인 주민 수는 남양주시 읍면동별 외국인 수 중 가장 많으며, 2018년 3,119명에서 2024년 4,428명으로 7년간 약 1,309명(42.0%) 증가하였음
 - 이러한 추이는 진접읍을 포함한 지역 내 다문화 인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생활 인프라 및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그림 3-1] 진접읍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18-'24)

- 인구 구조를 종합하면,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족 친화적 공간 조성과 더불어 고령화 가속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 인구학적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 남양주시 행정동별 연령 구조 현황(2026년 4월 기준)

읍면동	총인구	영유아 · 아동(0~9세)		초등 · 청소년(10~19세)		청년(20~34세)		중장년(35~54세)		장년(55~64세)		노년(65세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남양주시	729,754	46,368	6.4	78,800	10.8	120,126	16.5	229,054	31.4	117,474	16.1	137,932	18.9
다산1동	105,753	10,811	10.2	12,969	12.3	17,806	16.8	38,065	36	11,868	11.2	14,234	13.5
진접읍	94,778	5,311	5.6	11,126	11.7	15,356	16.2	28,855	30.4	15,629	16.5	18,501	19.5
별내동	82,897	6,506	7.8	8,493	10.2	15,211	18.3	27,377	33	11,801	14.2	13,509	16.3
화도읍	63,417	2,982	4.7	6,461	10.2	10,154	16	19,302	30.4	11,253	17.7	13,265	20.9
와부읍	59,575	2,744	4.6	6,509	10.9	9,756	16.4	17,332	29.1	10,431	17.5	12,803	21.5
호평동	55,592	3,989	7.2	6,969	12.5	8,658	15.6	19,035	34.2	8,006	14.4	8,935	16.1
오남읍	50,565	2,125	4.2	5,328	10.5	8,959	17.7	15,017	29.7	9,376	18.5	9,760	19.3
평내동	37,376	2,402	6.4	4,485	12	6,578	17.6	12,296	32.9	5,759	15.4	5,856	15.7
다산2동	36,521	3,371	9.2	4,535	12.4	5,674	15.5	13,180	36.1	4,951	13.6	4,810	13.2
퇴계원읍	26,322	985	3.7	2,079	7.9	4,470	17	6,735	25.6	5,361	20.4	6,692	25.4
진건읍	19,681	544	2.8	1,289	6.5	3,202	16.3	4,712	23.9	4,530	23	5,404	27.5
별내면	17,852	641	3.6	1,558	8.7	2,725	15.3	4,715	26.4	3,569	20	4,644	26
금곡동	16,950	403	2.4	780	4.6	2,738	16.2	3,940	23.2	3,710	21.9	5,379	31.7
수동면	8,403	187	2.2	428	5.1	877	10.4	1,719	20.5	1,950	23.2	3,242	38.6
조안면	3,703	97	2.6	191	5.2	435	11.7	811	21.9	813	22	1,356	36.6
양정동	2,164	58	2.7	86	4	381	17.6	469	21.7	480	22.2	690	31.9

2 진접도서관 주변지역 환경 분석

1) 도서관 위치 및 대지 특성

- 진접도서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역사공원 내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으로, 자연녹지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비교적 쾌적한 환경 속에 입지하고 있음
- 전체 대지면적 14,804.9㎡ 중 약 3,250.0㎡가 진접도서관 건축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원 녹지와 보행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입지는 일반적인 도심형 도서관과 달리 건물 밀도가 낮고, 주변 경관이 개방되어 있어 자연채광 확보, 조망성, 외부 체류 공간 조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짐
- 특히 공원 내부 입지는 도시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독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짐
- 또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토지이용 특성상 향후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고밀 개발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으로도 현재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2) 주변 주거 환경

- 진접도서관이 위치한 장현리 일대는 계획적 주거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특히 장승마을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 밀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도보권 내 다수의 중·대규모 공동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안정적인 이용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근린공원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된 '생활권 완결형 구조'를 보이며, 진접도서관은 이 구조 내에서 생활SOC(사회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公園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 상에 도서관이 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적인 산책·여가 활동 중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는 '경유형 이용 패턴' 형성이 가능함
- 이는 목적형 방문 뿐만 아니라 비목적형 방문(우연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적 특징이 있음
- 또한 진접2지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인구 유입 및 생활권 확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권역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3) 교육시설 _ 장승초등학교

- 진접도서관 인근에는 장승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령기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임
- 특히 장승초등학교는 도보 5~10분 거리로 매우 인접해 있으며, 학생들의 일상 동선과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됨
- 이는 방과후 시간대 학생 이용률 증가로 직결될 수 있으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이용 공간을 넘어 학습 지원 및 돌봄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함
- 또한 학교와의 프로그램 연계(독서교육, 체험활동, 진로 프로그램 등)를 통해 지역 교육 인프라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중·고등학교 역시 인근에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시험기간 자습 공간 수요, 청소년 프로그램 수요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패턴을 수용할 필요성이 높음



출처: 카카오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가공

[그림 3-2] 진접도서관 입지 및 주변환경 분석도

4) 공원 및 녹지 환경 _ 장승다담공원

- 진접도서관은 역사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인근에 장승다담공원이 인접해 있어 ‘공원-도서관-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 기반 생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함

- 특히 장승다담공원은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사이에 위치하여 완충공간이자 유입 통로로 기능하며, 산책, 휴식, 놀이 등의 활동 이후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이용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 도서관 전면부의 피로티 및 마당 공간은 이러한 공원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 외부 독서 공간, 소규모 문화행사, 플리마켓, 북큐레이션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반외부 공간으로 활용 가능함
- 또한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 변화는 도서관 이용 경험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타 도심형 도서관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환경적 자산임



출처:남양주시. (2024). [장승다담공원]. 남양주시청

[그림 3-3] 장승다담공원

5) 역사문화유산 _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 진접도서관 외부 및 장승다담공원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기원전 후반~기원후 초반)에 이르는 선사 취락 유적이 분포하며, 이 움집터 유적은 오늘날 진접도서관과 장승다담공원 조성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음
- 이 유적은 장현5지구 주택 건설 사업에 앞서 시행된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와 원삼국 두 시기의 주거지와 생활 흔적이 한 공간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복합 취락으로 밝혀짐
- 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와 경기 동북부 지역 선사 취락의 공간적 분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하천 주변 충적지와 완만한 구릉을 결합한 선사 마을 입지 선택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됨

- 이러한 역사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서관 외부와 인근 장승다담공원에는 선사 유구를 해설하고 일부를 전시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장현리 선사 유적을 시민의 일상 생활권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4] 진접도서관 외부에 설치된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6) 교통 및 접근성

- 진접도서관은 수도권 전철 4호선 진접역 개통으로 광역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역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다소 낮은 편임
- 따라서 주 이용 방식은 도보 및 자전거 중심의 근거리 생활권 이용이 주를 이룸
- 이는 도서관이 ‘광역 거점형’보다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이용자 역시 인근 주민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주차공간은 총 35대로 확보되어 있으나, 대규모 행사나 주말 이용 집중 시 주차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차량 접근성보다는 보행 접근성 개선(보행로 정비, 안내체계 강화, 자전거 거치대 확충 등)이 더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음
- 또한 공원 내부 입지 특성상 차량 진입 동선과 보행 동선의 분리, 안전한 접근 경로 확보 등이 중요하며, 야간 이용을 고려한 조명 및 안전 환경 개선도 필요함

7) 입지 환경 종합

- 진접도서관은 공원, 주거지, 교육시설이 밀접하게 결합된 전형적인 생활권 중심 입지로, 일상 속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생활형 문화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 특히 주요 이용층은 아파트 거주 가족 단위 이용자, 초등학생 및 학부모, 청소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맞춘 공간 및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 이에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도서관의 이용 방식 자체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원과의 물리적 · 시각적 연계를 강화하여 ‘열린 도서관’ 이미지 구축
 - 방과후 시간대 아동 · 청소년 이용을 고려한 공간 재구성 및 프로그램 확대
 - 우연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1층 개방형 공간 및 외부 연계 공간 활성화
 - 보행 중심 접근성을 강화한 안전하고 직관적인 진입 동선 계획
 -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확대

3 시설 개요 및 대상 공간 현황

1) 진접도서관 배치

- 진접도서관은 주변 가로망 및 보행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형태를 보이며, 북측으로 장승다담공원과 인접하고, 동측으로는 장승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음
- 건축물의 북측에는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고 인접하고, 인근 공용주차장 및 자전거 거치대가 배치되어 장승초등학교 및 장승다담공원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함
- 건축물 남측에 주출입구가 위치하며, 이는 도서관 전면의 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어 차량 이용객의 주된 진입 경로로 기능함
-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지하층 출입구(지하주차장과 연결) 와 별도의 자전거거치대가 배치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이용과 자전거 이용 수요를 동시에 고려됨
- 건축물의 남측과 동측에는 공동주택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배후 주거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서측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은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정비되어 있어 보행 접근성이 좋음



[그림 3-5] 진접도서관 배치

2) 진접도서관 시설 개요

- 진접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 학습, 정보이용,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 생활권 내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개관 이후 장기간 운영이 지속되면서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초기 계획 당시의 공간 구성은 최근 변화한 이용 환경과 이용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은 자료 보존과 열람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학습, 체험, 디지털 활용, 커뮤니티 활동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어, 진접도서관 도서관의 공간 체계 역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재편 방향을 도출하기에 앞서, 진접도서관의 기존 공간 구성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진접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4,426.15㎡ 규모로, 열람 · 자료 · 문화 · 관리 기능이 층별로 분화된 구조임
- 지하 1층에는 주차장(35면)과 기계 · 전기실, 보존서고, 창고가 배치되어 건물 운영과 장서 보존을 지원하며, 30석 규모의 휴게실을 통해 직원 및 이용자의 휴식 기능도 함께 제공함
- 1층은 보로로도서관(20석)을 중심으로 안내데스크와 도서반납공간이 위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기초 독서 공간이자 모든 이용자의 출입 · 안내 · 대출 · 반납이 이루어지는

기초서비스 층으로 계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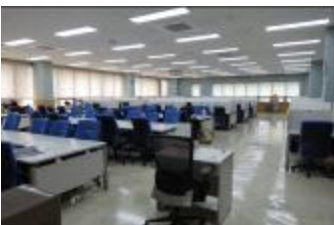
- 2층은 어린이자료실(20석)과 문헌정보실(60석), 사무실, 도서정리실을 배치함으로써 초등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를 함께 수용하는 자료서비스 층이자 도서관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 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3층에는 디지털자료실(40석), DVD실(4석), 노트북실(56석), 154석 규모의 열람실이 구성되어 중·고·대학생 및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 이용과 장시간 자율학습 기능을 구축하고 있음
- 최상층인 4층은 165석 규모의 다목적세미나실과 30석의 문화강좌실, 20석 규모의 동아리방으로 구성되어, 강연·강좌·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층으로 운영됨

〈표 3-4〉 진접도서관 층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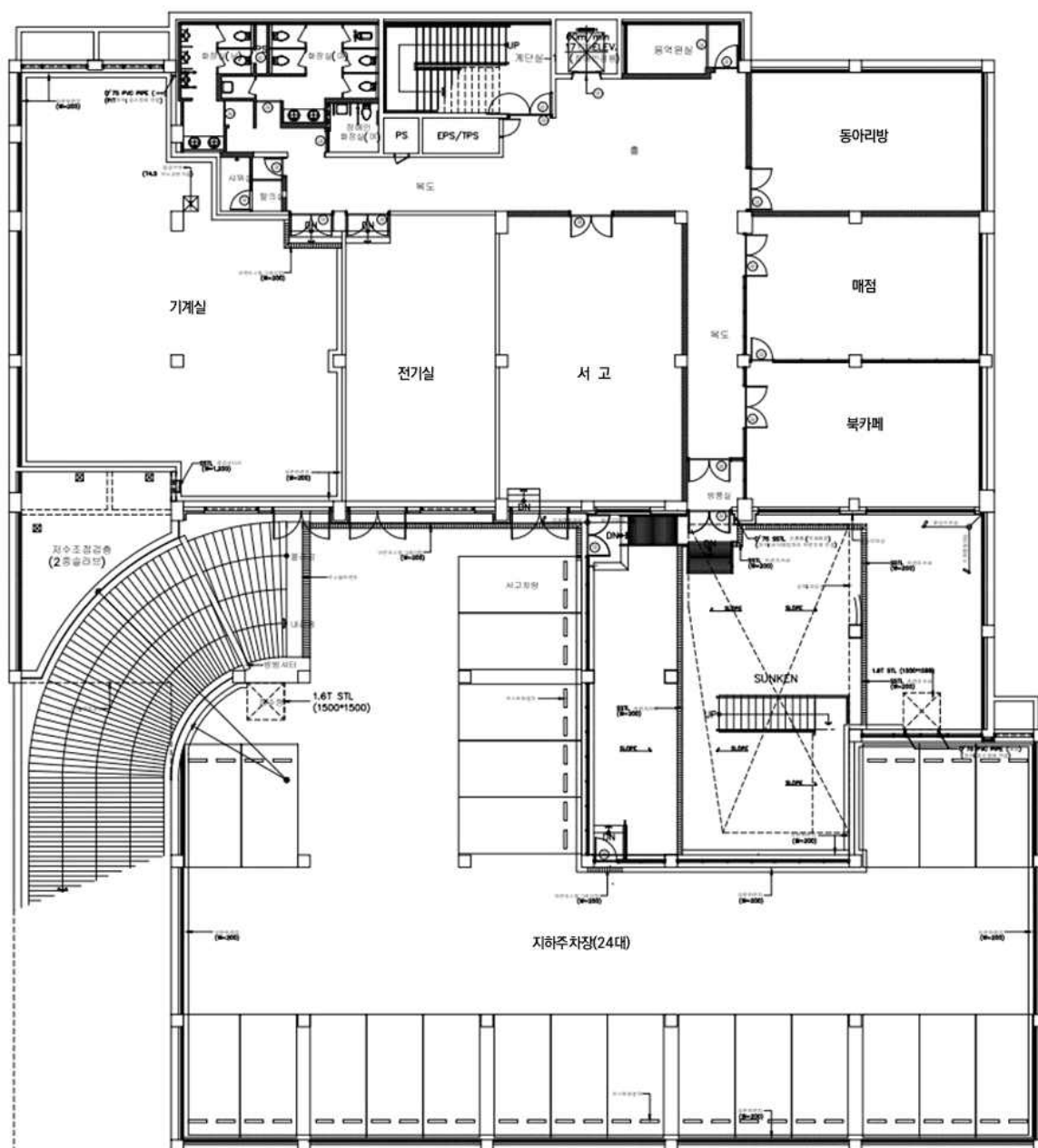
층	주요 기능	세부공간	주이용자(대상)
지하 1층	설비·주차·보존 기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35면), 보존서고, 휴게실(30석), 창고 등	차량 이용 시민, 직원, 장서 보존 담당자
1층	이용자진입·대출·안내 중심층	보로로도서관(20석), 안내데스크, 도서반납공간 등	영유아·보호자, 처음 방문 이용자, 모든 시민
2층	어린이자료·일반정보·업무 지원층	어린이자료실(20석), 문헌정보실(60석), 사무실, 도서정리실 등	초등생·보호자, 일반 이용자, 도서관 직원
3층	디지털·미디어 학습층	디지털자료실(40석), DVD실(4석), 노트북실(56석), 열람실(154석)	중·고·대학생, 일반 성인 학습자, 디지털 자료 이용자
4층	문화·프로그램 운영층	다목적세미나실(165석), 문화강좌실(30석), 동아리방(20석)	성인·동아리·지역단체, 강좌·행사 참여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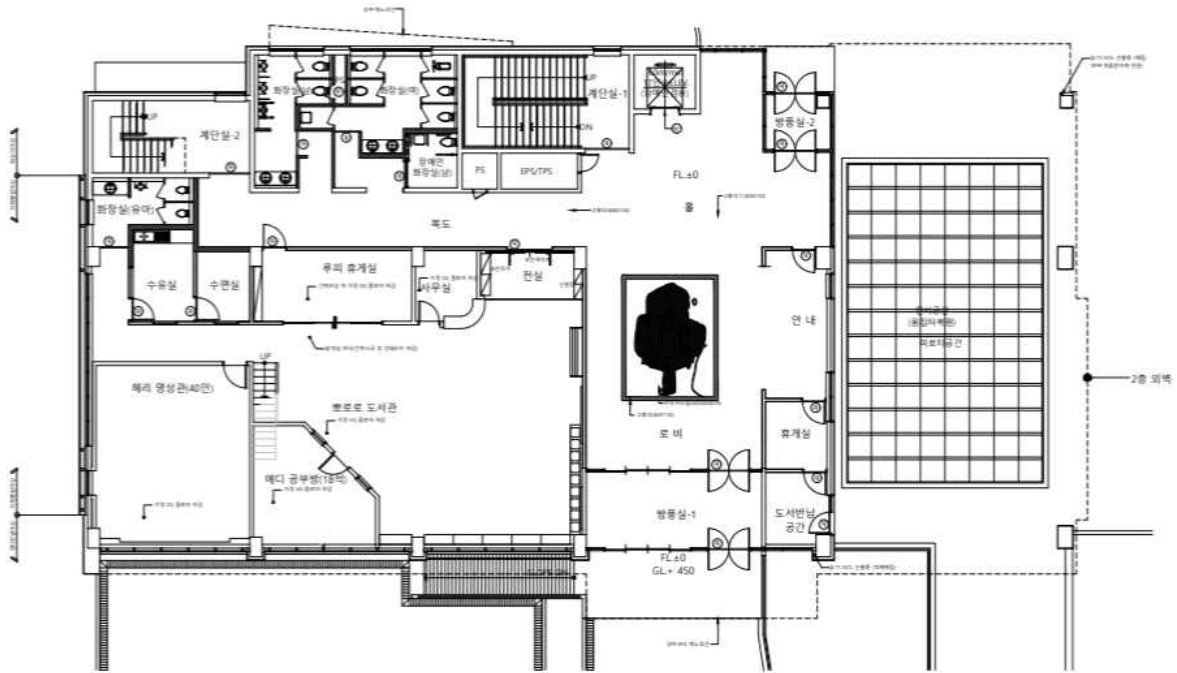
3) 공간 이용 실태

- 현장 상주 관찰 결과, 방문 시점의 이용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이용자 특성은 일부만 확인되었으며 뚜렷한 이용 행태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열람실은 비교적 여유로운 좌석 여건 속에서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 특성보다 조용한 이용환경이 진접도서관의 두드러진 현재 특징으로 관찰됨
- 이러한 저밀도·정숙 중심의 이용 양상은 앞선 통계 분석에서 확인된 좌석·이용 감소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현재의 공간이 다양한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입·체류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정숙한 이용환경에 대한 수요 자체는 유효하므로, 리모델링에서는 개방·활성화와 함께 3층 '활동 - 전이 - 정숙' 조닝과 1인 집중 구역을 통해 정숙 이용 수요를 별도로 보존하는 방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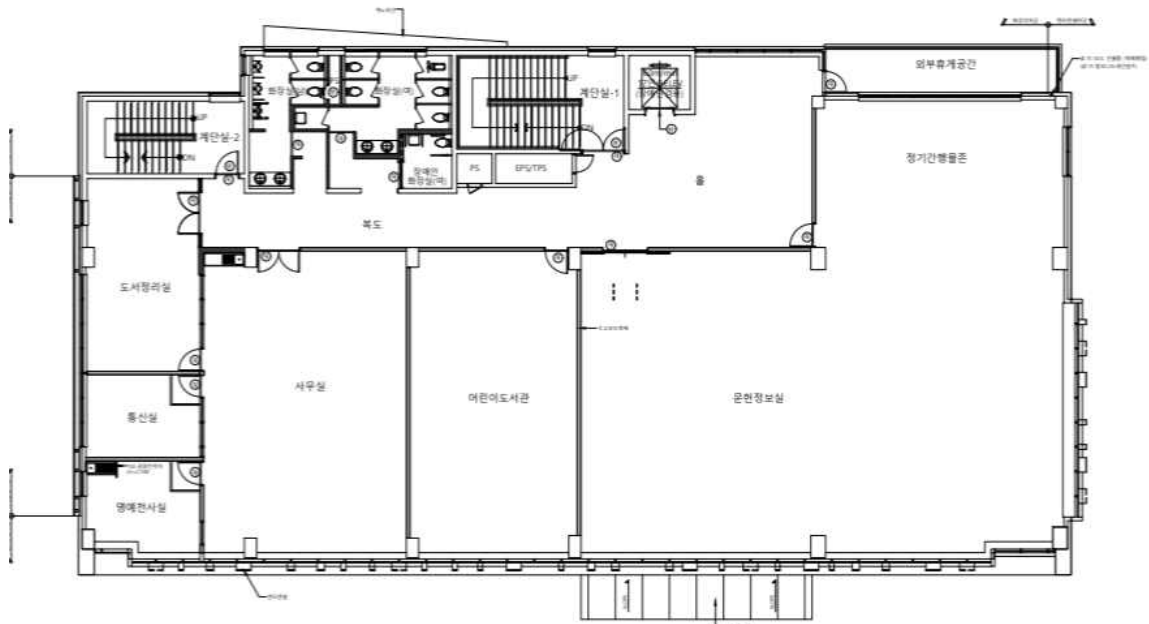
지하 1층	 지하주차장	 휴게실	 전기실 및 기계실
외부	 전면사진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후면 자전거 보관함
지상 1층	 보로로도서관1	 보로로도서관2	 안내데스크
지상 2층	 어린이자료실	 문헌정보실 1	 문헌정보실 2
지상 3층	 노트북실	 문헌정보실	 열람실
지상 4층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지상 4층 로비

[그림 3-6] 진접도서관 내외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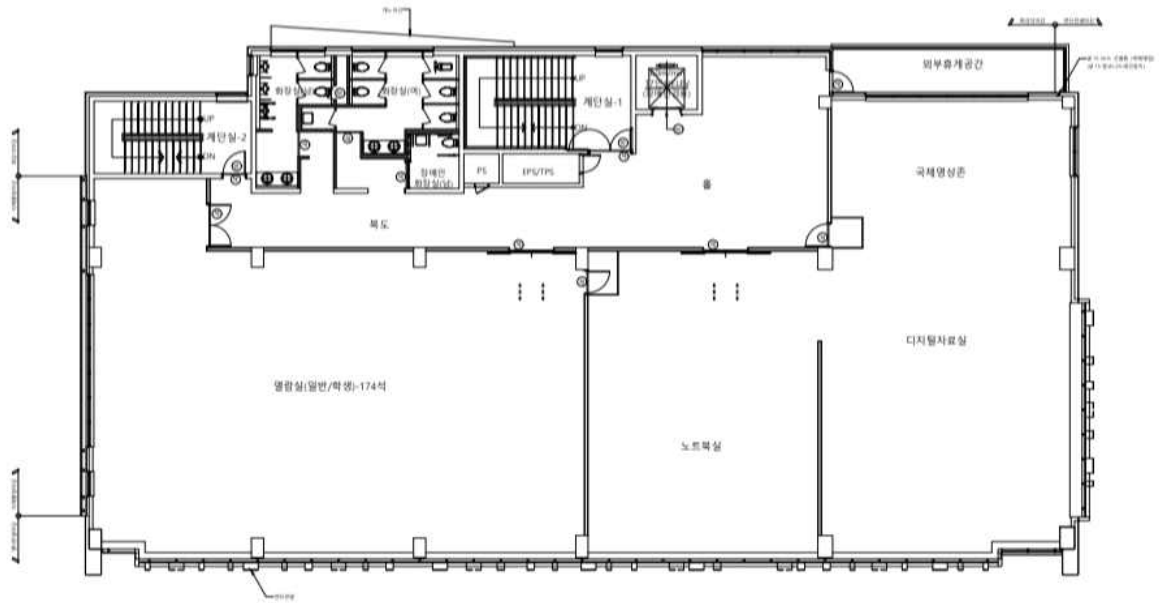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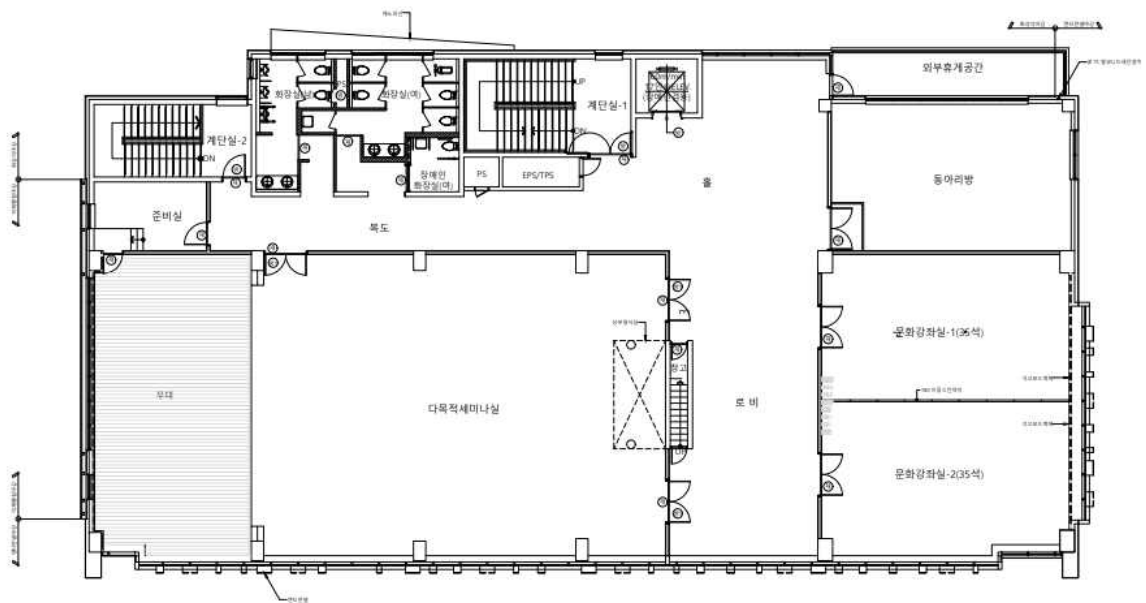
[그림 3-8] 지상 1층 기존 평면도



[그림 3-9] 지상 2층 기존 평면도



[그림 3-10] 지상 3층 기존 평면도



[그림 3-11] 지상 4층 기존 평면도

제2절 진접도서관 미래 이용자 분석

1 미래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

- 공공도서관의 이용환경은 ① 인구 구조 변화, ② 디지털 기술의 발전, ③ 생활양식의 다변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 이용 수요의 증감을 넘어 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구성 방식 자체를 재편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래 이용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리모델링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 됨

① 인구 구조 변화

-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2016~202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린이 열람석과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진접읍의 경우 노년층(65세 이상)이 이미 19.5%로 남양주시 평균(18.9%)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10~15년 내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중장년층(35~54세, 30.4%)과 초등·청소년층(10~19세, 11.7%)은 당분간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어린이·가족 서비스와 고령자 대응 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도서관에 부여함
- 또한 진접읍 내 외국인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다문화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② 디지털 기술의 발전

- 전국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소장량은 2016년 관당 14,205건에서 2025년 432,139건으로 약 30배 증가하였으며, 고정형 P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개인 기기 기반의 무선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있음
- 진접도서관의 이용자용 컴퓨터 수는 2016년 84대에서 2025년 28대로 67% 감소하였으나 전자자료는 2024년 385,087건까지 급증함
- 이는 미래 도서관 이용자가 고정형 PC보다 개인 노트북·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자료 이용을 선호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며, 충전 콘센트·무선인터넷 인프라와 전자자료 전용 단말기를 갖춘

디지털 친화 환경 구축이 미래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과제가 됨

③ 생활양식의 다변화

-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리거나 공부하는 장소로 인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카페처럼 편안하게 머물거나, 소규모 모임을 하거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복합적 생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전국·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이용 수요의 확대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함

2 예비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 분석

- 예비 이용자는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지만 향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잠재 이용자는 도서관의 공간·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함
- 진접도서관의 예비·잠재 이용자는 크게 ① 비이용 청년층(20~34세), ② 미취학 영유아 동반 가정, ③ 다문화 가족, ④ 장승다담공원 이용자로 구분됨

① 비이용 청년층(20~34세)

- 진접읍의 청년층 인구는 15,356명(16.2%)으로 전국적으로 도서관 비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 해당하며, 취업 준비·자격증 학습·창업 관련 수요는 있음
-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의 노트북 친화 환경, 1인 집중 열람 구역, 취업·자격 관련 특화자료 구비 등이 이 집단의 유입을 위한 전략이 됨

② 미취학 영유아 동반 가정

- 진접읍의 영유아·아동(0~9세)은 5,311명(5.6%)이며, 이들의 보호자인 30대 중반~40대 중장년층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 단위 이용자가 예비 이용자의 집단을 형성함
- 현재 1층 뽀로로도서관(20석)과 2층 어린이자료실(20석)의 공간이 협소하고 분리되어 있어 가족 동반 체류 환경이 부족한 상태로, 1층 어린이·가족 통합열람실 조성이 이 집단을 실질적 이용자로 전환하는 방안임

③ 다문화 가족

- 진접읍 일대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관 내 다국어 자료와 다문화 서비스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 집단이 도서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2층 문헌정보실 내 다문화 가족 특화 코너 신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이 집단의 유입 방안이 됨

④ 장승다담공원 이용자

- 장승다담공원은 진접도서관에서 약 80m 거리에 위치하여 주말 가족 산책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공원 방문객이 도서관을 경유하거나 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는 이 잠재 이용자들이 도서관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
- 1층 피로티와 도서관마당을 공원 방향으로 개방하고 경유형 방문을 유도하는 동선과 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이 집단을 실질적 이용자로 전환하는 방안임

3 세대별 · 계층별 미래 수요 전망

- 진접읍의 인구 구조 변화와 도서관 이용 트렌드를 종합하면, 향후 5~15년 내 진접도서관이 대응해야 할 미래 수요는 6개 이용자군의 세대별 수요와 전 연령에 걸친 디지털 전환 수요로 구분됨

① 영유아 · 아동(0~9세)

- 인근 신도시 대비 영유아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도서관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어린이 이용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림책 특화 공간, 보호자 동반 체류 공간, 영상·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② 초등 · 청소년(10~19세)

- 인접한 장승초등학교와의 근접성으로 방과후 자기주도 학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조용한 집중학습 공간, 디지털 기기 활용 공간,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③ 청년(20~34세)

- 전국적으로 도서관 비이용률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잠재 수요를 실제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유입 전략이 요구되는 집단임
- 취업·자격 준비 및 자기계발 학습, 1인 집중 좌석과 코워킹형 공간, 야간·주말 이용, 디지털 창작 활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④ 중장년(35~54세)

- 현재 진접읍에서 가장 두터운 인구층으로, 학부모 역할과 개인 정보·학습 수요를 동시에 가지는 이중 수요층임
- 가족 동반 이용 공간과 성인 열람·디지털 이용 공간의 동시 강화가 요구됨

○ ⑤ 장년(55~64세)

- 은퇴 전후로 여가 시간이 늘며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 수요가 급증하는 계층으로, 노년층으로 이어지는 이용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문화·취미 프로그램 공간, 재취업·디지털 활용 교육, 지역 커뮤니티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⑥ 노년(65세 이상)

- 이미 남양주시 평균을 상회하는 비중을 보이며, 향후 10~15년 내 빠른 증가가 예측되는 집단임
-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 큰 글자 자료, 건강·복지 연계 정보 서비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⑦ 디지털 전환 대응 수요(전 연령 공통)

- 모든 연령층에 걸쳐 전자자료 이용, 개인 기기 기반 학습, 디지털 창작 활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시에 고령자·장애인·다문화 이용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 미래 이용자 중심 공간 요구 도출

- 앞서 분석한 미래 이용환경 변화, 예비·잠재 이용자 특성, 세대별 수요 전망을 종합하여 ① 어린이·가족 통합 체험공간 조성, ② 디지털 친화 개방형 환경 구축, ③ 가변형 프로그램 공간 확보, ④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공간 환경 구현, ⑤ 지역 연계 개방 동선 조성을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① 어린이·가족 통합 체험공간 조성

- 영유아·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체류하며 독서·체험·휴식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이 요구됨

- 현재 보로로도서관(20석)과 어린이자료실(20석)의 분리·협소 구조는 가족 동반 이용을 제약하는 문제로, 1층에 어린이·가족 통합열람실을 중심으로 패밀리 카페존, 가족 이용 공간, 보호자 체류 좌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② 디지털 친화 개방형 환경 구축

- 개인 기기 이용자를 위한 충전 콘센트와 무선인터넷, 전자자료 전용 단말기, 노트북 기반 작업이 가능한 넓은 테이블, 1인 집중 열람 구역이 통합된 개방형 디지털 환경이 요구됨
- 현재 분리 운영 중인 디지털자료실·노트북실·열람실을 통합하여 개방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임

③ 가변형 프로그램 공간 확보

- 오프라인 프로그램 수요가 빠르게 회복·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이동식 가구와 가변 파티션을 활용하여 강좌·모임·소규모 공연·전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 요구됨

④ 지역 연계 개방 동선 조성

- 장승다담공원(80m)과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와의 연계 동선을 1층 필로티·도서관마당에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공원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유형 방문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제3절 진접도서관 공간 이용 문제

1 대상 공간별 이용상 문제

- 진접도서관의 층별 공간 구성을 이용 현황과 이용자 요구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각 층에서 구조적인 이용상 문제가 확인됨

(1) 지하 1층

- 지하 1층은 주차장 · 기계전기실 · 보존서고 · 북카페 · 동아리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연채광이 전혀 없고 계단 의존 이동이 주를 이루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 가족 이용자나 고령자 ·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의 자립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 층에 위치한 북카페와 동아리방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2) 지상 1층

- 보로로도서관(20석)은 영유아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보호자 동반 이용자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임
- 안내데스크와 도서반납 기능이 집중된 1층은 이용자 진입과 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어린이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혼잡이 발생함
- 또한 장승다담공원과 남양주 장현리 읍집터가 연계된 개방형 동선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공원 및 역사문화자원 방문자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지상 2층

- 어린이자료실(20석)은 초등학생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나 문헌정보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관리 효율이 낮고, 연면적(20석) 대비 실제 수용 가능 이용자가 극히 제한적임
- 어린이자료실이 2층에 위치함으로써 1층 보로로도서관과 기능적 연계가 어렵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영유아 · 아동의 접근성이 낮음
- 문헌정보실(60석)은 자료 열람 중심의 고정형 배치로 다양한 이용 행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4) 지상 3층

- 디지털자료실(40석), DVD실(4석), 노트북실(56석), 열람실(154석)이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고정형 PC 수가 2016년 84대에서 2025년 28대로 급감하여 공간 대비 설비 밀도가 크게 낮아짐
- 노트북실과 열람실은 기능상 중복 요소가 있음에도 분리 운영되어 공간 효율이 낮음
 - 개인 기기 이용자를 위한 충전 콘센트와 무선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5) 지상 4층

- 다목적세미나실(165석), 문화강좌실(30석), 동아리방(20석)은 물리적으로 양호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가 2016년 5,498명에서 2025년 424명으로 급감하여 공간 활용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임
-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운영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대규모 세미나실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 공간 기능 중복 및 연계 한계

- 진접도서관의 현재 공간 구성에서는 기능 중복과 연계 단절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남
- 3층의 디지털자료실 · 노트북실 · 열람실은 자료 이용 및 개인 학습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활동 목적에 맞는 공간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주고, 각 공간의 이용 밀도가 불균등해질 수 있음
- 특히 노트북실과 열람실의 경우 현재 이용 행태상 노트북을 열람실에서 사용하거나 열람실 좌석을 개인 학습에 활용하는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능 구분의 실효성이 낮음
- 또한 어린이 관련 공간이 1층(보로로도서관)과 2층(어린이자료실)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호자가 동반 이용 시 층 이동이 불가피함
- 이는 영유아 동반 가족 이용자에게 이동 부담을 주고, 운영 측면에서도 어린이 이용자의 행동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함

- 1층의 일반 이용자 안내 기능과 어린이 이용 공간이 혼재하여 각 이용자군 간 공간 간섭이 발생하며, 4층 프로그램 공간은 1~3층 자료 이용 공간과 사실상 독립된 섬처럼 운영되어 자료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이용자 동선 및 운영상 비효율

(1) 이용자 동선

- 현재 진접도서관의 주동선은 1층 안내데스크를 기점으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이동하는 수직 동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 이용자와 성인 이용자의 동선이 1층에서 교차하고, 어린이 관련 공간이 1층과 2층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유형별 독립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장승담공원 방향의 외부 접근 동선이 도서관 주출입구와 연결되지 않아 공원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유입 동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동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음

(2) 운영상 비효율화

- 어린이자료실이 2층에 분리 배치되어 있어 1층 안내데스크 인력이 1층과 2층 어린이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임
- 3층의 디지털자료실·노트북실·열람실이 각각 별도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별 좌석 배정과 이용자 관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됨
- 4층 프로그램 공간은 강좌·행사 미운영 시간대에 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음

1 이용자 분석 종합

-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진접도서관의 이용자 구조와 미래 수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인구 구조 측면에서 진접읍은 중장년층(35~54세, 30.4%)이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등·청소년(10~19세, 11.7%)이 남양주시 5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년층(65세 이상, 19.5%)은 이미 남양주시 평균(18.9%)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가속이 예측됨
- 반면 청년층(20~34세, 16.2%)은 전국적으로 도서관 비이용률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별도의 유입 전략이 요구됨
- 이러한 인구 구조는 가족 단위 이용자 수요와 고령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이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입지 환경 측면에서 장승다담공원(약 80m), 남양주 장현리 읍집터, 장승초등학교(약 180m), 7,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강력한 입지 자산이 확인됨
- 공원 - 도서관 - 주거지를 연결하는 생활 동선상에 도서관이 위치하여 비목적형 방문과 경유형 방문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
- 그러나 현재 도서관 공간 구성은 이러한 입지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공원 연계 개방 동선 조성이 리모델링의 과제 중 하나로 도출됨
- 이용 통계 측면에서 어린이 열람석이 2016년 100석에서 2025년 40석으로 60% 감소하였고, 이용자용 컴퓨터는 84대에서 28대로 67% 감소함
- 총 좌석도 422석에서 354석으로 줄어든 반면 전자자료는 2024년 385,087건까지 급증함
- 이는 어린이 공간의 물리적 회복과 디지털 이용 환경의 전면 재편이 동시에 요구됨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함
- 이용자군 유형화 측면에서 어린이·가족 이용자, 청소년 학습 이용자, 성인 정보·자기계발 이용자, 디지털 활용 중심 이용자, 접근 지원이 필요한 포용 대상 이용자의 5개 유형이 도출됨
- 각 이용자군은 서로 다른 공간 요구와 서비스 수요를 가지며, 이들의 요구가 시간대별·층별로

중첩되는 상황을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함

- 공간 이용 문제 측면에서 어린이 관련 공간의 1·2층 분산 배치로 인한 층간 연계 단절, 3층 디지털자료실·노트북실·열람실의 기능 중복, 공원 방향 개방 동선 부재, 4층 프로그램 공간의 운영 위축, 유니버설디자인 미비라는 다섯 가지 문제가 확인됨
- 이러한 문제들은 시설 노후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기 공간 계획이 현재의 이용자 요구와 괴리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

2 공간 재구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

- 이상의 이용자 분석과 공간 이용 문제 도출을 종합하여,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재구성 방향을 ① 1층을 어린이·가족 허브층으로 전환, ② 3층을 통합 개방형 열람층으로 재구성, ③ 2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 ④ 공원 연계 개방 동선 물리적 구현, ⑤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통합 적용, ⑥ 지하 1층 현행 기능 유지해야함

① 1층을 어린이·가족 허브층으로 전환

- 뽀로로도서관(1층, 20석)과 어린이자료실(2층, 20석)의 분산 구조를 해소하고, 두 공간을 1층에 통합하여 어린이 독서·체험, 보호자 체류, 가족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족 허브층을 조성해야 함
- 이는 현재 어린이 열람석 60% 감소라는 통계적 현실과 중장년층(30.4%)의 학부모 수요, 초등·청소년층(11.7%)의 방과후 이용 수요를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임

② 2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

- 어린이자료실 이전으로 확보되는 면적을 문헌정보실에 통합하여 381㎡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하고, 디지털 기능을 흡수하며 다문화 가족 특화 코너와 장승초등학교 방과후 연계 공간을 신설하는 방향이 요구됨

③ 3층을 통합 개방형 열람층으로 재구성

- 디지털자료실·노트북실·열람실의 기능 중복과 칸막이로 인한 공간 분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91㎡의 전체 면적을 통합 개방형으로 재구성해야 함
- 고정형 PC 중심에서 개인 기기·무선인터넷 기반 환경으로 전환하고, 집중 열람 구역과 개방 열람 구역을 공간 내에서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적합함
- 이는 이용자용 컴퓨터 67% 감소와 전자자료 급증이라는 통계 흐름에 직접 대응하는 방안임

④ 공원 연계 개방 동선 물리적 구현

- 장승다담공원(80m)과의 연계는 진접도서관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입지 자산임
- 1층 피로티와 도서관마당을 공원 방향으로 개방하고, 공원 산책 동선이 도서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유형 방문 환경을 구성해야 함
- 이는 비목적형 방문을 유도하고 잠재 이용자층을 실질적 이용자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⑤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통합 적용

- 진접읍 노년층(19.5%)이 이미 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령화 가속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

⑥ 지하 1층 현행 기능 유지

- 채광 부재와 계단 의존 이동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가족 이용자 · 고령자 · 장애인의 자립적 접근이 어렵고 장시간 체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이 낮은 지하 1층은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 기계전기실 · 보존서고 · 북카페 · 동아리방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함
- 이와 같은 여섯 가지 공간 재구성 방향은 이후 5장 리모델링 계획안의 층별 설계 방향과 공간 구성 전략에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특히 이용자 분석에서 도출된 이용자군의 공간 요구와 공간 이용 문제에서 확인된 구조적 과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진접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리모델링 방향을 정당화하는 실증적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음

04

공공도서관 사례분석

제1절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 방법

1 사례 선정 배경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 수립을 위한 실증적 참고 자료로서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간 전략 사례를 분석함
-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이용 환경은 디지털 전환, 이용자 생활양식 다변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대 증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다양한 공간 재구성 시도가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접도서관과 규모 · 조건 · 문제 상황이 유사하거나, 리모델링 · 신축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공간 전략을 적용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사례 선정 기준

- 사례 선정의 기준은 ① 규모 · 조건의 유사성, ②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략, ③ 지역사회 연계 및 이용자 유입 효과 가능성, ④ 복합시설 연계 및 지역 특화 전략 구현 여부를 고려함
- (① 진접도서관과의 규모 · 조건 유사성) 진접도서관은 기존 건물의 내부 공간 재배치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공간 전환 및 운영이 이루어진 사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다만 신축 사례의 경우에도 규모 · 입지 · 이용자 특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있거나, 공간 구성 및 운영 전략에서 참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 포함함
- (②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전략의 적용) 폐쇄적 자료실 중심의 기존 도서관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한 구체적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함
- (③ 지역사회 연계 및 이용자 유입 효과의 확인 가능성) 소규모 도서관이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비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를 유입한 성과를 정량적 ·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함
- (④ 복합시설 연계 및 지역 특화 전략의 구현) 공원 · 체육시설 등 인근 시설과의 연계 또는 지역 특화 테마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선정함
-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독산도서관, 동작도서관, 인제 기적의 도서관,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4개 사례를 선정함
- 독산도서관은 진접도서관과 가장 유사한 조건(소규모,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갖춘 사례로, 공간 리모델링 방법론 분석하고자 함
- 동작도서관은 33년 된 노후 도서관을 체류형 ·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한 최신 사례로, 디지털 라운지 및 오픈형 공간 전략을 분석하고자 함
- 인제 기적의도서관은 소규모 도서관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한 운영 전략 사례로, 이용자 유입 및 지역 연계 측면에서의 전략을 분석하고자 함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복합시설 연계와 지역 특화 테마를 결합한 사례로, 공원 및 외부 공간과의 연계 전략을 분석하고자 함

〈표 4-1〉 공공도서관 사례 선정 기준

사례	유형	선정 기준	선정 이유
독산도서관	리모델링	규모 · 조건 유사성	소규모 기존 건물 리모델링 — 진접도서관과 가장 유사한 조건. 공간 비워내기 · 밀도 조정 · 계단 체류공간화 등 리모델링 방법론 분석
동작도서관	리모델링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33년 노후 도서관 체류형 · 개방형 전환 최신 사례. 디지털라운지 · 오픈형 공간 전략 및 어린이 미디어체험존 분석
인제 기적의 도서관	신축	지역 연계 및 이용자 유입	소규모 신축 도서관 지역 명소화 전략. 개관 1년 누적 방문 15만 명. 이용자 유입 · 지역 연계 관점 분석
순천 어울림도서관	신축	복합시설 연계 · 지역 특화	복합시설(체육센터) 연계 + 3개 테마 특화 전략 → 공원 · 외부 공간 연계, 개방형 체류 공간 시사점 도출

- 사례 분석은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통된 분석 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함
- 각 사례는 ① 개요(시설명, 위치, 규모, 개관 및 리모델링 연도, 운영 주체), ② 조성 배경 및 목적, ③ 공간 구성 및 특화 전략, ④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⑤ 운영 성과, ⑥ 진접도서관 적용 시사점의 여섯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례 간 비교 가능성과 시사점 도출의 일관성을 확보함
- 특히 공간 재구성 방식과 이용자 체류 유도 전략,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자료 수집은 각 도서관의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관련 연구 문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 공신력 있는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용자 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정량 자료와 함께 공간 이용 방식,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적 정보도 병행하여 분석함
- 수치 자료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언론 보도, 이용자 반응, 온라인 후기 등을 참고하여 보완함으로써 분석의 현실성을 높임
- 아울러 문헌 및 데이터 기반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사례 도서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실제 공간 구성, 동선 체계, 이용 행태를 직접 관찰하였으며, 시설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병행하여 공간 운영 방식, 이용자 관리 전략,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수집함
- 특히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경우, 운영 담당자 인터뷰뿐 아니라 설계자 인터뷰를 추가로 수행하여 공간 구성 의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식, 개방형 구조 설계 배경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
- 이를 통해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계획 의도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진접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복합문화형 도서관 및 운영 사례

1 구립독산도서관

1) 개요

- 구립독산도서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4길 114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의 독서 · 학습 · 정보 이용 · 문화활동을 지원함
- 1999년 건립되어 노후화된 시설을 2020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금천체육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위치에 있음

〈표 4-2〉 구립독산도서관 건축 개요

항목	내용
시설명	구립독산도서관 (금천구립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4길 114
개관 · 리모델링	1999년 2월 개관 → 2020년 7월 31일 리모델링 후 재개관
운영 주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설계	임영환, 김선현 (디림건축사사무소)
부지면적/연면적	2,540㎡/2,205㎡
규모	지상 4층 (지하 없음)
좌석 수	464석
장서 수	총 12만여 권
건축 특징	중앙 아트리움, 천창 16개, 넓은 계단, 금천체육공원 인접
운영시간	자유열람실 07:00~22:00 종합자료실 · 독서라운지 평일 09:00~22:00 · 주말 09:00~17: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 주말 09:00~17:00
휴관일	매월 첫째 · 셋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출처: 독산도서관 홈페이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 조성(리모델링) 배경 및 목적

- 독산도서관은 1999년 개관 이후 약 20년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추진됨
- 리모델링 이전에는 서가 · 설비 · 각종 구조물이 시야와 공간 흐름을 차단하여 내부 공간이 어둡고 답답하게 인식되는 한계가 있었음
 - 중앙 아트리움, 로비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넓은 계단, 큰 창을 통한 주변 숲 조망 등 기존

건축물의 공간적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거나 대규모로 증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도서관이 가지고 있던 공간적 잠재력을 회복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이러한 접근은 시야와 동선을 가로막는 요소를 “비워내고”, 비워낸 만큼의 장서를 수용하기 위해 같은 면적 안에서 공간별 밀도를 재배치해 “채우는”, 비움-채움의 이분법적 전략임(임영환 · 김선현, 2020)
- 주출입구에서 뒷마당까지의 시선을 가로막는 요소를 비워내고, 불필요한 천장과 설비를 정리하여 공간의 흐름과 내부 밝기를 개선함
- 1층은 장서를 밀도 있게 배치하여 자료 수용 기능을 강화하고, 2층은 높은 책장을 제거하여 느슨한 열람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제한된 면적 안에서 장서 보관과 이용자 체류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진접도서관과의 유사성 측면에서, 독산도서관은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사례라는 점에서 진접도서관의 문제 상황과 높은 비교 가능성을 가짐
- 진접도서관 역시 기존 공간 안에서 기능 중복을 줄이고 이용자 동선과 체류공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산도서관의 리모델링 방식이 직접적인 참고 모델이 됨



[그림 4-1] 독산도서관 외관(좌) 및 내부(우)

3) 공간 구성 및 특화 전략: 여분 공간의 재해석과 인프라 리모델링의 현실

- 독산도서관 리모델링은 1990년대 말 준공된 노후 공공도서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계단실 · 강당 · 테라스 등 저이용 및 유휴공간을 개방형 문화 · 휴식 · 학습 공간으로 재구성한 사례임
- 리모델링 이전 도서관은 대형 강당, 강의실, 디지털 커뮤니티실, 폐쇄적인 계단실 등 교육 · 프로그램 중심의 전형적인 1990년대 공공도서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공간 간 단절과

기능 고정성이 뚜렷했음

-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공간을 축소·분해·재조합하여 계단, 테라스, PC실 등을 열린 라운지와 소모임,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용자의 체류와 자율적 활동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하였음
- 특히 계단실은 일부 벽체를 제거하고 마감과 조명을 개선하여 계단·복도·열람공간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머무르는 계단’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단순한 수직 이동 동선을 독서와 대화가 가능한 공공 라운지형 공간으로 확장하였음
- 옥외 테라스 또한 기존의 제한적 사용 공간에서 벗어나 콘센트와 가변형 가구를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공연, 야외 프로그램, 노트북 작업, 휴식이 가능한 개방형 외부 공간으로 전환되었음



[그림 4-2] 독산도서관 1-2층을 연결하는 머무르는 계단, 2층 독서라운지



[그림 4-3] 독산도서관 옥외테라스

- 디지털 커뮤니티실(PC실)은 장비를 철거하고 특정 기능을 규정하지 않은 유연한 오픈 라운지로 재구성되었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른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폐쇄적 디지털

공간을 해체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임

- 공간 구성은 층별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재조직됨
- 1층은 자료 이용, 어린이 서비스, 휴게 기능을 중심으로 로비, 카페테리아, 어린이자료실, 야외열람실 등을 배치하여 가족 단위 이용자가 한 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층은 독서라운지, 디지털존, 강의실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됨



[그림 4-4] 독산도서관 천창



[그림 4-5] 독산도서관 1층 안쪽 서고

- 3층은 자유열람실과 휴게실을 중심으로 조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층별 소음 수준과 이용 목적에 따른 기능 분리를 구현함
- 또한 1·2층을 연결하는 열람계단은 이동 동선을 체류공간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장치로 작동함
- 이러한 리모델링의 핵심은 “비움-채움” 전략에 기반함(임영환 · 김선현, 2020)
- 시야를 가로막던 구조물과 서가, 컨테이너 등을 제거하여 입구에서 후면까지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일 면적 내 장서 수용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 밀도를 재배치함

- 더불어 중앙 아트트리움 상부의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내부 깊숙이 유입시켜 공간감을 강화하고 인공조명 의존도를 낮추었으며, 야외열람공간을 도입해 실내외 독서 환경을 확장하였음
- 결과적으로 독산도서관은 기존 건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유희공간의 개방, 동선의 체류공간화, 자연환경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복합적 공공공간으로 재탄생함

〈표 4-3〉 독산도서관 공간구성 및 제공서비스

위치	구분	규모	주요 기능
1층	종합자료실	36석	개가제, 관외대출
	어린이자료실	70석	개가제, 관외대출, 아가방 · 책다방 운영
	야외열람실	36석	실외 열람공간
	이야기방	10석	모임 공간
	카페테리아	18석	간단한 식 · 음료 이용 공간
	로비	15석	이용자 휴게공간
1~2층	열람계단	55석	열람 및 휴게공간
1 · 2층	장애인코너	2석	독서확대기 구비
2층	독서라운지	70석	예술 · 언어 분야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열람
	디지털존	5석	인터넷, 원문 검색, 노트북 이용
	강의실	30석	교양강좌 및 문화행사
3층	자유열람실	104석	열람 및 학습 공간
	휴게실	13석	휴게 공간

출처: 독산도서관 홈페이지

4)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 독산도서관은 자료 열람 · 대출, 디지털 정보 이용, 자유열람,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양강좌, 문화행사, 소규모 모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
- 어린이 독서 · 창작 프로그램(「꼬마 정원사의 비밀책방」, 「그림책 탐험」 등), 가족 책놀이(4~5세 자녀와 부모 대상), 부모교육(「스스로 하는 아이를 만드는 긍정훈육」), 문화예술 행사(클래식 음악회), 환경 · 생활문화 체험, 문화다양성 교육 등 다양한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4-4〉 독산도서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2025~2026년)

구분	주요 프로그램	대상	운영공간
어린이 독서 · 창작	꼬마 정원사의 비밀책방, 그림책 탐험, 가을 찾아 떠나는 그림책 탐험대, 손소영 작가와의 만남	유아, 초등학생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역사 · 문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어린이, 가족	강의실
가족 책놀이	책놀이	4~5세 자녀와 부모	강의실
부모교육	부모교육: 스스로 하는 아이를 만드는 긍정훈육	유아 · 초등 자녀를 둔 부모	온라인, 강의실
문화다양성	하나의 지구, 문화 한 바퀴	초등학생, 성인	강의실
환경 · 생활문화	기후동행 패스포드 친환경 석고방향제 만들기	초등학생	강의실
문화예술	여름, 나무의 속삭임 클래식 음악회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	1층 로비 중앙계단

출처: 독산도서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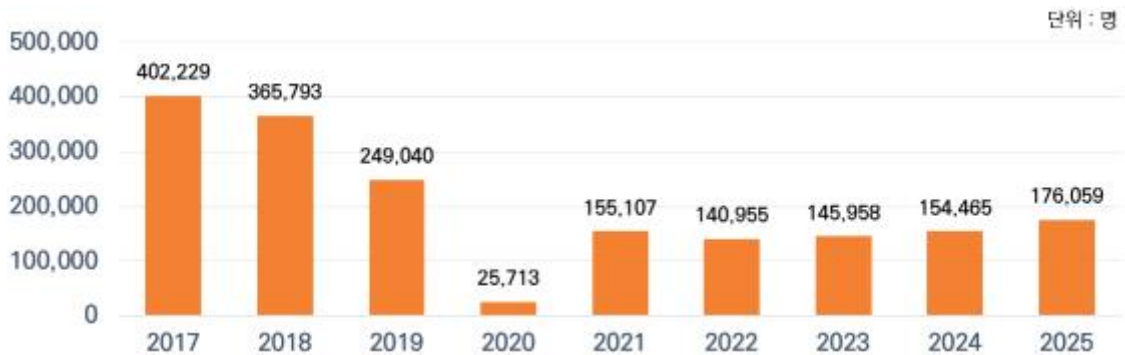
5) 운영 성과

- 리모델링 공사와 코로나19가 겹친 2020년 방문자가 25,713명으로 급감하였으나, 리모델링 완료 이후 2021년 155,107명에서 2025년 176,059명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또한 2025년은 리모델링 이후 가장 높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함

〈표 4-5〉 독산도서관 연도별 방문자 수 변화('17~'25)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방문자 수	402,229	365,793	249,040	25,713	155,107	140,955	145,958	154,465	176,059
증감	-	-36,436	-116,753	-223,327	129,394	-14,152	5,003	8,507	21,594



[그림 4-6] 독산도서관 연도별 방문자 수 변화(2017~2025년)

- 독산도서관의 회원 등록자 수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어린이 882명, 청소년 1,933명, 성인 42,643명으로 나타남
 -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회원 등록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성인 회원은 2022년 25,765명에서 2025년 42,643명으로 증가하여 이용자 기반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임
 - 반면 어린이·청소년 회원은 리모델링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가족친화형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규 이용자 유입이 필요함

〈표 4-6〉 독산도서관 연간 회원 등록자 수 추이('17~'25)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어린이	7,508	8,935	652	7,203	107	3,316	3,340	3,398	882
증감	-	1,427	-8,283	6,551	-7,096	3,209	24	58	-2,516
청소년	13,168	5,106	9,122	7,069	60	2,630	3,329	3,432	1,933
증감	-	-8,062	4,016	-2,053	-7,009	2,570	699	103	-1,499
성인	41,163	49,782	55,383	51,186	831	25,765	26,785	29,150	42,643
증감	-	8,619	5,601	-4,197	-50,355	24,934	1,020	2,365	13,493
합계	61,839	63,823	65,157	65,458	998	31,711	33,454	35,980	45,458
증감	-	1,984	1,334	301	-64,460	30,713	1,743	2,526	9,478



[그림 4-7] 독산도서관 연간 회원 등록자 수 추이('17-25)

6) 시사점

- 독산도서관은 리모델링 이후 방문자 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25년 176,059명으로 리모델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사례로, 기존 건축골격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보여줌
- 이를 바탕으로 ① 기존 건축골격 활용, ② 공간 밀도 차등배치, ③ 이동 동선의 체류공간화, ④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를 진접도서관에 적용 가능함
- (① 기존 건축골격 활용) 진입부 시야를 가로막는 천장·배관·서가 등을 비워내 시각축을 개방한 전략을 참고하여, 진접도서관도 구조 변경 없이 기존 자연채광·창가·로비 등 공간적 잠재력을 우선 파악 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② 공간 밀도 차등배치) 1층 장서 중심 고밀도 공간과 2층 느슨한 체류형 열람공간(통경축-서고-수직공간-상층의 4단계 밀도 구성)을 참고하여, 진접도서관은 1층 어린이·가족 통합공간(어린이자료+보호자 체류)과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에 밀도 차등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③ 이동 동선의 체류공간화) 계단을 단순 이동 동선이 아닌 열람·휴식 공간으로 전환한 전략을 참고하여, 진접도서관 로비·복도·창가 등 잔여 공간을 짧은 독서·대기·소통이 가능한 체류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④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 어린이자료실·이야기방·카페테리아·로비를 1층에 집중 배치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로로도서관과 어린이자료실을 통합하고 보호자 체류 및 가족 프로그램 공간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음

〈표 4-7〉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시사업 구분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기존 건축골격 활용	- 구조 변경 없이 내부 공간 비워내기 · 재배치로 접근 - 기존 자연채광 · 창가 · 로비 등 잠재력 우선 파악 후 활용
공간 밀도 차등배치	1층 장서+2층 체류형 조합(4단계 밀도 구성) →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공간 +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 설계에 적용
이동 동선 체류공간화	계단의 열람 · 휴식 공간 전환 전략 → 로비 · 복도 · 창가 등 잔여 공간을 짧은 독서 · 대기 · 소통 공간으로 활용
어린이 · 가족 공간 연계	어린이자료실 · 이야기방 · 카페테리아 · 로비 1층 집중 배치 → 보로로도서관+어린이자료실 통합, 보호자 체류 · 가족 프로그램 공간 연계

2

동작도서관

1) 개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노량진동)에 위치한 공공 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의 자료 이용 · 독서문화 활동 ·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교육 · 문화시설임
- 1991년 5월 6일 따뜻함을 품은 붉은 벽돌 건물로 개관한 동작구 공공도서관으로, 33년 만의 통합형 시설개선 및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2024년 7월 재개관함
- 리모델링을 통해 석면 해체, 내진 보강, 화장실 개선 공사는 물론, 전층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로 교체하여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수행함

〈표 4-8〉 동작도서관 건축 개요

항목	내용
시설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노량진동)
교통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6번 출구에서 73m
개관 / 리모델링	1991년 5월 6일 개관 → 2024년 7월 1일 리모델링 후 재개관
운영 주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지면적 / 연면적	1,721㎡ / 1,974㎡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좌석 수	291석
장서 수	도서 11만여 권, 비도서 5천여 점
건축 특징	붉은 벽돌 외관 / 디지털라운지 · 미디어체험존 · 카페테리아 · 야외테라스 · 전층 엘리베이터 신설
운영시간	종합자료실 평일 09:00~20:00 · 주말 09:00~17:00 자율학습실 · 노트북실 07:00~22:00 어린이실 평일 09:00~18:00 · 주말 09:00~17:00
휴관일	매월 둘째 · 넷째 금요일, 법정공휴일

출처: 동작도서관 홈페이지, 서울시 미디어허브



[그림 4-8] 동작도서관 외관

2) 리모델링 배경 및 목적

- 동작도서관은 1991년 개관 이후 33년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가 누적되고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지역주민이 머무르고, 학습하며,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형 독서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리모델링이 추진됨
- 리모델링 과정에서 디지털라운지, 디지털학습실, 어린이 미디어 체험존, 카페테리아, 야외테라스 등이 도입되어 자료 열람 · 디지털 정보 이용 · 개인 학습 · 어린이 체험 · 휴식과 체류로 기능이 확장됨
- 또한 노량진 인접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 · 취업 · 창업 관련 특화자료 지원관을 운영함
- 진접도서관과의 유사성 측면에서, 동작도서관은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진접도서관의 문제 상황과 직접적인 비교 가능성이 높음
- 진접도서관 역시 자료 열람 중심 공간을 디지털 이용 · 체류형 독서 · 어린이 체험 ·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동작도서관의 전환 방법론이 참고 모델 될 수 있음

3) 공간 구성 및 특화 전략: 소규모 · 고밀 이용 도서관의 카페형 · 프로그램형 전환

- 동작도서관은 연면적 약 2,000㎡ 규모의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지하철역에서 도보 1분이라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시험 준비, 자격증 학습, 학생 스터디 등 학습 수요가 집중되는 고밀 이용 시설임
- 2020년대 초 진행된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만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연장해 반지하 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공간 효율성과 이동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재구성이 이루어졌음

- 리모델링 이후 동작도서관은 전통적인 정숙 중심 열람공간에서 벗어나 카페형 · 프로그램형 · 커뮤니티형 도서관으로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음
- 1층에는 북카페형 라운지와 디지털 학습공간이 배치되고, 상층부에는 종합자료실, 자율학습실, 어린이 및 VR 공간, 동아리실 등이 구성되며 다양한 규모의 그룹 스터디 좌석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4-9] 동작도서관 1층 북카페형 라운지 및 디지털 학습공간

- 또한 사서 인력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만큼 프로그램 비중이 확대되었고, 동아리와 지역 모임 등 집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도서관은 개인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약 160석이던 학습 좌석이 약 97석으로 축소되고, 그 대신 라운지, 어린이 · VR 공간, 동아리실 등 복합 기능 공간이 확대되면서 학습 이용자들의 좌석 부족 문제가 심화됨
 - 이용 수요에 비해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시간 증가와 좌석 경쟁이 발생하고, 소음 · 냄새 · 환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민원도 빈번하게 제기됨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VR룸과 미디어 체험공간은 높은 이용률과 호응을 얻고 있지만, 활동성과 소음이 큰 특성상 정숙한 독서 · 학습 공간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 운영 측면에서는 인근 도서관과 휴관일을 분산하는 네트워크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림 4-10] 동작도서관 어린이실 및 미디어 체험존

- 지하 1층은 어린이실과 AR·VR·게임 등 미디어 체험공간을 결합한 공간으로, 자료 이용과 디지털 체험을 동시에 제공함
- 1층은 로비와 카페테리아, 디지털학습실을 중심으로 진입부에서의 체류와 휴식, 학습 기능을 담당하며, 2층은 종합자료실과 디지털라운지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의 핵심 공간으로 구성됨
- 3층은 자율학습실, 강의실, 다목적실과 야외테라스를 포함해 장시간 학습과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전체적으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공간을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체류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디지털 라운지와 공용 체류공간을 층별로 적절히 배치한 것이 주요 특징임

〈표 4-9〉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공간구성 및 제공서비스

위치	구분	규모	주요 기능
지하 1층	어린이실	36석	유아·초등학생용 도서, 어린이 잡지, 서양서, 상시 북큐레이션 자료 제공
	미디어 체험존	어린이실 내	AR, VR, 닌텐도게임 콘텐츠 체험
1층	로비(나무아래)	기타실 포함	이용자 휴게 및 체류공간
	카페테리아	기타실 포함	휴식 및 식음료 이용 공간
	디지털학습실(노트북실)	40석	개인 노트북 이용, 좌석발급 기반 학습공간
	안내실	-	이용 안내 및 도서관 서비스 지원
2층	종합자료실	48석	전 주제 도서, 참고도서 열람·대출, 자료검색, 복사 서비스
	특화자료코너	종합자료실 내	진로·취업 관련 특화자료 제공
	디지털라운지	21석	인터넷, 문서편집, 원문DB, 프린트·스캐너, DVD·간행물 이용
	보존서고	-	보존자료 관리
3층	자율학습실	45석	자율학습 및 장시간 학습공간
	강의실	42석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실	16석	소규모 프로그램 및 다목적 활동 공간
	정보자료과·행정지원과	-	도서관 운영 및 행정 지원
	야외테라스	-	휴식 및 외부 연계 체류공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홈페이지

4)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 어린이·가족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DAY」·「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등 가족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디지털·AI 분야 「나만의 캐릭터 이모티콘 만들기」·「AI가 표현한 세상」 등 디지털 창작 프로그램, 성인 대상 평생학습·건강·생활문화 프로그램, 독서동아리(「필사동아리 쓰담쓰담」·「책사랑 독서회」 등), 지역기관 협력 프로그램(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이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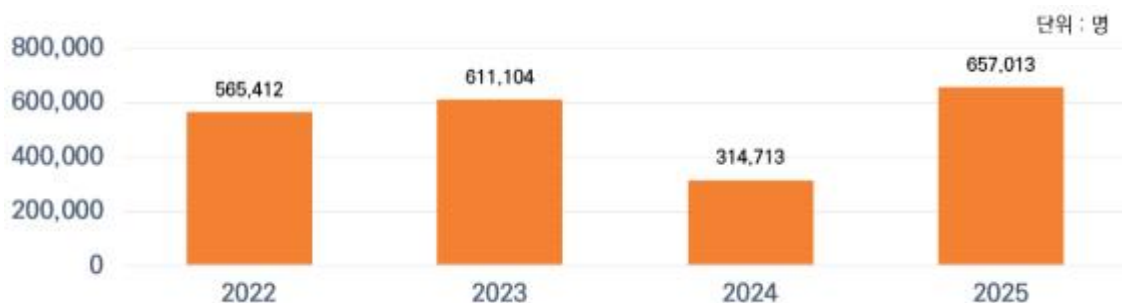
〈표 4-10〉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25~'26년)

구분	주요 프로그램	대상	운영공간
어린이·가족 독서문화	•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DAY,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친구와 함께하는 도서관 DAY, 어린이 도서관 학교	유아, 초등학생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디지털·AI 창작	• 나만의 캐릭터 이모티콘 만들기, 나만의 인스타그램 만들기, AI가 표현한 세상	어린이, 가족	강의실
진로·미래사회	• 2026 자녀교육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유행을 넘어 삶으로서의 달리기	4~5세 자녀와 부모	강의실
건강·생활문화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메디컬코칭, 공간에서 시작되는 변화	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온라인, 강의실
지역문화·인문	• 우리 지역 이야기, 미래로 있다, 기후위기와 AI	초등학생, 성인	강의실
독서 전문 인력 양성	• 행복독서코치 양성과정, 책놀이지도사 자격증 2급 과정	초등학생	강의실
독서동아리	• 필사동아리 쓰담쓰담, 책놀이 독서회, 책사랑 독서회, 꾸러기 독서회, 가온우리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	1층 로비 중앙계단
지역기관 협력	• 동작문학집 출간을 위한 작가의 레시피	작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홈페이지

5) 운영 성과

- 리모델링 이전 2022년 565,412명, 2023년 611,104명이었던 방문자 수가 공사 기간인 2024년 314,71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재개관 후 2025년 657,013명으로 리모델링 이전 수준을 넘어섬



[그림 4-1] 동작도서관 연도별 방문자 수 변화('22~'25)

〈표 4-11〉 독산도서관 연도별 방문자 수 변화('17~'25)

단위 :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방문자 수	565,412	611,104	314,713	657,013
증감	-	45,692	-296,391	342,300

- 회원 등록자는 2025년 어린이 1,903명, 청소년 4,045명, 성인 187,756명으로 리모델링 이전 수준을 상회함

〈표 4-12〉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연간 회원 등록자 수 추이(2022~2025년)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어린이	1,503	1,641	86	1,903
증감	-	138	-1,555	1,817
청소년	3,699	3,790	122	4,045
증감	-	91	-3,668	3,923
성인	178,466	180,838	2,780	187,756
증감	-	2,372	-178,058	184,976
합계	183,668	186,269	2,988	193,704
증감	-	2,601	-183,281	190,716

6) 시사점

- 동작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의 방문자 감소를 극복하고 재개관 이후 방문자 · 회원 등록자 모두 리모델링 이전 수준을 상회한 사례로, 노후 도서관의 체류형 · 개방형 전환 전략이 이용자 회복에 효과적임을 보여줌
- 이를 바탕으로 ① 디지털 라운지형 공간 전환, ② 체류형 공용공간 강화, ③ 어린이실 체험공간 결합, ④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진접도서관에 적용 가능함
- (① 디지털 라운지형 공간 전환) 기존 디지털자료실 · 노트북실을 전자자료 이용 · 개인기기 학습 · 디지털 창작이 가능한 통합 개방형 공간으로 재편한 사례를 참고하여, 진접도서관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 설계에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② 체류형 공용공간 강화) 로비 · 카페테리아 · 야외테라스의 체류형 공용공간 역할을 확장한 사례를 참고하여, 1층에 패밀리 카페존을 두고 공원과 연계되는 개방 동선을 마련하며, 로비 · 복도 · 창가를 짧은 독서 · 대기 · 휴식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③ 어린이실 체험공간 결합) 어린이실과 미디어체험존을 결합한 사례를 참고하여,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열람실 안에 영상 · 체험존을 신설하고 디지털 체험과 독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④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량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로 · 취업 특화자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진접읍의 중장년 학부모와 초등학교 수요를 반영한 특화자료와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표 4-13〉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시사업 구분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디지털 라운지형 공간 전환	• 디지털자료실 · 노트북실 → 전자자료 · 개인기기 · 디지털 창작 통합 공간 →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 설계에 적용
체류형 공용공간 강화	• 로비 · 카페테리아 · 야외테라스 → 1층 패밀리 카페존+공원 연계 개방 동선, 로비 · 복도 · 창가 체류공간 전환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노량진 진로 · 취업 특화자료 → 진접읍 중장년 학부모 · 초등학교 수요 반영 특화자료 · 프로그램

3 인제 기적의 도서관

1) 개요

-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52-7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으로, 어린이 · 가족 중심의 독서문화 서비스와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지역 명소형 도서관임
- 인제읍 상동리 일원 연면적 2,996㎡에 지하 1층 · 지상 2층 규모로 국 · 도비 55억원 등 총 사업비 146억여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9년 착공하여 2023년 6월 28일 정식 개관함
- 지하 1층 · 지상 2층 원통형 구조로 지하와 지상 2개 층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도록 한 설계가 특징이며, 입구에 들어서면 3개 층 도서관 대부분이 한눈에 들어오는 개방형 구조임

〈표 4-14〉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축 개요

항목	내용
시설명	인제 기적의 도서관 (전국 17번째 · 강원도 최초 기적의 도서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52-7
개관	2023년 6월 28일 (임시개관: 2023년 6월 18일)
운영 주체	인제군
설계	이상윤 · 박세희 (지안건축) + ADL 협업
시공	(주)대현종합건설
부지/건축/연면적	9,993.70㎡/2,225.71㎡/2,996.40㎡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원통형 구조)
총 사업비	146억여 원 (국 · 도비 55억 포함)
좌석 수	188석
장서 수	약 25,000~30,000권
건축 특징	원통형 개방 구조, 지하 · 지상 전층 시야 개방 연결, 인제 전통가옥 모티브 외관
운영시간	자료실 · 일반열람실 09:00~22:00 / 어린이실 09:00~18:00
휴관일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출처: 인제 기적의 도서관 홈페이지, 강원도민일보, 서울경제, VMSPACE



출처: https://magazine.brique.co/article/today-library_inje-miracle-library/

[그림 4-11] 인제 기적의 도서관 외관

2) 조성(리모델링) 배경 및 목적

- 인제군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제한된 군 단위 지역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책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조성이 요구됨
- 도서관을 단순 자료 열람시설이 아니라 어린이 · 가족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됨
- 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공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자연녹지공원 · 오픈 열람실 · 어린이 열람실 · 평생교육실 · 계단형 열린극장 · 군인휴게실 등을 계획하여 독서 · 교육 · 휴식 · 문화활동이 결합된 지역 거점공간으로 구현함
-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신축 도서관으로 물리적 조건은 다르나 도서관을 어린이 · 가족 · 지역주민이 함께 머무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했다는 점, 이용자 유입 전략의 관점에서 진점도서관 리모델링 방향성과 유사성을 가짐

3) 공간 구성 및 특화 전략: 지역 서사를 품은 복합 문화도서관

-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기본적인 자료 제공 기능을 넘어 음악, 미술, 미디어아트, 지역 문화 체험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형 도서관으로 기획된 사례임
- 열람공간과 공연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음향과 동선 계획을 통해 소리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소음이 아닌 함께 향유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점이 특징임
- 이는 도서관을 정숙 중심 공간에서 공연 · 체험 · 학습이 공존하는 공유형 공공공간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공간 운영은 “책+공연+미디어+전시+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구조를 지향하며, 다양한 목적형 공간과 가변형 운영 전략이 적용됨
- 동아리방은 음악 스튜디오, 미술 스튜디오 등으로 특화되어 색채와 가구가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고, 이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의 공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됨



[그림 4-2] 인제 기적의 도서관 열람공간



[그림 4-3] 인제 기적의 도서관 동아리방

- 또한 유리 파티션을 활용해 개방성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기존 라운지 공간을 미디어 상영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공간을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운영 방식이 특징적임
- 사랑채, 다목적실, 미디어 공간 등은 강연, 요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가변형 공간으로 활용됨

- 건축적으로는 원형 메인홀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구조와 노출 콘크리트, 전통 한옥의 공존이 핵심 특징임
- 중앙의 원형 공간은 어느 방향에서든 열린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이용자를 환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원형 복도는 사람과 소리의 흐름을 완충하는 역할을 함
- 특히 약 200년 된 전통가옥을 복원한 사랑채는 현대 건축과 결합되어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됨
- 또한 천창과 태양광, 차양 시스템을 통해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에너지 효율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함
-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인제의 자연과 역사, 문학을 공간 속에 녹여낸 지역 서사 기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임
- 미디어 코너(인제니아)와 미디어아트 공간에서는 설악산, 자작나무 숲 등 지역 자연환경과 역사 콘텐츠를 영상과 전시로 제공하며, QR코드를 통해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정보 접근 기능도 수행함
- 이러한 구성은 도서관을 지역과 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확장시키며, 박인환 문학관, 산촌민속박물관 등과 연계된 문화벨트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개관 과정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공간 기획에 참여하여 동아리방 구성과 디자인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참여의 흔적은 공간 곳곳에 남아 있음



[그림 4-4]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형 공간 출입구



[그림 4-5] 인제 기적의 도서관 사랑채



[그림 4-6] 인제 기적의 도서관 미디어아트 및 미디어코너(인제니아)



[그림 4-7] 인제 기적의 도서관 개관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흔적



출처: 네이버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가공

[그림 4-8] 인제 기적의 도서관, 박인환문학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배치도

- 도서관은 독서 뿐 아니라 공연 관람, 휴식, 대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며, 특히 어린이와 가족 이용자를 고려해 온돌 마감, 낮은 서가, 수유실, 평상형 공간 등을 도입하여 생활형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함
- 색채와 재료, 가구 계획에서는 지역 상징인 주목에서 착안한 짙은 녹색을 주요 색채로 활용해 안정감 있는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고, 저채도 색상을 적용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함



[그림 4-9] 인제 기적의 도서관 제작 가구 및 천창

- 가구는 대부분 맞춤 제작되어 다양한 앉기 방식과 이용 행태를 수용하며, 바닥에 앉거나 기대는 등 자유로운 자세를 허용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방식의 확장을 유도함
- 장서 운영 측면에서는 서가 수를 제한하고 장서를 순환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간을 책 보관보다 이용 경험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는 “공간이라는 그릇이 바뀌면 도서관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인식 아래, 도서관을 문화 · 체험 · 지역 서사를 담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운영 철학을 반영함
- 공간 구성은 1층에 어린이와 가족, 체류 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열린계단과 열린극장, 사랑채, 미디어아트실 등을 통해 체류성과 문화활동을 강화하였음
- 2층은 인제 특화 콘텐츠 공간과 종합자료실, 음악 · 미술 스튜디오, 프로그램실 등 창작과 교육 기능 중심으로 구성됨
- 전체적으로는 어린이 · 가족 중심 저층 배치, 체류형 공간 강화, 지역 특화 콘텐츠 도입, 미디어와 창작 기능 확장을 통해 복합 문화도서관 모델을 구현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4-10] 인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표 4-15〉 인제 기적의 도서관 공간구성 및 제공서비스

위치	구분	주요 기능
1층	안내데스크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이용자 편의 지원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자료 열람,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열린계단	계단식 열람공간, 휴식 및 체류공간
	열린극장	공연, 휴식, 소규모 행사 운영
	사랑채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미디어아트실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
	휴게실	휴식, 놀이, 간단한 취식이 가능한 자유로운 체류공간
2층	인제니아	생태·문화, 교과서 속 인제, 문학, 평화 등 인제 특화콘텐츠 제공
	종합자료실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언어, 문학, 역사 분야 도서 제공
	뮤직 스튜디오	음악 감상 및 음악 작업 공간
	아트 스튜디오	미술 창작, 만들기, 예술 활동 공간
	Media·EBS	EBS 콘텐츠 기반 정보 검색 및 학습 공간
	프로그램실	독서·글쓰기·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실	모임, 토론, 동아리 활동 지원

출처: 인제 기적의 도서관 홈페이지

4)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 영유아·보호자 대상으로 「미라클+북스타트」·「북스타트 플러스」·「북스타트 보물상자」, 어린이 대상 그림책 읽어주기·독후 만들기·가족 책놀이, 청소년 대상 「인제UP자 청소년 인문학 특강」(필사·색채·기후위기 교육), 성인·지역주민 대상 명사초청특강(품위 있는 삶, 메모의 기술 등), 아트 스튜디오 활용 문화예술 체험·전시 연계 강연이 운영됨

〈표 4-16〉 인제 기적의 도서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2025~2026년)

구분	주요 프로그램	대상	운영공간
청소년 인문·성장	인제UP자 청소년 인문학 특강: 청소년 필사족생, 청소년 색족생, 청소년 순환족생	관내 청소년, 청소년 보호자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어린이·가족 공연	종이컵 인형극 「그것 참 좋다!」, 그림책 작가 1인극	유아·초등 어린이 가족	강의실
영유아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북스타트 보물상자 I·II, 미라클+북스타트	영유아 및 보호자	강의실
어린이 독서·체험	그림책 읽어주기, 독후 만들기, 가족 책놀이	영유아, 초등학생, 보호자	온라인, 강의실
문학·작가 프로그램	「그림책 작가개! 1인극」, 김중혁 작가와의 만남, 명사초청특강	어린이 가족, 인제군민	강의실
문화예술 체험	김석환 작가와 떠나는 미술 여행, 이해경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 소풍, 나만의 어린왕자 그리기	초등학생, 성인	강의실
명사초청·인문학	유성호 교수 「품위 있는 삶과 죽음」, 홍범석 특강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인제군민, 지역주민	1층 로비 중앙계단
지역·생활문화	기후위기 대응 생활용 교육, 인제 지역 문화·예술 연계 강연	청소년, 지역주민	동작여성인력개발 센터
문화공연·전시	2025 Special Exhibition, 전시 연계 문화예술강연	어린이, 성인, 지역주민	아트 스튜디오, 전시공간

출처: 인제 기적의 도서관 홈페이지

5) 운영 성과

- 개관 6개월 기준 방문 이용자 45,000명 돌파, 2025년 누적 방문객 약 18만 명, 2025년 기준 누적 방문객 약 18만 명을 기록함
- 도서 대출 이용자 13,069명, 프로그램 참여자 3,285명이었으며, 전국 152개 지자체 · 단체에서 2,861명이 견학하였음
- 또한 제9회 한국문화공간상 도서관 부문에 선정되어 공간 디자인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음

6) 시사점

- 인제 기적의 도서관은 개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약 18만 명을 기록하고, 전국 152개 지자체 · 단체의 견학과 제9회 한국문화공간상 수상으로 공간 디자인과 운영 성과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명소형 복합문화도서관 전략의 효과를 뒷받침함
- 이를 바탕으로 ① 어린이 · 가족 공간의 중심화, ② 방문 목적이 되는 특화공간 조성, ③ 주민 참여 설계, ④ 지역 특화콘텐츠 반영을 진접도서관에 적용 가능함
- (① 어린이 · 가족 공간의 중심화) 1층에 어린이자료실 · 열린계단 · 열린극장 · 휴게실을 연계 배치한 사례를 참고하여, 진접도서관은 1층에 어린이 · 가족 통합열람실을 둠
- (② 방문 목적이 되는 특화공간 조성) 열린극장 · 미디어아트실 · 창작 스튜디오와 같이 콘셉트가 분명한 체험 · 문화형 공간을 참고하여, 진접도서관에도 이용자가 일부러 찾아올 만한 체험 · 문화형 특화공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③ 주민 참여 설계) 지역주민 · 청소년 기획단 워크숍 기반 설계 사례를 참고하여, 리모델링 전에 이용자 설문조사와 주민 워크숍을 실시해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 (④ 지역 특화콘텐츠 반영) 지역 특화콘텐츠를 모은 인제니아 공간을 참고하여, 진접읍 생활권 특성과 가족 단위 수요, 지역 문화 자원을 반영한 특화자료 ·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표 4-17〉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시사업 구분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어린이 · 가족 공간 중심화	• 1층에 어린이자료실 · 열린계단 · 열린극장 · 휴게실 연계 배치 →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열람실 구축
방문 목적 특화공간 조성	• 열린극장 · 미디어아트실 · 창작 스튜디오 등 콘셉트가 명확한 공간 → 진접도서관도 방문 목적이 되는 체험 · 문화형 특화공간 도입 검토
주민 참여 설계	• 지역주민 · 청소년 기획단 워크숍 기반 설계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전 이용자 설문 및 주민 워크숍 실시 방식 참고
지역 특화콘텐츠 반영	• 인제니아 지역 특화콘텐츠 공간 → 진접읍 생활권 특성 · 가족 단위 수요 · 지역 문화 자원을 반영한 특화자료 ·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정체성 강화

4

순천 어울림도서관

1) 개요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전라남도 순천시 동천저류지길 37 어울림센터에 위치한 순천시의 9번째 시립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의 독서 · 학습 ·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형 공공도서관임
- 홍수 피해 방지 시설인 동천변 저류지 연못(둑병) 위에 어울림체육센터와 함께 건립된 곳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현상설계를 통해 신축된 순천어울림센터는 외관의 초록색 테라코타 루버, 저류지 상부라는 독특한 위치로 외관부터 사이트의 조건까지 순천의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고 있음

〈표 4-18〉 순천 어울림도서관 건축 개요

항목	내용
시설명	순천 어울림도서관 (순천시 제9호 시립도서관)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동천저류지길 37 어울림센터 (오천 · 풍덕지구)
개관	2024년 10월 2일 (시범운영: 2024년 9월 12~22일)
운영 주체	순천시
설계	메이트 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시공	(주)후광건설
부지면적 / 연면적	31,109㎡ / 3,346㎡
규모	지상 3층 (저류지 상부 특수 입지, 어울림체육센터 연계)
좌석 수	163석
전자자료	약 400만 종 전자자료 서비스
건축 특징	테라코타 루버 외관, 저류지(둑병) 상부 복합건립, 벽 없는 개방형 내부, 3개 테마(애니메이션 · 정원 · 우주항공) 특화
운영시간	월~일요일 09:00~22:00
휴관일	매월 첫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출처: 순천 어울림도서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G.ECONOMY, 메이트 아키텍트



[그림 4-12] 순천 어울림도서관

2) 조성 배경 및 목적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홍수 피해 방지 시설인 동천변 저류지 위에 어울림체육센터와 함께 조성된 복합 공공시설 내 도서관으로, 도서관 기능과 체육·문화·휴식 기능을 생활권 내에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됨
- 기존의 자료 열람 및 대출 중심 도서관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 공간·디지털 서비스·전시·공연·야외도서관 운영 등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형 도서관으로 조성됨
- 특히 애니메이션·정원·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특성화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순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자료 구성과 공간계획에 반영함
- 벽을 통한 강한 공간 구획을 지양하고 공간 간 경계를 완화하여 시야가 확장되는 열린 도서관을 지향함

3) 공간 구성 및 특화 전략: 디지털·개방형 구조와 경험 기반 유니버설디자인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생활 SOC 복합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된 도서관으로, 저류지 상부 필로티 구조 위에 체육센터와 함께 입지한 복합시설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공간 조건을 가짐
-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도서관을 단독 이용 시설이 아니라, 체육·여가·청년 활동과 연계된 복합 이용 거점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 됨
- 특히 체육센터, 옥상 그린광장, 인접한 청년비전센터(조성 중)와의 연계 속에서 도서관은 '목적 방문'뿐 아니라 '경유형 이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개방형 공간 구성과

체류 중심 설계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함



출처: 카카오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가공

[그림 4-11]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어울림도서관, 청년비전센터(조성 중) 배치도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디지털 · 자동화 기능이 강화된 도서관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무인 대출 · 반납 시스템과 검색 키오스크, 전자정보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검색, 열람, 휴식, 디지털 이용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구현된 사례임
- 설계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전면적으로 표방하기보다, 다양한 이용자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법적 BF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환경을 구현하함
- 즉,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넘어 이동, 체류, 시각 경험, 이용 밀도까지 고려한 ‘확장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구현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은 ‘최소 기준 충족’이 아니라 ‘여유 있는 공간 확보’에 초점을 두고, 복도 폭과 서가 간격,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긴 책상이나 밀집 서가를 배제하여 이용자 간 적정 거리와 선택 가능한 좌석 환경을 제공함
- 이러한 구성은 어린이,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체류 방식(독서, 휴식, 대화, 디지털 이용)을 포용하는 구조를 구축함
- 또한 자료실, 열람공간, 휴게공간, 디지털 이용 공간 간의 경계를 최소화하여 하나의 열린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함



[그림 4-13] 순천 어울림도서관 어울마당

- 이는 전통적인 기능 분리형 도서관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해석됨
- 개방형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차단이 아닌 ‘조절의 대상’으로 다루어짐
- 완전히 닫힌 공간 대신, 천장 높이 변화, 공간 폭, 가구 배치, 좌석 밀도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조용한 영역과 활동 영역을 인지하도록 하는 ‘심리적 경계’를 형성함
- 더불어 운영 측면에서는 안내문, 좌석 단위 규칙 제시 등 비강제적 방식으로 이용자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약 2년에 걸쳐 ‘중간 수준의 소음 질서’를 정착시킴
- 이러한 전략은 물리적 차단 없이도 집중과 개방이 공존하는 환경을 형성한 사례로, 개방형 도서관과 정숙 요구 사이의 균형을 운영과 공간 설계가 함께 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어린이 공간은 이용 행태를 반영한 안전 중심 설계가 두드러짐
- 곡선형 가구, 낮은 서가, 넓은 동선을 통해 충돌 위험을 줄이고 자유로운 움직임과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인터랙티브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하여 체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함



[그림 4-14] 순천 어울림도서관 어린이 공간

- 조명 계획은 직부등을 최소화하고 간접조명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눈부심과 반사를 줄이고 시각적 피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둠

- 이러한 빛 환경은 순천의 ‘정원’과 ‘자연’ 이미지를 반영하여 숲속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동시에, 장시간 체류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
- 공간 디자인은 지역성과 특성화 주제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모티브로 한 루버 벽, 층별 색채와 재료 변화, 유리블록과 천장 디자인 등은 공간 경험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용자가 ‘자료실’이 아닌 ‘주제 경험 공간’으로 도서관을 인식하도록 함
- 특히 애니메이션, 우주 · 정원이라는 3대 특성화 주제는 단순한 장서 구성이 아니라, 층별 공간 이미지, 조명, 가구,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까지 통합적으로 반영되어 ‘주제-공간-경험’이 일체화된 구조를 형성함
- 1층은 유아자료실, 수유실, 애니메이션 특화 공간, 디지털 체험 콘텐츠 등을 포함한 어린이 · 가족 중심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돌봄과 이용이 통합된 환경을 제공함
- 2층은 일반자료실과 디지털라운지, 전자자료 이용 공간, 성인 열람공간, 집중열람실, 미디어 창작실, 그리고 개방형 중심 공간인 어울마당을 포함하는 핵심 층으로, 자료 이용과 디지털 활동, 체류와 소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
- 특히 계단형 열람공간은 개방형 구조 속에서도 높은 집중도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선호 공간’으로 기능함



[그림 4-15] 순천 어울림도서관 우주 · 정원 테마 공간



[그림 4-16] 순천 어울림도서관 계단형 열람공간

- 3층은 정원 · 생태 주제 공간과 함께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강당,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 커뮤니티 활동, 문화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층임
- 전체적으로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개방형 체류공간, 집중 열람공간, 디지털 창작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면서도 시각적 ·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어울마당과 같은 중심 공간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함
- 동시에 복합시설 입지와 연계 이용 구조를 반영하여 ‘머무르고 경험하는 도서관’으로 계획된 점이 특징임
- 이는 디지털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특성화 주제, 복합시설 연계를 통합한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 모델로, 장서 중심 도서관에서 경험 · 체류 중심 도서관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4-17] 순천 어울림도서관 디지털 창작공간(우), 장애인 독서보조기구

〈표 4-19〉 순천 어울림도서관 공간구성 및 제공서비스

위치	구분	소장자료 / 주요 내용	제공서비스
1층	자료실 1	애니메이션, 디지털북(루카, AR책 등)	자료 열람,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체험, 디지털북 체험, 전시
	힐링정원	휴식 및 야외 연계 공간	휴식, 야외 독서 및 연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
2층	자료실 2	기관 추천도서, 정원, 우주항공, AI, 독서취약자 도서(큰글자도서, 점자도서)	자료 열람, 전시, 독서보조기기 비치
	디지털 라운지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신문, 전자잡지), VOD 콘텐츠(웨이브온)	정보서비스 이용(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전자자료 열람, VOD 서비스, 디지털갤러리, 실감형 콘텐츠 체험
3층	강당	문화행사 공간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 운영 공간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실 2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공간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실	독서공동체 활동 공간	독서동아리 활동

출처: 순천 어울림도서관 홈페이지

4) 이용자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 웹툰 분야 「처음 시작하는 웹툰」 · 「어울림 애니메이션 데이」 · 「어울림 애니메이션 음악회」, 우주항공 분야 「날아라! 어울림 우주 로켓단」 · 「엑소 쌤과 함께하는 우주 대탐험」, 정원 · 생활문화 「초록초록 홈가드닝 클래스」, 디지털 창작 「움직이는 이모티콘 교실」, 가족 체험 「나의 가족 팝업북 만들기」, 독서공동체 「어울림SF 북클럽」 등 3개 특화 테마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

〈표 4-20〉 순천 어울림도서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2025~2026년)

구분	주요 프로그램	대상	운영공간
애니메이션 · 웹툰	처음 시작하는 웹툰, 웹툰 원데이 클래스, 닥터 베르의 웹툰 작가 ABC, 어울림 애니메이션 데이, 어울림 애니메이션 음악회, 도서관 시네마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순천시민	프로그램실2, 다목적강당
우주항공	날아라! 어울림 우주 로켓단 2 · 3기, 엑소 쌤과 함께하는 우주 대탐험, 탐험 시작! 종이로 만드는 우주선, 로켓 아이 김민우 작가와의 만남	초등학생,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실1
정원 · 생활문화	초록초록 홈가드닝 클래스	성인, 일반 시민	프로그램실1
예술 · 치유	힐링 명화 에세이	성인, 일반 시민	다목적강당
디지털 창작	움직이는 이모티콘 교실	어린이 · 청소년, 일반 시민	프로그램실2
가족 체험	나의 가족 팝업북 만들기	어린이 · 가족	프로그램실1
독서공동체	어울림 SF 북클럽	성인, 주제 독서 관심 이용자	동아리실

출처: 순천 어울림도서관 홈페이지

5) 운영 성과

- 시범운영 기간(2024년 9월 12~22일, 10일간) 이용자 수 1만 명 돌파하였으며, 개관 이후 1년간 약 20만 명 방문, 90개 기관 · 단체에서 1,500여 명이 방문함
- 약 400만 종의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순천시 전체 도서관 이용자 수가 2022년 69만 명에서 2024년 100만 8천 명으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신규 복합문화형 도서관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6) 시사점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시범운영 10일 만에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하고 개관 1년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복합시설 연계와 특화 테마 전략의 효과를 보여준 사례로, 신축 복합문화도

서관 모델의 실효성을 뒷받침함

- 이를 바탕으로 ①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 강화, ② 디지털 라운지형 전환, ③ 개방형 체류공간 조성, ④ 특화 주제·프로그램 연계를 진접도서관에 적용 가능함
- (①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 강화) 유아자료실·유아열람석·수유실을 인접 배치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로로도서관과 어린이자료실을 재구성해 어린이 자료 이용·보호자 대기·가족 체류와 체험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 (② 디지털 라운지형 전환) 디지털라운지·미디어창작실·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한 구성을 참고하여, 디지털자료실과 노트북실을 전자자료·개인기기 학습·디지털 창작이 함께 가능한 복합 디지털 라운지형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③ 개방형 체류공간 조성)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가진 어울마당 사례를 참고하여, 문헌정보실 주변부와 로비·창가 공간을 짧은 독서와 휴식,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④ 특화 주제·프로그램 연계) 여러 테마의 특화 자료실과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진접읍 이용자 특성(가족·어린이·평생학습)에 맞는 특화자료·프로그램을 공간계획과 연동할 필요가 있음

〈표 4-21〉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시사업 구분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	• 유아자료실·유아열람석·수유실 인접 배치→ 보로로도서관+어린이자료실을 어린이 자료 이용·보호자 대기·가족 체류·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 공간으로 재구성
디지털 라운지형 전환	• 디지털라운지+미디어창작실+실감형 콘텐츠→ 진접도서관 디지털자료실+노트북실을 전자자료·개인기기·디지털 창작 복합 공간으로 전환
개방형 체류공간 조성	• 어울마당 개방형 체류공간→ 문헌정보실 주변부·로비·창가를 짧은 독서·휴식·소통 가능한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
특화 주제·프로그램 연계	• 3개 테마 특화 자료실+연계 프로그램 운영→ 진접읍 이용자 특성(가족·어린이·평생학습)에 맞는 특화자료·프로그램 공간계획과 함께 수립

제3절 시사점

- 4개 도서관 사례를 종합하면, 공간 재배치를 통한 체류공간 확보, 어린이·가족 이용자 중심의 저층부 구성, 디지털·창작 기능의 라운지형 통합,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네 가지 방향이 신축·리모델링 여부나 규모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확인됨
- 이러한 전략적 방향은 운영성과 측면에서도 뒷받침됨
 - 독산·동작도서관은 리모델링 이후 방문자 수가 점진적으로 회복·증가하였으며, 특히 동작도서관은 재개관 후 방문자와 회원 등록자가 리모델링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음
 - 인제 기적의 도서관과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개관 직후 빠른 방문자 유입과 함께 전국 단위의 견학·수상 등 외부 인지도를 확보하였음
 - 이는 공간 재구성과 특화 전략이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자 유입과 운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아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는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에도 직접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3장에서 확인된 어린이 공간의 분산 배치, 기능 중복, 공원 연계 동선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는 사례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온 과제와 일치함
- 따라서 진접도서관 역시 동일한 방향성 위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사례 적용에는 우선순위와 선택적 수용이 필요함
- 신축 또는 복합시설 연계로 추진된 인제 기적의 도서관과 순천의 어울림도서관의 사례는 콘텐츠와 운영 전략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기존 건물의 내부 재배치만으로 추진되는 진접도서관의 여건상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며 공간을 재구성한 독산·동작의 방법론이 가장 직접적인 참고 모델이 됨
- 또한 지역 특화 콘텐츠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각 사례의 고유한 지역 자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진접도서관은 인제·순천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장승다담공원과 장승초등학교라는 진접읍 고유의 입지 자산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4-22〉 독산도서관 · 동작도서관 ·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순천 어울림도서관 사례 분석을 통한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 도출

구분	독산도서관	동작도서관	인제 기적의 도서관	순천 어울림도서관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활용 방향
사례 성격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신축 개관 도서관	신축 개관 도서관 / 복합시설 연계	독산도서관 · 동작도서관은 공간 리모델링 방법론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순천 어울림도서관은 공간 컨셉트와 운영 전략 중심으로 참고
복합시설 연계	기존 아트리움, 계단, 창가 등 공간 잠재력을 회복하여 개방감 개선	노후 도서관을 철거하지 않고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기능 전환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 정체성 형성	복합시설 내에서 도서관 · 문화 · 휴식 기능 연계	기존 로비, 복도, 창가, 중간 동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효율과 개방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기존공간 재해석	기존 아트리움 · 계단 · 창가 등 공간 잠재력을 회복하여 개방감 개선	노후 도서관을 철거하지 않고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기능 전환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 정체성 형성	복합시설 내에서 도서관 · 문화 · 휴식 기능 연계	기존 로비, 복도, 창가, 중간 동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효율과 개방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체류형 · 개방형 공간 조성	열람계단 · 독서라운지 · 야외열람실로 체류공간 확보	로비 · 카페테리아 · 야외테라스로 독서 · 공연 · 휴식 기능 결합	열린계단 · 열린극장 · 휴게실로 체류공간 조성	어울마당과 열람테이블 중심의 개방형 체류공간	자료실 · 열람실 외에 짧은 독서, 보호자 대기, 휴식, 소통이 가능한 공용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 · 가족 이용 강화	어린이자료실 · 이야기방 · 카페테리아 · 로비 연계 배치	어린이실+미디어체험존 결합	어린이자료실 · 열린극장 · 휴게실 연계로 가족 방문 유도	유아자료실 · 수유실 · 체험형 공간을 저층부에 배치	보로로도서관과 어린이자료실을 연계하여 독서 · 놀이 · 체험 · 보호자 체류 · 가족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 체험 기능 확대	디지털존을 통해 정보검색 · 노트북 이용 지원	디지털라운지 · 디지털학습실 · 미디어체험존 운영	미디어아트실 · Media · EBS 등 디지털 콘텐츠 체험공간 운영	디지털라운지 · 미디어창작실 · 실감형 콘텐츠 체험 운영	디지털자료실과 노트북실을 전자자료, 개인기기 학습, 온라인 강의, 디지털 창작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지역 특화와 프로그램 연계	생활밀착형 독서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 · 취업 특화자료와 디지털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제 특화콘텐츠와 문화예술 · 명사특강 프로그램 운영	애니메이션 · 정원 · 우주항공 테마와 프로그램 연계	진접 지역의 이용자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료 ·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개관 이후 지속적 운영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운영 성과	방문자 점진적 회복(‘25년 176,059명 최고치), 2024 서울시 우수도서관 선정	재개관 후 방문자 · 회원 모두 리모델링 이전 수준 상회(‘25년 657,013명)	개관 1년 누적 18만 명, 전국 152개 기관 견학,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시범운영 10일 1만 명, 개관 1년 약 20만 명 방문	리모델링 이후 방문자 · 회원 회복과 지역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개관 이후 운영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후속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05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안

제1절 리모델링 기본 방향 및 전략

1 리모델링 기본 방향

- '이용자 중심성'은 현재 진접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태를 사후적으로 서술하는 개념이 아니라, 향후 유입되어야 할 비이용자 · 예비 이용자와 미래 이용자의 잠재 수요를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관점을 의미함
 - 따라서 이용자 분석의 목적은 '현재 누가 오는가'보다는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에 있으며, 연령 · 인구 구조는 유입 대상 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1차 렌즈로 활용함
 - 실제 공간계획의 직접적 근거는 각 유입 대상이 도서관에서 나타내는 이용 목적과 생활행태(방문 목적, 동반 형태, 체류 시간, 활동 유형, 소음 수준, 디지털기기 이용 여부 등)이며, 연령 · 신체 조건은 이러한 행태 유형을 세분화하는 보조 기준으로 설정함
 - 이때 유니버설디자인은 별도의 부가적 설계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를 배제 없이 수용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계획의 기본 원리이자 계획안의 검증 기준으로 적용함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의 방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성장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거점"임
 - 진접도서관은 개관 이후 10년 이상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공간 기능이 현재 이용 환경과 맞지 않는 요소들이 점차 축적되어 옴

- 이에 따라 본 리모델링 방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2장 이용자 분석과 3장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임
- 독산도서관과 동작도서관의 소규모 기존 건물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 인제 기적의 도서관의 지역 명소화 전략,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테마 특화 운영 방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접도서관만의 차별화된 공간 재구성을 추진하고자 함
- 공간 재편은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지하 1층은 현행 기능을 유지하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에 맞추어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함
- 진접도서관은 가족 · 아동 · 중장년 · 노년층 수요가 두텁고 청년층 유입 과제가 뚜렷한 인구 구조와 우수한 입지, 그리고 노후한 시설 현황을 종합할 때 리모델링 필요성이 도출됨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인구 구조, 입지 환경, 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확하게 나타남
 - 인구 구조 측면에서 중장년층(35~54세)이 30.4%를 차지하며, 학부모이자 개인 열람 이용자로써의 이중 수요가 존재해 가족 단위 방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초등 · 청소년층(10~19세)은 11.7%로 남양주시 내 5위 수준을 보이며, 인근 장승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방과후 이용 수요가 높게 예상됨
 - 노년층(65세 이상)은 19.5%로 남양주시 평균인 18.9%를 상회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인구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청년층(20~34세)은 16.2%로 도서관 비이용률이 높은 연령대에 해당해 별도의 유입 전략이 요구됨
- 장승다담공원, 장승초등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진접도서관은 공원 · 학교 · 주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활권 밀착형 거점 도서관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입지 환경을 보면, 장승다담공원이 약 80m 거리에 위치해 공원 나들이 동선과 도서관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경유형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장승초등학교가 약 180m 거리에 있어 방과 후 아동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유입되는 경로 상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약 7,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도보권 이용 가구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에서 생활권 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잠재력 큼
- 어린이 좌석 · PC · 총 좌석 감소와 전자자료 · 오프라인 프로그램 증가라는 상반된 흐름은,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열람실,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 4층 문화강좌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줌
 - 시설 현황과 공공도서관 통계 분석 결과 역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어린이 열람석은 2016년 100석에서 2025년 40석으로 60%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 11%를

크게 상회하여, 1층에 어린이 · 가족 통합열람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용 PC는 같은 기간 84대에서 28대로 67% 감소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감소 폭이 크며, 고정형 PC 중심 구조에서 개인 기기와 무선 인터넷 중심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실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총 좌석 수 역시 422석에서 354석으로 줄어 전반적인 공간 기능 저하가 확인되며, 지상 1~4층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좌석 구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자자료는 2024년 기준 385,087건으로 급증해 디지털 자료 이용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복합문화공간 재편과 개인기기 친화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아울러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가자는 1회성 독서 프로그램 기준 2020년 3,208명에서 2025년 10,508명으로 회복 ·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면 문화 · 독서 활동 확대 추세가 뚜렷함
 - 이는 진접도서관 4층 문화강좌실을 특화해 운영하고, 프로그램 ·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리모델링 방향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① 이용자 중심 공간 재편, ②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③ 지역 연계형 거점 조성, ④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 ⑤ 복합문화공간 고도화를 리모델링 기본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함
- ①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재편
 - 가족 단위 이용자, 초등학생과 청소년, 중장년층 등 이용자군의 이용 행태와 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층별 기능을 재배치하고, 각 공간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함
 - ②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 기존의 폐쇄적인 자료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함
 - 이를 위해 장시간 이용을 고려한 가구 배치, 조명 계획, 동선 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강화함
 - ③ 지역 연계형 거점 조성
 - 장승다담공원과 장승초등학교와의 물리적 ·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 도서관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 생활권 내 일상적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함
 - ④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노년층 비율이 높고 향후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차 제거, 낮은 안내 카운터, 점자 안내 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영유아,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⑤ 복합문화공간 고도화

-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대출 및 열람 공간을 넘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고도화함
- 디지털,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5-1〉 리모델링 기본 전략 방향

전략 방향	주요 내용	연계 사례
이용자 중심 공간 재편	• 이용자군(가족 단위 · 초등 · 청소년 · 중장년)의 이용 행태와 공간 요구를 반영하여 총별 기능을 재배치하고, 각 공간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	독산 · 동작 (이용자 유형별 공간 분화)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 폐쇄적 자료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 → 장시간 체류를 지원하는 가구 · 조명 · 동선 계획	동작도서관 (체류형 재편)
지역 연계형 거점 조성	• 장승다담공원 · 장승초등학교와의 물리적 ·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 도서관이 지역 생활권의 일상적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입지 자산을 적극 활용	인제 기적의 도서관 (명소화)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	• 노년층(19.5%) 시 평균 초과 및 고령화 가속에 대비하여 단차 제거, 낮은 카운터, 점자 안내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도입 → 영유아 · 장애인 · 고령자의 접근성 보장	독산도서관 (소풍길 유니버설디자인)
복합문화공간 고도화	• 단순 자료 대출 · 열람 기능을 넘어 디지털 · 미디어 · 체험 · 프로그램 ·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여 복합문화시설로 전환	순천 어울림 도서관 (테마 특화)

2 전문가 자문을 통한 리모델링 방향 설정

1) 리모델링 자문 개요

- 본 연구는 제1절에서 설정한 리모델링 기본 방향과 5대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계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건축 ·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건축 ·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 자문은 문헌 · 통계 분석(2장)과 사례분석(4장)에서 도출된 방향이 진접도서관의 물리적 여건과 법 · 제도적 조건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기존 건물의 내부 재배치를 전제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실 경계 해체 · 칸막이 철거 · 개방형 전환 등 핵심 계획의 구현 범위가 구조 · 설비 · 법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실무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
- 자문은 건축설계 실무 전문가와 도시설계 · 건축설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문 방식은
 - (건축설계 전문가) 도서관 등 공공건축 리모델링 설계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층별 계획안의 실행 가능성과 구조 · 설비 · 법규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함
 - (도시설계 · 건축설계 연구자) 공공도서관 공간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분석의 타당성, 외부 연계 전략,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준을 중심으로 자문을 실시함
- 자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면자문과 대면 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2) 건축설계 전문가

(1) 리모델링 기본 방향성

- 지역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이자 주민 일상의 생활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향은 타당함
- 단순 대출 · 반납 중심 자료 제공을 넘어 학습 · 체험 · 돌봄 · 커뮤니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전환은 인구구조 변화와 이용 행태 변화에 부합함
- 다만 복합문화 기능 확대 과정에서 도서관 고유의 정온 열람 · 장서 기능이 잠식되지 않도록, 정온 열람 공간의 최소 총량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계획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리모델링 전 구조 · 설비 사전 진단

- 실 통합, 칸막이 철거, 실 경계 해체 등의 핵심 계획은 철거 대상 벽체의 내력 여부, 전기 증설 용량, 방화구획 변경 가능성 등에 따라 구현 범위가 결정됨
- 따라서 구조 · 설비에 대한 사전 진단 절차를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고, 예산 · 공기(공사기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층 계획

-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층은 2차 변경안에 제시된 ‘1인 집중 · 그룹 구역 동선 재정비’ 방안을 1차 변경안에 선반영할 것을 제안

- 동선 재정비는 가구 배치 조정 수준의 비구조적 개선이므로, 구조 진단 없이도 우선 실행 가능하며, 개방형 전환의 골격을 1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유리함
- 다만 3층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경우, 수험생 등 장시간 정숙 학습 수요와 개방형 체류 · 학습 수요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방음 부스형 1인 집중 구역의 물리적 이격, 저서가 · 유리 구획을 활용한 정숙존과 활동존 분리, 정숙 시간대 운영 설정 등 공간 · 운영 양 측면의 완충 방안 검토가 필요함

(4) 1층 어린이도서관 공간 구획

- 영유아(0~9세)와 아동은 보호자 동반 여부, 놀이 · 소음, 독서 · 학습 방식 등 이용 특성이 상이하므로 공간 계획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어린이도서관 내에서도, 보호자 동반이 필수이고 놀이 · 소음을 수반하는 영유아 공간과, 자기주도적 독서 · 학습이 이루어지는 아동 공간은 요구되는 정숙 수준이 다름
- 두 공간을 완전 분리하기보다는 저서가, 바닥 레벨차, 매트존 등 완충 요소를 활용해 하나의 통합 공간 안에서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이 가족 동반 이용의 연속성과 이용 특성별 구획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활동 · 교류 중심 공간은 개방하되, 안전 · 정숙이 요구되는 영유아 및 집중 학습 공간은 완충 · 구획하는 방향이 필요함

(5) 도서관-공원-주변 생활권 연계 방향

- 도서관 전면과 공원 인접면을 ‘통과 · 체류 · 독서활동이 공존하는 생활광장’으로 재구성하고, 도서관 앞 잔디 · 광장 · 계단 등 전이공간을 도서관의 연장된 이용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헬싱키 오디(Oodi) 도서관처럼, 건물 앞 펜스 · 식재 등 경계를 최소화하고 어디서든 입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평탄한 포장과 완만한 계단 · 목재 데크를 통해 점심식사, 대화, 노트북 작업, 아이들 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일상 광장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음
 - 헬싱키 오디 도서관(Oodi): ‘도시의 거실’이자 칸살라이스토리 광장과 맞닿은 생활 · 시민광장형 공공도서관(2018년 12월 5일 개관)

(6) 생활SOC 네트워크 구축(진접도서관 중심)

- 진접도서관-장승다담공원-장승초등학교-인근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생활SOC 네트워크로 보고, 도서관 중심의 이용 흐름을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함

- 도서관에 택배보관, 공유우산, 무인민원, 생활정보, 복지상담 등 소규모 생활 공공서비스를 결합해 ‘책만 빌리는 곳’을 넘어서는 생활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함
- 장승초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방향에 학생 쉼터 · 야외 학습공간 · 계단형 스탠드 등을 설치해 학교 후 대기, 간식, 숙제, 친구와의 활동이 가능한 방과후 생활공간을 조성함
- 공원 내 야외 독서 · 건강 프로그램, 북피크닉, 그림책 놀이터 등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원 활동을 결합한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함
- 도서관 · 장승초등학교 · 장승다담공원 및 지역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 운영체계를 구축해, 계절별 문화행사 · 독서 프로그램 · 방과후 활동 등을 공동 기획 · 운영함

(7) 필로티 체류공간 조성을 위한 법규 · 인허가 검토

- 필로티를 체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측면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적용 여부, 피난계단 ·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주출입구 및 피난출구 확보 여부, 용도변경 필요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해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측면에서는 도서관 부지와 공원부지의 경계 처리 방식, 공원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공원관리청 협의 사항, 공원 내 행사 · 프로그램 운영 가능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함

(8) 필로티 · 외부 공간의 관리 · 운영 체계

- 필로티를 통해 도서관 마당을 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므로 남양주시 관리 · 운영체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도서관 관리부서와 공원 관리부서 간 관리구역 ·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유지관리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시설 유지관리비, 프로그램 · 행사 운영비의 확보 또는 분담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행사 승인, 공간 대관, 이용시간, 프로그램 운영주체 등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함

(9) 외부공간 계획 및 주변 시설 적극 활용

- 외부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주변 시설(장승다담공원, 장승초등학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승다담공원을 단순 동선 연결 · 경유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의 외부 조경 · 외부 관람 공간, 외부 미술 전시공간, 외부 놀이터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콘셉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외부 마당 등에 소셜 스테어(social stairs)형 머무름 공간, 소규모 전시 공간 등을 배치해 체류 · 관람 · 소통이 발생하는 외부공간 계획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외부 공간 정비 계획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외부공간(마당, 공원 접경부, 보행로 등) 계획 수립이 요구됨

(10) 동선 계획(수평 · 수직 동선 재구성)

- 기존 동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부 공간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선 다양화가 필요함
- 각 층에 위치한 외부 휴게공간 등을 활용해 수직 동선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출입 · 이용 패턴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평 동선도 각 실의 기능과 배치를 재검토하면서 재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방감 · 가독성 · 안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2층이나 3층으로 직접 진입하는 외부 계단, 외부 소셜스테어 등을 통해 상부층을 적극적인 외부공간 및 별도 출입층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층별 활용(지하 · 2층 · 3층)

- 지하층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시 · 활동적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청년 · 전시 · 메이커 · 활동' 중심 공간으로의 적극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2층의 기능과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2층 · 3층으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외부 계단, 소셜스테어 등)을 통해 공간 성격을 분리하고 동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러한 수직 동선 재구성은 층별 이용자군(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청년 등)과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층별 콘셉트 설정과 연계될 수 있음

(12) 추가 검토사항(입면 · 증축 · 공사비)

- 입면 계획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며, 향후 계획 범위 설정 과정에

서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수직 및 수평 증축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계획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요소이므로, 구조 · 법규 · 예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정 공사비 및 공사 범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공사비 추정 근거와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함

3) 도시설계 · 건축설계 연구자

(1) 외부 연계 동선 · 입지 전략

- 장승다담공원과의 동선 · 시각적 연계를 강화하여 우연 방문 · 체류를 유도하고, 공원을 진입 경험의 일부로 설계할 것을 제안함
- 장승초등학교와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아동 · 청소년이 방과 후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안전하고 직관적인 진입로 계획을 요구함
- 외부 접근부를 단순 이동수단 보관 공간이 아니라 광장 · 휴게 · 대기 · 만남 기능을 가진 전이공간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강조됨

(2) 이용자 · 잠재이용자 분석 및 대상 설정

- 진접읍 · 남양주시 인구통계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비율 · 증가 추이 · 세대구성 · 아동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 타당성과 예산 근거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 다문화가족을 중요한 잠재 이용층으로 보고, 정보제공과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 시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지역 인구 특성, 특히 비이용률이 높은 청년층(20~34세) 유입을 위한 특화 공간 계획(오픈 북카페, 1인 스터디룸, 미디어 창작 공간 등) 필요성이 지적됨

(3) 다문화가족 ·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간

- 단순 ‘다문화 코너’가 아니라 다국어 장서, 문화교류형 독서프로그램, 가족 참여 체험, 부모 대상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간 구성을 제안함
- 특정 집단 전용실보다는 일반 이용이 가능하면서 필요 시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유연한 공간 계획을 권장함
- 어린이 · 가족 중심 이야기마당, 보호자 대기 · 교류, 지역 연계 행사 등 가족 단위 체류형

구조로서 어린이공간을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함

(4) 모빌리티 및 접근성(외부 유니버설디자인)

- 도보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해 마이크로 모빌리티 접근체계를 별도 항목으로 계획하고, 충전 · 캐노피 · 조명 · CCTV 등 관리 · 안전 요소를 포함해야 함
- 어린이 · 보호자 · 고령자 · 보행약자 동선과 PM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입부 · 전면광장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도착 경험까지 포함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접근성을 요구함
- 주출입구 전면에 추가 무장애 동선 · 슬로프 확보, 지하층 슬로프 개선 등 보행약자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5) 유니버설 디자인 · 교통약자 배려(내부 유니버설디자인)

- 유모차 ·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주요 통로 폭을 최소 1,500mm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
- 교통약자 전용 열람가구 도입, 휠체어 이용자가 책상에 붙어 이용 가능한 가구 디자인, 낮은 중앙 서가와 높은 벽면 서가의 입체적 조닝이 제안됨
- 장애인 검색대 · 열람 편의시설, 장애인 화장실 남 · 여 구분 운영의 재검토 등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할 것을 강조함

(6) 소음 · 음환경 및 수직 · 수평 조닝

- 강연 · 체험 · 어린이 활동 등 복합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음 충돌을 줄이기 위해, 활동 공간과 정숙 공간의 수직적 분리 및 '활동 - 전이 - 정숙' 단계의 수평 조닝을 제안함
- 로비, 북큐레이션 존, 라운지, 확장 복도, 전시 벽면을 버퍼존으로 활용해 소음 전달을 줄이고, 공간 분위기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함
- 흡음 · 차음 마감, 바닥 충격음 저감, 가변 파티션, 출입문 · 설비 소음 제어를 포함한 종합적 음환경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평가함

(7) 백그라운드 시설 및 운영 인프라

- 체류형 좌석 · 큐레이션 서가 · 전시 · 디지털 공간 강화 흐름 속에서, 교체 장서 · 비치 대기자료 · 전시물 · 프로그램 물품을 위한 창고 · 준비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복합문화시설형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지원창고, 장비보관실, 준비실, 직원 백오피스 등 운영

지원공간을 잔여공간이 아닌 운영 시나리오에 기반해 계획할 것을 권장함

- 전면의 깔끔하고 유연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 · 직원 · 프로그램 동선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후면 운영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8) 복합문화시설 · 라키비움 지향

- 정보 · 교육을 넘어 전시 · 공연 · 체험 · 힐링 · 소통이 이루어지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으로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실 간 관계 · 프로그램 전환 · 공용공간 공유까지 통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함
- 문헌정보실 앞 공용부를 전시 · 큐레이션 · 대기 · 만남이 가능한 열린 매개공간으로 계획해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지역 특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작은 전시, 기록물 소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라키비움형’ 요소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지역 기억 · 문화 축적 기능을 강조함

(9) 층별 공간 콘셉트 및 기능

- (1층) 보로로도서관과 어린이자료실 통합을 통한 어린이 · 가족 중심 허브층 조성, 가족 열람 · 상영 · 디지털 그림책 · 영상독서 공간 도입, 정적 독서와 활동 공간의 분리가 필요함
- (2층) 문헌정보실을 학습 · 문화 · 교류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정기간 행물존 창호 개방감 확보로 외부 휴게공간 · 역사공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3층) 통합열람실을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개방형 열람층으로 구성하고, 태블릿 대여 ·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화상회의실 · 협업공간 · AI 체험공간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하게 계획함

(10) 어린이 · 가족 · 유아 친화 요소

- 어린이자료실 층은 어린이 · 영유아 비율이 높음을 고려해 일부 또는 전부를 유아 친화형 화장실로 조성하고, 유아차 보관소를 별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공간을 가족 단위 체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보호자 대기 · 교류, 소규모 체험,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다문화 코너 · 방과 후 연계 공간에는 획일적 대형 테이블 대신 1인 부스, 다락방 느낌의 아지트, 좌식 라운지 등 아동 행동 특성을 반영한 틈새공간 설계를 권장함

(11) 역사공원 ·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 전시콘텐츠

- 도서관이 역사공원 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공간 ·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2~4층 주요 공간에서 역사공원 조망이 가능하도록 창호 · 배치를 계획할 것을 제안함
- 1층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복원공간에 역사공원 정체성을 반영한 교육 ·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상설 전시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함
- 어린이 공간의 공원 방향 입면을 투명 창호 · 폴딩도어로 개선해, 공원 자연을 실내로 유입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함

(12) 리모델링 범위 · 구조 · 면적 전략

- 도서관 규모를 고려할 때 층간 슬래브 제거 등 대규모 구조 변경보다는 기존 1~4층 범위 내 기능 통합 · 재배치를 통해 면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리모델링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뽀로로 도서관-어린이도서관, 노트북실-디지털자료실-국제영상존 등 유사 기능 공간은 과도한 세분화를 지양하고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용자 혼선 · 비효율을 줄일 것을 제안함
- 지하 1층 매점과 북카페를 통합 배치해 공간 개방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됨

(13) 개방형 평면 · 실내환경

- 1층 창호 개방과 칸막이 제거로 개방형 열람실을 만들 경우, 소음 확산 · 냉난방 효율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흡음 · 차음 마감재와 단열 창호, 구역별 정밀 온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공조를 도입할 것을 권장함
- 개방형 리모델링과 공원 · 도시 환경과의 시각적 연계를 동시에 고려해, 쾌적한 통합 열람 환경과 체류 공간을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함

제2절 공간 구성 전략

1 층별 리모델링 방향

- 진접도서관 층별 리모델링 방향은 2장 이용자 분석과 4장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기본 방향을 건축 설계 협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로, 1차 변경(안)과 2차 변경(안)을 제안함
- 1차 변경(안)은 남양주시 요구조건(1층 어린이 통합, 2층 복합문화공간,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을 토대로, 두 개 층에 분산되어 있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실을 통합하여 층별 기능을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둠
- 2차 변경(안)은 1차 변경(안)에서 수립된 골격을 유지한 채, 제1절에서 설정한 ② 개방형 · 체류형 공간 전환, ③ 지역 연계형 거점 조성 전략을 한층 강화하여 실 경계를 해체하고, 가변형 공간과 지역 역사문화자원 연계 동선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함
- 지하 1층은 채광 부재와 접근성 한계로 1차 · 2차 변경(안) 모두에서 주차장 · 기계전기실 · 보존서고 · 북카페 · 휴게실 등 현행 기능을 유지하여 이번 도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하 지상 1~4층을 중심으로 변경 내용을 정리함

(1) 1차 변경(안)

- 1차 변경(안)은 1층 보로로도서관과 2층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 기능을 1층으로 통합하고, 2층과 3층의 유사 · 중복 기능 실을 각각 하나의 개방형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1층_어린이 · 가족 통합층) 영아 위주로 운영되던 1층 보로로도서관(20석)과 규모가 협소한 2층 어린이도서관(20석)을 통합하여 ‘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존’을 신설함
 - 두 개 층에 분산되어 있던 어린이 · 가족 이용 수요가 1층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여, 진접읍 아파트 단지 거주 가족과 인근 장승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적 이용을 유도함
 - 수유실 · 수면실 등 가족 지원시설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
- (2층_정보 · 복합문화층) 어린이도서관의 1층 이전으로 확보된 면적을 문헌정보실 · 정기간행물실과 통합하여 하나의 개방형 공간으로 구축함
 - 문헌정보 자료를 한 곳으로 집약 배치하고, 그 인접부에 자료검색 공간과 자율열람실을 구축하여

‘검색-탐색-열람’이 연속되도록 계획함

- 사무실 · 도서정리실 · 통신실 등 후방 지원공간은 현행 구조를 유지함

- 이로써 2층은 어린이 기능의 1층 이전으로 생긴 면적을 단순 보전하는 층이 아니라, 성인 · 청년의 정보 이용과 짧은 체류형 열람 수요를 흡수하고 자료 탐색-정보 이용-열람을 한 층에서 완결하는 정보 · 복합문화층으로 설정됨

○ (3층_통합 개방형 열람층) 기존 열람실 · 노트북실 · 디지털자료실 · 국제영상존을 하나의 통합개방형 열람실로 재구성함

- 홀의 벽면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각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국제영상존은 소파 중심의 라운지로 조성함

- 의자 뿐만 아니라 소파 · 바 테이블 등을 혼합 배치하여 이용자가 목적과 체류 시간에 따라 좌석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4장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동작도서관의 디지털라운지 · 오픈형 공간 전략을 1차적으로 적용한 결과임

○ (4층_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다목적세미나실 · 문화강좌실 · 동아리방 등 기존 실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1차 변경(안)에서는 별도의 실 변경을 두지 않음

〈표 5-2〉 층별 리모델링 방향(1차 변경안)

층	컨셉트	현재 → 변경	리모델링 방향 및 세부 전략
지하 1층	현행 유지	주차 · 기계전기실 · 보존서고 · 북카페 · 휴게실	현행 유지(변경 없음)
지상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층	1층 보로로도서관 + 2층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존	• 두 개 층에 분산된 어린이 기능을 1층으로 통합 · 신설 • 90cm 이하 저서가로 영역 구분 • 수유실 · 수면실 등 가족 지원시설 현행 유지
지상 2층	정보 · 복합문화층	어린이도서관 + 문헌정보실 + 정기간행물실 → 통합 개방형 공간	• 문헌정보 자료 한 곳 집약 배치 • 자료검색 공간 · 자율열람실 구축 • 창가 측 바(bar) 테이블형 열람석 배치 • 사무실 · 도서정리실 등 후방 지원공간 유지
지상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층	열람실 + 노트북실 + 디지털자료실 + 국제영상존 → 통합개방형 열람실	• 4개 실 통합 개방형 재구성 • 홀 벽면 활용 디지털 시각자료 시청 공간 구축 • 국제영상존 → 소파 라운지 조성 • 의자 · 소파 · 바 테이블 혼합 배치
지상 4층	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다목적세미나실 +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현행 유지(변경 없음)

(2) 2차 변경(안)

○ 2차 변경(안)은 1차 변경(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 경계를 해체하여 개방형 ·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하고 가변형 공간과 지역 연계 동선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함

- (1층_어린이 · 가족 통합층) 별도 실로 구획되어 있던 동화구연실을 열린 공간으로 변경하고, 패밀리 카페존을 신설하여 영유아 동반 가족뿐 아니라 조부모 · 학부모 등 다양한 가족 이용객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함
 - 안내와 휴게실의 위치를 변경하여 외부 움집터 공간이 잘 보이도록 하고, 홀에서 움집터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하여 지역 내 역사문화공간(남양주 장현리 움집터)을 도서관 이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2층_정보 · 복합문화층) 1차 변경(안)의 통합 개방형 구성을 유지하되, 정기간행물존에 가변형 공간을 구축하여 강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층_통합 개방형 열람층) 1차 변경(안)의 변경사항을 유지하면서, 홀과 국제영상존 부분의 벽을 해체하여 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축함
 - 이를 통해 3층 전체를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열람 · 디지털 이용 · 영상 감상 ·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정숙 학습 수요와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1인 집중 열람 구역을 층 내부에 별도로 확보함
- (4층_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현행 공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2층 가변형 공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수요를 분산 수용함

〈표 5-3〉 층별 리모델링 방향(2차 변경안)

층	컨셉트	현재 → 변경	리모델링 방향 및 세부 전략
지하 1층	현행 유지	주차 · 기계 · 서고 · 북카페	현행 유지(변경 없음)
지상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층	동화구연실(별도 실) → 열린 공간 패밀리 카페존 신설 안내 · 휴게실 위치 변경	• 동화구연실 벽체 해체→ 열린 공간 전환 • 패밀리 카페존 신설(유모차 거치 병행) • 안내 · 휴게실 재배치로 움집터 시인성 확보 • 홀→ 움집터 연계 동선 구축(역사문화공간 연계)
지상 2층	정보 · 복합문화층	정기간행물존(고정) → 가변형 공간	• 1차 변경(안)의 통합 개방형 구성 유지 • 정기간행물존에 폴딩도어 설치 • 개방(열람) ↔ 폐쇄(강의) 전환 운영 • 프로그램 수요의 층별 분산 수용
지상 3층	통합 개방형 열람층	홀 · 국제영상존(벽체 구획) → 층 전체 개방형	• 1차 변경(안)의 변경사항 유지 • 홀-국제영상존 벽체 해체 • 3층 전체 개방형 복합문화공간화 • 1인 집중 열람 구역 별도 확보(정온성 완충)
지상 4층	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다목적세미나실+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 현행 유지(2층 가변형 공간과 프로그램 분산 연계)

2 이용자군별 공간 · 프로그램 운영 방향

- 유형화한 6개 이용자군의 주요 수요, 배치 공간, 추천 서비스 · 프로그램을 층별 리모델링 방향(1차 · 2차 변경안)과 연계하여 이용자군별 공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함
 - (영유아 · 아동, 0~9세) 그림책 · 놀이 · 체험 중심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존에 가족 클러스터 테이블에 배치함
 - 2차 변경(안)에서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동화구연 공간과 패밀리 카페존을 활용하여, 그림책 큰소리 읽기 · 동화구연 · 오감 체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활동을 지켜보며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함
 - (초등 · 청소년, 10~19세) 학습 · 독서 · 체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3층 통합개방형 열람실의 1인 집중 구역과 2층 자율열람실을 중심으로 배치함
 - 장승초등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독서교육, 자기주도 학습,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며, 1층 도서관납공간을 통해 등하교 중 안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자료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20~34세) 취업 · 자격 준비와 디지털 학습 수요가 크므로, 3층 통합개방형 열람실의 1인 집중 구역과 홀 벽면의 디지털 시각자료 시청 공간, 2층 창가 바(bar) 테이블 열람석에 배치함
 - 취업 · 자격 정보 제공, 디지털 콘텐츠 이용 교육, 전 구역 충전 설비와 무선인터넷을 통한 장시간 체류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관 비이용률이 높은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
 - (중장년, 35~54세) 가족 이용과 개인 열람이라는 이중 수요를 반영하여, 자녀 동반 시에는 1층 패밀리 카페존과 움집터 연계 동선을, 개인 학습 · 열람 시에는 2 · 3층 개방형 열람 공간을 이용하도록 동선을 설계함
 - 학부모 독서 모임, 부모+자녀 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납공간을 통한 빠른 대출 · 반납 서비스로 가족 단위 이용의 편의를 높임
 - (장년, 55~64세)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욕구에 대응하여 2층 정기간행물존과 4층 문화강좌실 · 다목적세미나실을 주요 이용 공간으로 삼음
 - 2차 변경(안)에서 폴딩도어를 통해 가변형 강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정기간행물존을 활용하여, 4층에 집중되어 있던 평생학습 · 인문학 강좌를 분산 운영하고, 움집터와 연계한 지역사 강좌를 신설함
 - (노년, 65세 이상) 여가, 정보 이용, 디지털 기초 역량 지원이 중요하므로 2층 정기간행물존 · 자율열람실과 3층 소파 라운지, 4층 강좌실을 중심으로 배치함
 - 디지털 기초 교육, 큰 글자 · 음성 자료 제공, 인근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층 낮은 카운터 통해 반납 · 문의의 접근성을 보강함

- 이상의 이용자군별 배치는 특정 계층을 특정 층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과 행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층이 선택되도록 하는 유도적 배치를 지향함
- 하나의 이용자군이 방문 목적·상황에 따라 복수의 생활행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층별 배치는 연령 전용이 아니라 ‘주 이용 행태-공유 이용’의 관점에서 운영함

〈표 5-4〉 이용자군별 공간·프로그램 운영 방향

생활행태 유형	주요 공간 요구	핵심 계획 요소	주 대응 공간
개인 집중학습형	정숙·개인 영역·낮은 간섭	방음 칸막이, 1인 좌석, 국부 조명, 충전 설비	3층 방음 1인 집중구역
자료 탐색·열람형	자료 인접·짧은 동선·시인성	저서가 조닝, 검색-탐색-열람 연속 배치	2층 통합 개방형 정보공간
가족 동반 체류형	개방·시야 확보·보호자 동반	클러스터 테이블, 낮은 가구, 관리 시인성	1층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존
소규모 교류·협업형	대화 허용·가변 경계	폴딩도어 가변 공간, 그룹 테이블	2층 정기간행물존(가변), 4층
프로그램 참여형	가변 대형 공간·소음 분리	폴딩도어, 흡음 마감, 시간대 분리 운영	2층 가변존, 4층 강좌실
휴식·일상 방문형	편안한 좌석·조망·낮은 부담	소파·바 테이블, 창가 조망, 외부 연계	3층 소파 라운지, 2층 창가 바

- 개방형·가변형 구조를 채택함에 따라 하나의 공간이 시간대와 프로그램에 따라 서로 다른 이용자군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층별 전용 개념보다 ‘주 이용자군-공유 이용’의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5-5〉 이용자군(연령)별 주 이용 공간·프로그램

이용자군	주요 수요	배치 공간	추천 서비스·프로그램
영유아·아동 (0~9세)	그림책·놀이·체험	1층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존 (가족 테이블) - 동화구연 열린 공간·패밀리 카페존	그림책 큰소리 읽기·동화구연·보호자 동반 패밀리 카페 프로그램·오감 체험 독서
초등·청소년 (10~19세)	학습·독서·체험	3층 통합개방형 열람실(1인 집중 구역) 2층 자율열람실 1층 도서반납공간(자력 반납)	방과후 독서교육(장소초 연계)·자기주도 학습·청소년 동아리·진로 체험
청년 (20~34세)	취업·자격·디지털	3층 통합개방형 열람실(디지털 시각 자료 시청 공간·1인 집중 구역) 2층 창가 바(bar) 테이블 열람석	취업·자격 정보 제공·디지털 콘텐츠 이용·1인 집중 열람·장시간 체류 지원
중장년 (35~54세)	가족+개인 이중 수요	1층 패밀리 카페존·움집터 연계 동선(자녀 동반) 2·3층 개방형 열람 공간(개인 열람)	학부모 독서 모임·부모+자녀 동반 프로그램·빠른 대출·반납 서비스
장년 (55~64세)	평생학습·문화	2층 정기간행물존(폴딩도어 가변형 강의 공간) 4층 문화강좌실·다목적세미나실	평생학습 강좌·인문학 강좌·취미·문화 프로그램·지역사 강좌(움집터 연계)
노년 (65세 이상)	여가·정보·디지털	2층 정기간행물존·자율열람실 3층 소파 라운지 1층 낮은 카운터(750mm) 반납대	디지털 기초 교육·큰 글자·음성 자료·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 이용자 분석 결과 도출된 유입 대상 집단을 실제 이용 행태에 따라 6개 생활행태 유형으로 재정리하고, 각 유형의 공간 요구와 계획 요소, 대응 공간을 대응시킴으로써 이용자 분석이 공간계획의 직접적 근거로 기능하도록 함
 - 연령·인구 구조가 유입 대상을 식별하는 1차 기준이라면, 생활행태 유형은 그 대상이 도서관에서 나타내는 이용 목적과 행태를 계획 언어로 전환하는 기준임
 - 하나의 이용자는 방문 목적·상황에 따라 복수의 생활행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층별 배치는 특정 유형의 전용이 아니라 ‘주 이용-공유 이용’ 원칙에 따라 유도적으로 구성함
 - (이용자군 연계) 앞 절에서 유형화한 6개 이용자군과 본 절의 6개 생활행태 유형을 대응시켜, 각 생활행태 유형에 주로 해당하는 주 이용자군을 제시함
 - 이는 특정 연령대를 특정 유형·층에 고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2장 이용자 분석에서 도출된 수요가 실제 공간에서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이용자군은 방문 목적에 따라 복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음
 - (1층_가족 동반 체류형 · 주 이용: 영유아·아동, 중장년) 개방된 시야와 보호자 동반 이용을 전제로,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존에 그룹형 테이블과 낮은 가구, 관리 시인성이 확보된 배치를 적용함
 - (2층_자료 탐색·열람형 및 소규모 교류·협업형 · 주 이용: 초등·청소년, 중장년, 노년, 장년) 자료 인접성과 짧은 동선을 갖춘 통합 개방형 정보공간과, 폴딩도어로 경계를 조절하는 가변존을 함께 배치하여 정보 이용과 소규모 협업을 동시에 수용함
 - (3층_개인 집중학습형 및 휴식·일상 방문형 · 주 이용: 초등·청소년, 청년, 노년) 방음 칸막이·1인 좌석 중심의 집중구역과 창가 조망·소파 중심의 라운지를 ‘활동-전이-정숙’ 조닝으로 분리 배치하여, 정숙 수요와 체류 수요를 동일 층에서 양립시킴
 - (4층_프로그램 참여형 · 주 이용: 장년, 노년) 시간대 분리 운영을 적용한 가변 대형 공간(강좌실)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수용함

〈표 5-1〉 이용자군-생활행태 유형 연계 및 공간 요구-계획 요소 대응

층	대응 공간	생활행태 유형	주 이용자군(연계)	공간 요구	계획 요소
1층	가족 허브	가족 동반 체류형	영유아·아동, 중장년(자녀 동반)	개방·시야 확보, 보호자 동반	그룹형 테이블, 낮은 가구, 관리 시인성 확보
2층	정보공간	자료 탐색·열람형	초등·청소년, 중장년, 노년	자료 인접·짧은 동선, 높은 시인성	저서가 조닝, 검색·탐색·열람 연속 배치
	가변 공간	소규모 교류·협업형	장년, 초등·청소년(동아리)	대화 허용, 가변 경계	폴딩도어 가변 공간, 그룹 테이블
3층	집중구역	개인 집중학습형	초등·청소년, 청년	정숙·개인 영역	방음 칸막이, 1인 좌석, 국부 조명, 충전 설비
	소파 라운지	휴식·일상 방문형	청년, 노년	편안한 좌석·조망	소파·바 테이블, 창가 조망
4층	강좌실	프로그램 참여형	장년, 노년	소음 분리	시간대 분리 운영

층	대응 공간	생활행태 유형	주 이용자군(연계)	공간 요구	계획 요소
1층	가족 허브	가족 동반 체류형	영유아·아동, 중장년(자녀 동반)	개방·시야 확보, 보호자 동반	그룹형 테이블, 낮은 가구, 관리 시인성 확보
2층	정보공간	자료 탐색·열람형	초등·청소년, 중장년, 노년	자료 인접·짧은 동선, 높은 시인성	저서가 조닝, 검색·탐색·열람 연속 배치
	가변 공간	소규모 교류·협업형	장년, 초등·청소년 (동아리)	대화 허용, 가변 경계	폴딩도어 가변 공간, 그룹 테이블
3층	집중구역	개인 집중학습형	초등·청소년, 청년	정숙·개인 영역	방음 칸막이, 1인 좌석, 국부 조명, 충전 설비
	소파 라운지	휴식·일상 방문형	청년, 노년	편안한 좌석·조망	소파·바 테이블, 창가 조망
4층	강좌실	프로그램 참여형	장년, 노년	소음 분리	시간대 분리 운영

[그림 5-1] 생활행태 유형별 공간 요구-계획 요소 대응

제3절 공간 재구성 및 설계안

1 리모델링 방향 개념

- 앞선 분석 결과를 통해 진접도서관을 “지역 주민 누구나 지식을 습득하고 자유롭게 머물며 성장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함
- 이는 자료 제공 중심의 도서관을 지식 습득과 이용자 경험, 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본 연구의 지향을 함축함
- (근거 ①_이용자 분석) 2장 분석을 통해 진접읍 인구 구조와 미래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6개 군으로 유형화하고, 각 층에 걸친 공간 이용상 문제(어린이 공간의 분산 배치, 유사 기능의 중복 운영, 층간 연계 단절 등)를 도출함
- (근거 ②_이용행태 변화) 전자자료 이용이 급증하는 반면 고정형 PC와 총 좌석은 감소하는 등 도서관 환경이 디지털·개방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자료 열람·대출 중심의 이용에서 학습·휴식·교류·디지털 활용이 결합된 다목적 체류형 이용으로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음
 - 실제로 진접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석은 100석에서 40석으로, 이용자용 PC는 84대에서 28대로 감소하였고, 총 좌석 수도 422석에서 354석으로 줄어 공간 기능 약화가 통계적으로 확인됨
 - 이는 어린이·가족 공간의 물리적 회복과 디지털 이용 환경의 전면 재편이 동시에 요구됨을 시사함
- (근거 ③_사례분석) 4장에서 진접도서관과 조건이 유사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4개 도서관을 분석하여 참고 모델로 삼음
 - (독산도서관) 소규모 기존 건물의 유희공간(계단실·강당·테라스)을 '비움-채움' 전략으로 개방형 문화·휴식·학습 공간으로 재구성함
 - (동작도서관) 33년 된 노후 도서관을 디지털라운지·오픈형 공간 중심의 체류형·개방형 도서관으로 전환함
 - (인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가족 공간의 중심화와 특화공간·주민참여 설계로 지역 명소화를 달성함(개관 1년 누적 방문 약 18만 명)
 - (순천 어울림도서관) 복합시설(체육센터) 연계와 테마 특화, 확장된 유니버설디자인을 결합한 개방형 도서관을 구축함

- (4대 원리) 비전을 실제 공간 계획으로 옮기기 위한 원칙으로 통합 · 개방 · 가변 · 연계의 네 가지를 설정함
 - (통합) 두 개 층에 분산되거나 유사 ·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의 개방형 공간으로 통합하여 이용 동선과 관리 효율을 높임
 - (개방) 폐쇄적으로 구획된 실 경계를 해체하여 시각적 · 기능적으로 연결된 개방형 ·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함
 - (가변) 이동식 가구와 폴딩도어를 활용하여 하나의 공간이 시간대와 프로그램에 따라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연계) 장승다담공원, 남양주 장현리 읍집터, 장승초등학교 등 지역 자원과 도서관을 동선 · 프로그램으로 연결함
- (적용방식) 4대 원리를 바탕으로 1차 변경(안)과 2차 변경(안)의 2단계로 구분하여 리모델링 안을 제안함
 - 1차 변경(안)은 유사 · 중복 기능의 통합과 재배치에, 2차 변경(안)은 실 경계 해체와 가변 ·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둠
 - 적용 범위는 지상 1~4층으로 하되, 채광 부재와 접근성 한계가 있는 지하 1층은 현행 기능을 유지함
-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향 개념을 바탕으로, 진접도서관의 구체적인 리모델링 방향을 1차 · 2차 변경(안)으로 나누어 제시함



[그림 5-2]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방향 개념도

2 층별 공간 재구성 및 설계안

1) 설계안 개요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은 채광 부재와 접근성 한계가 있는 지하 1층은 현행 기능을 유지하고, 지상 1~4층을 남양주시 요구조건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함
- 층별 설계안은 1차 변경(안)과 2차 변경(안)의 2단계로 구체화하였으며, 1차 변경(안)이 기존 실 구성을 유지한 채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변경(안)은 실 경계를 해체하여 개방형·가변형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동선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둬
- 층별 재구성의 기본 원칙은 ①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 ② 개방형·가변형 공간으로의 전환, ③ 이용자군별 체류 환경 조성, ④ 장승다담공원·남양주 장현리 움집터·장승초등학교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⑤ 유니버설디자인의 설계-운영 전 과정 적용임

2) 지하 1층 : 현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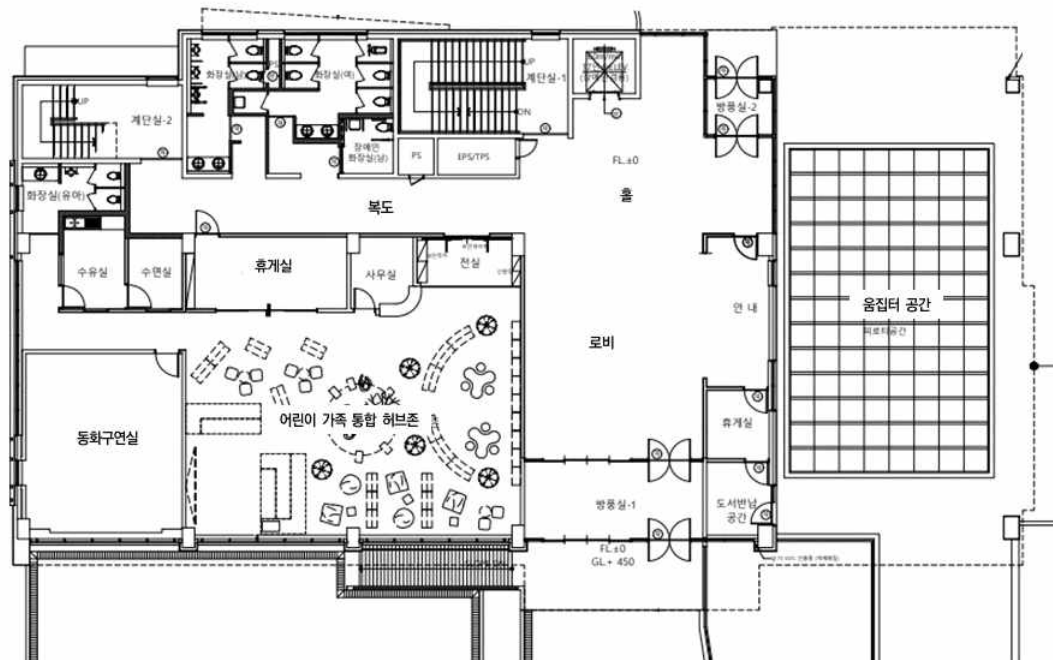
- 지하 1층은 1차·2차 변경(안) 모두에서 현행 기능을 그대로 유지함
- 지하 1층은 자연채광이 없고 수직 이동 의존도가 높아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고령자의 접근이 어려운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독산도서관 사례에서 확인되듯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지하 공간을 가족·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 이에 따라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 보존서고, 북카페, 휴게실 등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본 설계안의 변경 대상에서 제외함

3) 지상 1층 :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층

(1) 1차 변경(안) -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존 신설

- 1층 보로로도서관과 2층 어린이도서관(어린이자료실)을 통합하여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존’을 신설함
- 기존 보로로도서관은 영아 위주의 소규모 공간(20석)으로 운영되어 유아·아동을 동반한 가족 이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고, 2층 어린이도서관 역시 20석 규모로 협소하여 어린이 이용 수요가 두 개 층에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음

- 두 공간을 1층에 통합·신설함으로써 어린이·가족 이용객의 수요가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머무르며 독서·체험·휴식을 연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통합 허브존은 진접도서관 인근의 아파트 단지 거주 가족과 인근 장승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적 이용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며, 1층 배치를 통해 유모차·보행약자의 수직 이동 부담을 최소화함
 - 세부적으로 영유아 그림책에 특화된 바닥 좌석·쿠션 매트 형태의 테이블, 4~6인이 나란히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클러스터 테이블, 90cm 이하 낮은 이동식 서가를 활용한 영역 구분 등을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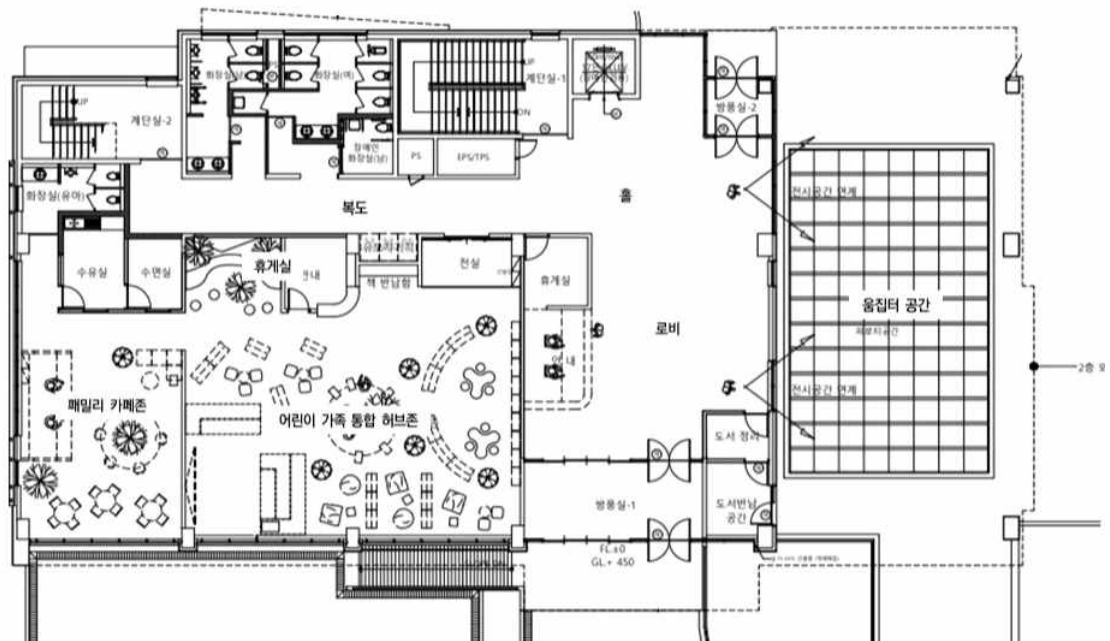


[그림 5-3] 지상 1층 평면도(1차 변경)

(2) 2차 변경(안) - 열린 공간 전환 및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연계 동선 구축

- 2차 변경(안)은 1차 변경(안)의 통합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별 실 경계를 해체해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동선을 신설함
 - (동화구연실의 열린 공간 전환) 별도 실로 구획되어 있던 동화구연실을 열린 공간으로 변경함
 - 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에만 사용되던 폐쇄형 실을 상시 개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자녀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됨
 - (패밀리 카페존 신설) 어린이·가족 통합 허브존과 연결하여 패밀리 카페존을 신설하고 유모차 거치 공간을 병행 배치함
 - 이를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뿐 아니라 조부모·학부모 등 다양한 가족 이용객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체류 거점을 마련함

- (안내 · 휴게 공간 재배치) 안내데스크와 휴게실의 위치를 변경하여 주출입구-안내-열람으로 이어지는 진입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공간에서 외부 움집터가 잘 보이도록 배치를 조정함
 -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연계 동선 구축) 1층 홀에서 외부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이 지역 역사문화공간(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
- 도서관을 단순 자료 이용 시설이 아니라 지역 역사문화 거점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장승다담공원-남양주 장현리 움집터-도서관'을 잇는 보행 연계 축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짐



[그림 5-4] 지상 1층 평면도(2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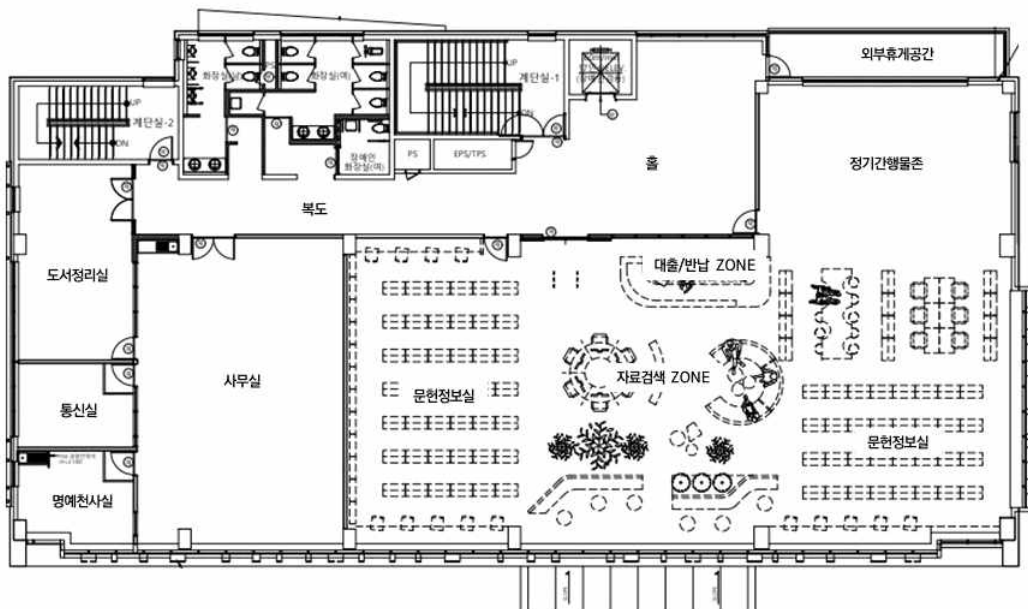


[그림 5-5] 지상 1층 투시도(2차 변경)

4) 지상 2층 : 정보 · 복합문화층

(1) 1차 변경(안) - 개방형 통합 정보 공간 구축

- 어린이도서관의 1층 이전으로 확보되는 면적을 문헌정보실 · 정기간행물실과 통합하여 하나의 개방형 공간으로 구축함
- 2층은 어린이자료실 이전으로 확보된 면적을 단순 보전하는 층이 아니라, 1층으로 이전한 어린이 기능을 대신하여 성인 · 청년의 정보 이용과 짧은 체류형 열람 수요를 흡수하고, 자료 탐색-열람-가변 프로그램을 한 층에서 완결하는 정보 · 복합문화층으로 설정함
- 기존 어린이자료실 · 문헌정보실 · 정기간행물실로 삼분되어 있던 실 구성을 통합함으로써, 이용자가 실 단위로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층에서 자료 탐색-정보 이용-열람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헌정보 자료는 한 곳으로 집약 배치하고, 그 인접부에 자료검색 공간과 자율열람실을 구축하여 ‘검색-탐색-열람’의 이용 행위가 끊기지 않고 연속되도록 계획함
- 창가 측에는 바(bar) 테이블 형식의 열람석을 배치하여 외부 조망과 자연채광을 활용한 짧은 체류형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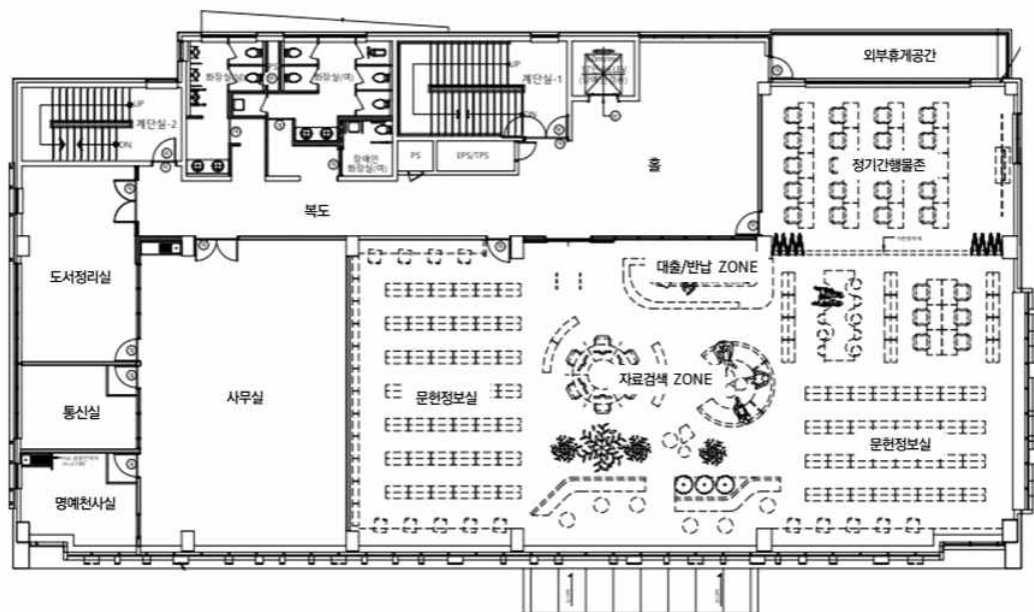
[그림 5-6] 지상 2층 평면도(1차 변경)

- (개방형 공간의 장점) 실 경계를 해체한 개방형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
- (공간 효율) 벽체 · 복도 등 비열람 면적이 감소하여 동일한 연면적에서 실질 자료 · 열람 면적이 증가함

- (이용 편의) 자료-검색-열람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공간 탐색 부담과 사서의 안내 부담이 함께 줄어들
- (관리 시인성) 시야가 확보되어 사서의 관리 시인성이 높아지고 사각지대가 감소하여 어린이 · 고령자의 안전성이 향상됨
- (유연성) 고정 벽체가 아닌 가구 · 저서가로 영역을 구분하므로, 가구 재배치만으로 장래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2) 2차 변경(안) - 정기간행물존의 가변형 공간화

- 2차 변경(안)은 1차 변경(안)의 통합 개방형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기간행물존에 가변형 공간 개념을 도입함
- 정기간행물존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열어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사용하고, 강의 ·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닫아 독립된 강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가변형 공간의 장점)
 - (다목적 활용) 하나의 공간이 시간대와 프로그램에 따라 열람실 · 강의실 · 모임공간으로 전환되어 제한된 면적의 활용도를 극대화함
 - (음환경 관리) 강의 · 프로그램 소음이 열람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개방형 전환에 따른 정온성 저하 문제를 보완함



[그림 5-기] 지상 2층 평면도(2차 변경)

- (프로그램 수용력 확대) 4층 강좌실에 집중되어 있던 프로그램 수요를 2층에서 분산 수용할 수 있어, 평생학습 · 인문학 강좌 등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 여력이 확대됨
- (전용 면적 절감) 상시 사용되지 않는 강의 전용실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의 면적을 열람 기능에 배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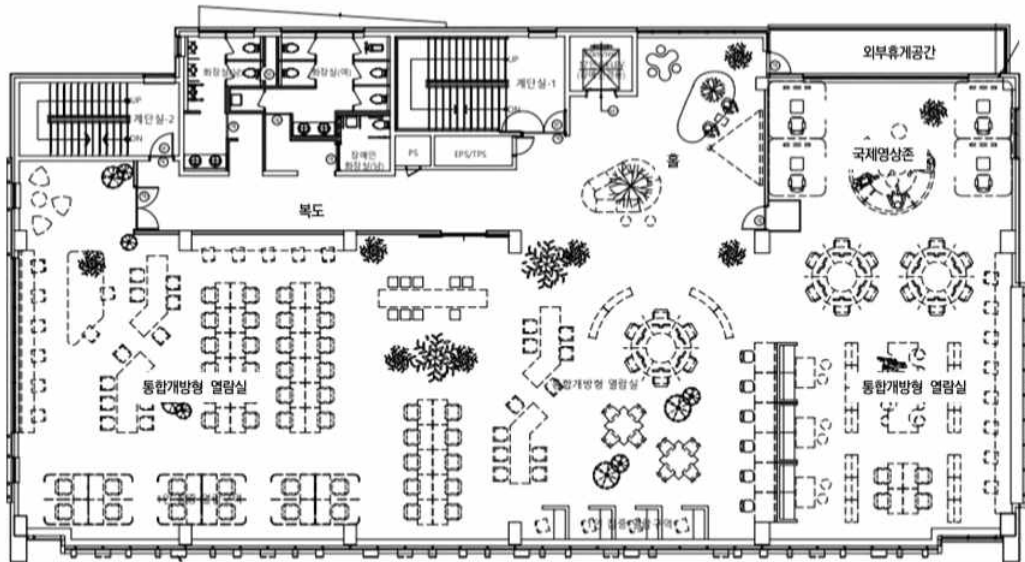
[그림 5-8] 지상 2층 투시도(2차 변경)

5) 지상 3층 : 통합 개방형 열람층 → 복합문화공간

(1) 1차 변경(안) - 4개 실 통합 개방형 열람실 구축

- 기존 열람실 · 노트북실 · 디지털자료실 · 국제영상존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 개방형 열람실로 재구성함
- 기능이 중복되고 칸막이로 분절되어 있던 4개 실을 통합함으로써,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 환경을 조성함(동작도서관의 디지털라운지 · 오픈형 공간 전략 참고)
- 통합개방형 열람실은 기존 칸막이를 제거하고 낮은 서가로 영역을 구분하며, 전 구역에 충전설비와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 기기 기반의 디지털 · 노트북 이용을 지원함
- (디지털 시각자료 시청 공간) 홀의 벽면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각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함
- 별도의 실을 신설하지 않고 벽면과 동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면적 부담 없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능을 확보함

- (국제영상존의 소파 라운지 전환) 기존 국제영상존은 소파 중심의 라운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형화된 열람석 외에 편안한 자세로 자료를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체류형 환경을 제공함
- 열람 가구는 의자 중심의 획일적 배치에서 벗어나 1인 집중 좌석, 그룹 테이블, 소파, 바 테이블 등을 혼합 배치하여, 이용자가 목적과 체류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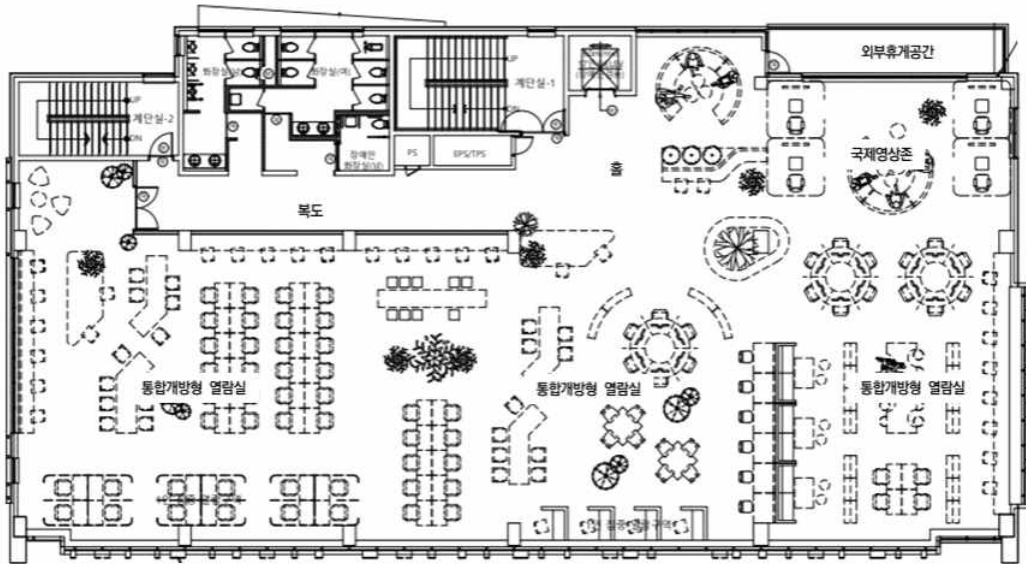


[그림 5-9] 지상 3층 평면도(1차 변경)

(2) 2차 변경(안) - 층 전체의 복합문화공간화

- 2차 변경(안)은 1차 변경(안)의 변경사항을 유지하면서, 홀과 국제영상존 부분의 벽을 해체하여 3층 전체를 하나의 개방형 공간으로 완성함
- 홀과 국제영상존 사이의 벽체를 해체함으로써 진입부(홀)-디지털 시각자료 시청 공간-소파 라운지-통합개방형 열람실이 단절 없이 연결되며, 3층 전체가 시각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됨
- 이를 통해 3층은 단순 열람층을 넘어 열람 · 디지털 이용 · 영상 감상 · 휴식 · 소규모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함
- 다만 개방형 전환에 따른 정숙 학습 수요와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방음 칸막이를 갖춘 1인 집중 열람 구역을 층 내부에 별도로 확보하고 '활동 - 전이 - 정숙'의 단계별 수평 조닝을 적용함
- 3층의 정숙-활동 수요는 '활동 - 전이 - 정숙' 수평 조닝과 방음 1인 집중구역으로 분리하며, 존별 좌석 운영과 동선 분리 기준은 개방형 · 가변형 전환 보완 방안에 따름

- 또한 미디어 이용 구역은 개인 헤드셋 · 지향성 스피커를 원칙으로 하고 정숙 구역은 방음 · 흡음 마감을 적용하며, 존별 좌석 운영과 동선 분리 기준은 개방형 · 가변형 전환 보완 방안에 따름



[그림 5-10] 지상 3층 평면도(2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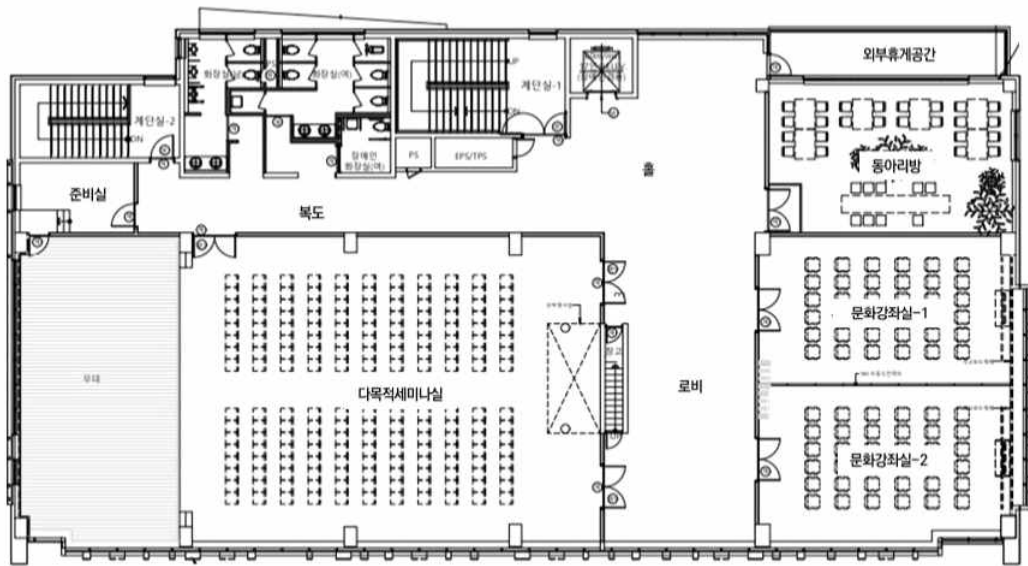


[그림 5-11] 지상 3층 투시도(2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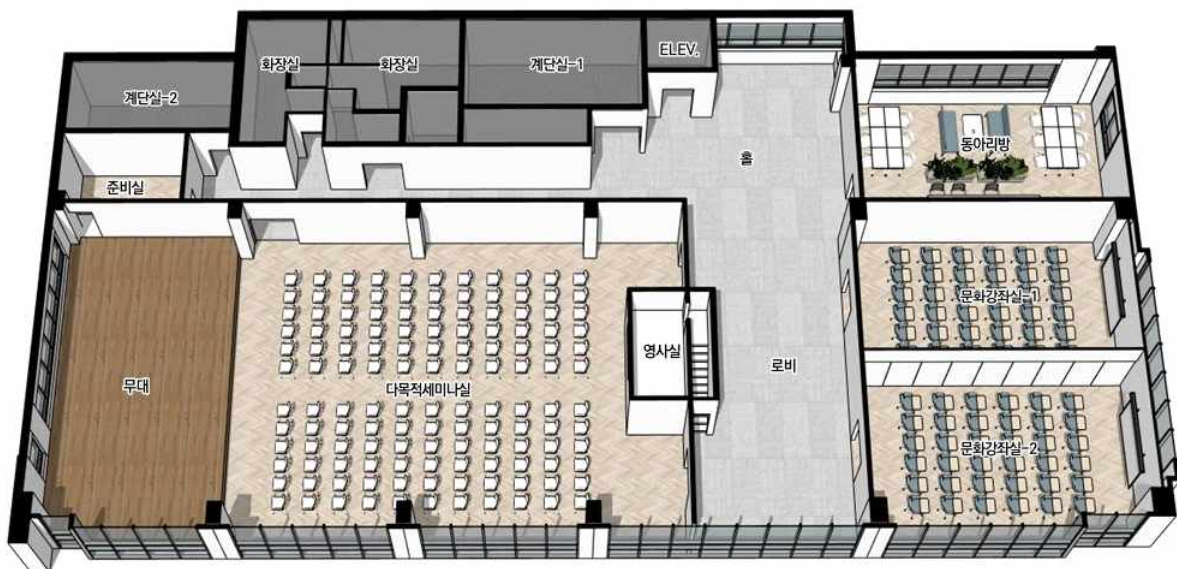
6) 지상 4층 : 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현행 유지)

- 지상 4층은 기존 다목적세미나실, 동아리방, 문화강좌실을 1차 · 2차 변경(안) 모두에서 그대로 유지함

- 가변형 프로그램 공간은 4층 강좌실을 별도 개조하지 않고 2층 정기간행물존(폴딩도어)에 집중 구현하며, 4층은 구조를 유지한 채 운영 방향만 조정함으로써 1·2차 변경(안)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함
- 공간 구조는 유지하되 운영 방향을 조정하여,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복합 커뮤니티 허브 모델을 참고한 가족 동반 프로그램 특화와 지역 주민·학부모 모임 대관 확대를 추진함
- 2층 정기간행물존의 가변형 공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수요를 분산 수용함으로써, 4층의 대관 여력과 프로그램 다양성을 함께 확보함



[그림 5-12] 지상 4층 평면도



[그림 5-13] 지상 4층 투시도

〈표 5-6〉 층별 공간 재구성 및 설계안 종합

층	1차 변경(안)	2차 변경(안)
지하1층	• 현행 유지(주차장 · 기계전기실 · 보존서고 · 북 카페 · 휴게실)	• 현행 유지(변경 없음)
지상1층	• 보로로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 통합 • 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존 신설 • 가족 테이블 · 저서가 조닝	• 동화구연실→ 열린 공간 전환 • 패밀리 카페존 신설(유모차 거치 병행) • 안내 · 휴게실 위치 변경(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시인성 확보) • 홀 →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연계 동선 구축
지상2층	• 어린이자료실 이전 면적+ 문헌정보실+ 정기간 행물실 통합 개방형 구축 • 문헌정보 자료 집약 배치, 자료검색 공간 · 자유허람실 조성 • 창가 바(bar) 테이블형 열람석 배치	• 1차 변경(안) 구성 유지 • 정기간행물존 가변형 공간화(폴딩도어) • 개방(열람) ↔ 폐쇄(강의) 전환 운영
지상3층	• 열람실+ 노트북실+ 디지털자료실+ 국제영상존 통합 • 홀 벽면 활용 디지털 시각자료 시청 공간 구축 • 국제영상존→ 소파 라운지 조성 • 의자 · 소파 · 바테이블 혼합 가구 구성	• 1차 변경(안) 구성 유지 • 홀-국제영상존 벽체 해체 • 3층 전체 개방형 복합문화공간화 • 1인 집중 열람 구역 별도 확보(완충)
지상4층	• 현행 유지 (다목적세미나실 · 동아리방 · 문화강좌실)	• 현행 유지 (다목적세미나실 · 동아리방 · 문화강좌실)

제4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략

- 진접도서관은 노년·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2장에서 검토한 유니버설디자인 이론과 4장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선·가구·사인·프로그램·운영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적용·점검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함
 - 진접읍은 노년층 비율이 남양주시 평균을 이미 상회하고 노인·장애인 열람석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향후 고령화 가속에 대비한 선제적 접근성 설계가 필수적임
 - 특히 본 리모델링은 실 경계를 해체하는 개방형 전환과 폴딩도어 기반 가변형 공간 도입을 핵심으로 하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역시 개별 시설 기준의 충족을 넘어 '개방형·가변형 공간에서의 접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김보일·김종애(2013)의 서비스 보편성 평가지표, 이효창·하미경(2007)의 실내 공용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장기영(2025)의 고령자 경험 기반 공간 점검틀을 통합적으로 참조하여 적용 방향을 설정함

1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의 적용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을 진접도서관의 신규 설계안(1차 · 2차 변경안)에 대응하는 사용자 경험 기반 설계 원리로 재해석하여 적용함
 - (공평한 이용)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별도 실을 두는 대신,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용 공간과 설비를 지향함
 - 3층의 국제영상존을 소파 라운지로 전환하고 층 전체를 개방한 것은 특정 목적의 전용실을 공용 공간으로 되돌린 사례에 해당함
 - (융통성 있는 이용 · 적은 신체적 노력) 어린이 기능을 1층으로 통합하여 유모차 이용자와 보행약자의 수직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출입구-안내-열람 공간, 나아가 홀-움집터 구간까지 단차 없는 연속 동선과 자동문, 낮은 안내 카운터를 배치함
 - 3층에 의자 · 소파 · 바 테이블을 혼합 배치한 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 조건과 체류 시간에 맞추어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원칙의 구체적 적용임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 인지가능한 정보) 실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이용자가 별도의 안내 없이도 공간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데스크의 위치를 변경하여 진입-

안내-열람의 흐름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함

- 3층 홀 벽면의 디지털 시각자료에는 자막 · 음성 안내를 병행하고, 1층 움집터 연계 동선에는
촉지 안내판 · 점자 표기 · 다국어 사인을 함께 제공함

- (오류에 대한 포용력)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무인 반납기와 유인 안내데스크를 병행 운영하고, 2층 정기간행물존 폴딩도어의 개방 · 폐쇄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
- (접근 · 사용 공간) 휠체어 · 유모차 · 동반 보호자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주통로 폭
1,500mm 이상을 확보하고, 3층 소파 라운지에는 휠체어 접근형 좌석을 함께 배치하며,
가구 배치나 적재물로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 점검함

〈표 5-7〉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의 진접도서관 적용

유니버설디자인7원칙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	주요 적용 공간
① 공평한 이용	특정 계층 전용 별도 실을 두는 대신,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공용 공간과 설비를 지향함	3층 통합개방형 열람실 · 소파 라운지
② 융통성 있는 이용	의자 · 소파 · 바 테이블 등 다양한 좌석을 혼합 배치하여 신체 조건 · 이용 목적에 따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층 창가 바 테이블, 3층 혼합 가구 배치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실 경계 해체로 시야를 확보하고, 안내 위치를 변경하여 진입-안내-열람의 동선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함	1층 안내 · 홀, 2층 자료검색 공간
④ 인지가능한 정보	홀 벽면 디지털 시각자료에 자막 · 음성을 병행하고, 움집터 안내에 촉지 · 다국어 사인을 함께 제공함	3층 홀 벽면, 1층 움집터 연계 동선
⑤ 오류에 대한 포용력	폴딩도어 개폐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고, 무인 반납기와 유인 안내데스크를 병행 운영함	2층 정기간행물존, 1층 도서반납공간
⑥ 적은 신체적 노력	어린이 기능을1층으로 통합하여 유모차 · 보행약자의 수직 이동 부담을 줄이고, 홀-움집터 구간에 단차 없는 연속 동선을 확보함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존, 홀-움집터
⑦ 접근 · 사용 공간	저서가 조닝과1,500mm 이상 주통로를 확보하고, 소파 라운지에 휠체어 접근형 좌석을 함께 배치함	전 층(특히2 · 3층 개방형 공간)

2 개방형 · 가변형 공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고려사항

- 개방형 공간은 단차 · 문턱 · 시각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유리하나,
동시에 소음 · 시각적 과부하 · 선택 부담이라는 새로운 접근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개방형 · 가변형 전환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성과로 단정하기보다, 전환에 따라 발생하

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보완 방안을 설계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5-8〉 개방형 · 가변형 전환의 위험 요인과 유니버설디자인 보완 방안

구분	개방형 · 가변형 전환의 위험 요인	유니버설디자인 보완 방안
음환경	실 경계 해체로 어린이 활동 소음 · 강의 소음이 열람 공간으로 확산	흡음 · 차음 마감재, 폴딩도어, ‘활동 - 전이 - 정숙’ 수평 조닝, 3층 방음 1인 집중 구역
시각적 과부하	넓은 개방 공간이 인지 ·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저서가 · 색채 대비 · 바닥 패턴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벽면 기대기형 좌석 등 안정감 있는 자리 확보
좌석 선택 부담	좌석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어떤 자리를 이용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짐	좌석 유형별 픽토그램 사인, 층별 안내도에 좌석 유형 표기
가구 이동에 따른 동선 폐쇄	이동식 가구 · 소파가 재배치되면서 주동선과 유도블록이 가려질 위험	주동선 바닥 표시, 가구 배치 기준선 설정, 정기 점검 항목화
가변형 공간 운영	폴딩도어를 닫은 상태에서 시각 · 청각 장애 이용자가 이용 가능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움	개방 · 폐쇄 상태의 시각 · 음성 안내, 잔여 열람석 안내

3 영역별 적용 전략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 프로그램, 물리적 공간 · 시설, 운영 · 관리의 세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함

(1) 서비스 · 프로그램 영역

- 큰 글자 책, 음성 · 점자자료, 전자책, 쉬운 글 등 다형태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이용능력과 감각능력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순천 어울림도서관의 큰글자도서 · 점자도서 비치 사례, 독산도서관의 독서확대기 구비 사례를 참고하여 2층 통합 개방형 공간 내에 큰 글자 · 음성 자료 코너를 배치함
- 대출 · 예약 · 문의는 오프라인 안내 데스크와 웹 · 모바일 채널을 병행하는 옴니채널형 서비스로 운영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교육 참가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추세를 고려하여, 고령자 · 장애인 ·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 ·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2층 가변형 강의 공간을 상시 교육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물리적 공간 · 시설 영역

- 독산도서관의 다목적 램프 ‘소풍길’과 동작도서관의 전층 엘리베이터 교체 사례를 참고하여, 외부 접근과 출입에서 레벨 차이 구간을 경사로로 처리하고 단차를 제거하며, 자동문을 통해 배리어프리 연속 동선을 확보하되 공원 및 움집터와 연계된 출입구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동선 · 유모차 전용 동선 · 서가 사이 통로에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 양측 손잡이, 바닥 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자립적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료 · 열람 · 활동 공간에서는 1층 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존에 낮은 서가와 둥근 모서리 가구를 배치하고, 이동식 가구와 폴딩도어를 활용하여 개별 · 그룹 · 가족 이용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안내 · 사인은 문자와 픽토그램, 색채 대비를 활용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며, 개방형 공간에서는 벽면 사인 대신 천장 매달림형 · 바닥 유도선 사인을 병행하여 시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조명 · 음향 · 쾌적성 측면에서는 눈부심과 난반사를 줄이고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며, 1층 어린이 · 가족 공간의 활동 소음과 2 · 3층 열람 공간의 정온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흡음재와 완충공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3) 운영 · 관리 영역

- 직원 교육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 다문화 이용자에 대한 인식과 응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경험 기반 공간 점검 범주(외부 접근, 출입, 이동, 정보 활동, 휴식, 지원)에 따라 설계 단계와 운영 단계 모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 가변형 공간의 특성상 가구 배치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주통로 확보 · 유도블록 노출 · 좌석 유형 사인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제5절 지역 연계 전략

- 장승다담공원 · 장승초 · 인근 아파트를 공간 · 프로그램 · 주민 참여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생활권의 대표 문화 ·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 장승다담공원과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는 공간 · 동선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며, 공원 내에 도서관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설치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승다담공원을 단순 경유 동선이 아니라 진접도서관의 외부 조경 · 전시 · 놀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장승다담공원-남양주 장현리 움집터-도서관'을 하나의 열린 문화 · 학습 공간으로 통합함
 - (외부 전시 · 체험 공간화) 장승다담공원 일부를 외부 미술 전시장, 북큐레이션 전시, 도서관 외부 놀이터로 연계하여 실내 프로그램을 외부로 확장함
 - (소셜 스테어 등 머무름 공간 도입 검토) 도서관 외부 마당 · 경사 구간에 소셜 스테어(계단형 좌석)와 같은 체류 · 전시 겸용 공간을 배치하여 우연 방문과 야외 체류를 유도함
 - (외부 직접 진입 동선 검토) 외부 소셜 스테어를 통한 2층 직접 진입 또는 별도 외부 계단 설치를 검토하여, 외부 공간과 상층부를 직접 연결하고 이용 동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설계 단계에서 구체화함
 - 지상 1층 필로티와 도서관 마당을 공원 방향으로 개방하고, 계절별 북큐레이션 야외 전시와 플리마켓 · 소규모 문화행사를 반외부 공간에서 운영하여 공원 이용 동선 속에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킴
 - 장승초등학교와는 프로그램 연계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학교와 도서관 간 상호 대출 제도를 통해 자료 활용도를 높임
 - 방과 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 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독서교육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도서관 2층에 방과후 전용 공간을 지정해 안정적인 활동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근 아파트 단지와는 주민 참여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약 7,500세대에 홍보물을 배포해 도서관 인지도를 높이고, 단지별 독서 모임과 동아리를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활권 커뮤니티와 도서관을 긴밀히 연결할 필요가 있음

〈표 5-9〉 지역 연계 방안

연계 대상	연계 유형	구체적 실행 방안
장승다담공원, 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공간 · 동선 연계	• 1층 필로티 · 도서관마당 공원 방향 개방, 계절별 북큐레이션 야외 전시, 플리마켓 · 소규모 문화행사 반외부 공간 활용, 공원 내 도서관 방향 이정표 설치
장승초등학교	프로그램 연계	• 방과후 아동 독서 · 학습 프로그램 공동 운영, 독서교육 · 진로 체험, 2층 방과후 전용 공간 지정, 학교-도서관 상호 대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참여	• 홍보물 배포(7,500세대+), 단지별 독서 모임 · 동아리 연계, 공동주택 주민자치회 협력 프로그램
교육 · 복지 기관	복지 연계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연계 다국어 자료, 노인복지관 연계 디지털 교육, 장애인 복지관 연계 아웃리치

*지역 연계는 공간 배치와 병행하여 단계적 추진 권장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 본 연구는 2013년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와 공간 기능 약화가 누적된 진접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생활양식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리모델링 계획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자료 제공에서 복합문화 · 커뮤니티 기능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진접도서관의 현재 공간 구성이 미래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공간 · 이용자 분석, 국내 사례분석, 층별 계획안 수립의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과 지역 연계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함
- (이론적 고찰) 공공도서관이 자료의 수집 · 제공 중심 기관에서 이용자 경험과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하는 복합문화공간 ·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한 전환에 대응하는 공간 계획 요소로 개방형 · 통합형 공간 개념, 이용자층 확장 전략,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출하고, 이를 진접도서관 계획의 이론적 준거로 설정함
 -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Barrier-free)를 넘어 정보 접근성 · 심리적 부담 · 서비스 운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를 전제로 차별 요소를 줄이는 방향임을 확인함
 - 아울러 이용자 확장 전략은 기존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비이용 · 잠재 이용층을 도서관으로 유입시키는 관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접도서관의 청년층 유입 과제와 직접 연결됨을 확인함
- (공간 · 이용자 분석) 전국 · 경기도 · 진접도서관 통계(2016~2025) 분석을 통해 도서관 환경이 디지털 · 개방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함

- 전자자료 소장 · 이용은 급증하는 반면, 진접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석은 100석에서 40석으로 60% 감소하고, 이용자용 PC는 84대에서 28대로 67% 감소하였으며, 총 좌석 수도 422석에서 354석으로 줄어 공간 기능 약화가 통계적으로 확인됨
- 이는 고정형 PC 중심 구조에서 개인 기기와 무선 인터넷 중심 환경으로의 전환, 그리고 어린이 · 가족 공간의 축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층별 기능 재편의 근거로 작용함
- 2025년 기준 진접읍 인구 구조 분석에서는 중장년층(35~54세)과 초등 · 청소년, 노년층의 비중이 높고 청년층의 도서관 비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확인하여, 가족 단위 수요 대응과 고령화 대비, 청년 유입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임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영유아 · 아동, 초등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년, 노년의 6개 군으로 유형화하고, 각 집단의 이용 목적 · 행태 · 공간 선호를 층별 설계 방향에 반영함
- (사례분석) 진접도서관과 조건이 유사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독산·동작·인제 기적의·순천 어울림 도서관 4개 사례를 분석하여, 각 사례의 운영 성과와 공간 전략을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의 참고 모델로 삼음
 - (독산도서관) 1999년 개관한 소규모 도서관을 구조 변경 없이 재구성하여 2025년 방문자 176,059명으로 리모델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4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사례로, ① 기존 건축골격 활용, ② 공간 밀도 차등배치, ③ 이동 동선의 체류공간화, ④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를 진접도서관 적용 방향으로 도출함
 - (동작도서관) 33년 된 노후 도서관을 체류형·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재개관 이후 방문자와 회원 등록자가 모두 리모델링 이전 수준을 상회한 사례로, ① 디지털 라운지형 공간 전환, ② 체류형 공용공간 강화, ③ 어린이실 체험공간 결합, ④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시사점으로 도출함
 - (인제 기적의 도서관) 소규모 신축 도서관이 개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약 18만 명을 기록하고 전국 152개 지자체의 견학과 제9회 한국문화공간상 수상으로 이어진 지역 명소화 사례로, ① 어린이·가족 공간의 중심화, ② 방문 목적이 되는 특화공간 조성, ③ 주민 참여 설계, ④ 지역 특화콘텐츠 반영을 도출함
 - (순천 어울림도서관) 체육센터 등 복합시설과 연계된 신축 도서관으로 시범운영 10일 만에 이용자 1만 명, 개관 1년간 약 20만 명이 방문한 특화 테마 사례로, ① 어린이·가족 공간 연계 강화, ② 디지털 라운지형 전환, ③ 개방형 체류공간 조성, ④ 특화 주제·프로그램 연계를 도출함
 - 종합하면, 독산·동작은 진접도서관과 여건이 유사한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례로서 재구성 방법론을 우선 취하고, 인제·순천은 신축 사례이므로 공간 구성과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참고하여, 진접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재구성 방향에 통합함

- (리모델링 계획안)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성장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거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개방-가변-연계’의 네 가지 원리로 구체화함
 - 채광 부재와 접근성 한계가 있는 지하 1층은 주차 · 기계전기실 · 보존서고 · 북카페 등 현행 기능을 유지하고, 지상 1~4층을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에 맞추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함
 - 층별 계획은 남양주시 요구조건과 이용자 분석을 반영하여 1차 변경(안)과 2차 변경(안)의 2단계로 구체화하였으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1층(어린이 · 가족 통합 허브층) : 영아 위주의 보로로도서관과 협소한 어린이도서관을 1층으로 통합하여 어린이 · 가족 수요를 한 곳에 집중시키고, 동화구연실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패밀리 카페존을 신설하였으며, 안내 · 휴게실 재배치와 홀-움집터 연계 동선을 통해 지역 역사문화공간과 결합함
 - 2층(정보 · 복합문화층) : 어린이도서관 이전으로 확보된 면적과 문헌정보실 · 정기간행물실을 통합한 개방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자료검색 공간 · 자율열람실과 창가 바 테이블 열람석을 배치하였으며, 정기간행물존에 폴딩도어 기반 가변형 강의 공간을 도입함
 - 3층(통합 개방형 열람층) : 열람실 · 노트북실 · 디지털자료실 · 국제영상존을 통합하고 홀 벽면 디지털 시각자료 시청 공간과 소파 라운지를 구성하였으며, 홀-국제영상존 벽체를 해체하여 층 전체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함
 - 4층(프로그램 · 커뮤니티층) : 기존 실 구성을 유지하되 가족 동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대관을 확대하고, 2층 가변형 공간과 프로그램 수요를 분산 수용함
 - 아울러 6개 이용자군별로 주요 수요-배치 공간-추천 프로그램을 연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물리적 재구성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설계와 운영을 연결함
 - 유니버설디자인은 7원칙을 동선 · 가구 · 사인 · 프로그램 · 운영 전반에 적용하되, 개방형 · 가변형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소음 · 시각적 과부하 · 좌석 선택 부담 등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보완 방안을 설계에 함께 반영함
 - 또한 장승다담공원 · 움집터 · 장승초등학교 ·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지역 연계 전략을 병행하여, 물리적 개선을 넘어 포용적이고 지역 밀착적인 도서관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이용자 분석과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방향을 실제 적용 가능한 층별 계획안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통계 · 인구 분석에 근거해 공간 재편의 필요성을 실증하고, 이를 이용자군별 공간 · 프로그램

운영 방향으로 연결함으로써 향후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함

- 1차·2차 변경(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산 여건과 공사 범위에 따라 선택·조합할 수 있는 대안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높음
- 나아가 개방형 전환을 유니버설디자인의 성과로 단정하지 않고 그 이면의 접근성 위험 요인까지 함께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확산되는 공공도서관 개방형 리모델링 논의에 균형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제2절 정책제언

- 진접도서관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참여, 단계적 시공, 유니버설디자인, 인근 시설 연계, 장기 수요 대응, 개방형·가변형 공간의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함
 - 이는 물리적 시설 개선과 운영 체계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리모델링의 효과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함
- (① 이용자 참여형 계획 추진) 리모델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형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주민·이용자·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워크숍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공간 수요와 이용자군별 요구를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이용·잠재 이용층인 청년층과 다문화가족의 요구는 기존 이용 데이터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리모델링 이후에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정례화하여 공간 운영에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사전 진단에 기반한 단계적 시공 및 임시 운영) 실 통합·칸막이 철거 등 핵심 계획은 철거 대상 벽체의 내력 여부와 전기·설비 배관 조건에 따라 실행 범위가 달라지므로, 설계 착수 전 구조·설비에 대한 사전 진단을 선행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예산·공정상의 변동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가구 배치·동선 재정비는 1차에서 우선 시행하고, 구조·설비 검토가 필요한 실 경계 해체는 2차로 조정하는 등 단계별 실행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필로티 체류공간 조성 등 용도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법규·인허가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③ 유니버설디자인의 설계-운영 연계) 유니버설디자인을 설계 단계의 반영에 그치지 않고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관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단차 제거, 낮은 카운터, 배리어프리 연속 동선, 다국어·촉지·음성 안내 등 물리적 요소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되, 자료·서비스·프로그램 영역의 접근성까지 통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진접읍의 노년층 비율이 남양주시 평균을 상회하고 향후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제적 적용은 특정 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전체 이용자를 위한 기본 설계 원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경험 기반 점검 범주(외부 접근, 출입, 이동, 정보 활동, 휴식, 지원)에 따라 설계와 운영 양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조사에 접근성 · 인지성 · 안전감 등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문항을 포함하여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 가변형 공간으로의 전환은 단차와 시각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유리하나, 소음 확산 · 시각적 과부하 · 좌석 선택 부담이라는 새로운 접근성 문제를 수반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그 보완 방안(흡음 마감, 저서가 조닝, 좌석 유형 사인, 1인 집중 구역 확보)을 반드시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④ 인근 시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도서관이 단순 시설을 넘어 지역 생활권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인근 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장승담공원과는 공간 · 동선 연계를, 장승초등학교와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상호 대출 협력을, 인근 아파트 단지와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되, 협약 등을 통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계는 도서관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경유형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입지 자산을 실제 이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1층 홀과 연결되는 움집터(남양주 장현리 움집터) 연계 동선은 도서관을 지역 역사문화 거점으로 확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문화재 · 공원 관리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설 · 전시 · 교육 프로그램을 도서관 프로그램(지역사 강좌 등)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⑤ 장기 수요 대응 및 확장성 확보) 향후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화상회의 · 협업 · AI 체험 등 미래지향적 디지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과 전원 · 통신 등 기반 인프라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동식 파티션과 가변형 가구 등을 활용해 하나의 공간이 시간대와 프로그램에 따라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제한된 면적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구 구조 및 이용 수요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성과지표에 기반한 사후 평가를 통해 리모델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⑥ 개방형 · 가변형 공간의 운영관리 체계 구축) 실 경계를 해체한 개방형 구조와 폴딩도어 기반 가변형 공간이 계획한 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운영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전환에 따른 소음 확산과 냉난방 효율 저하에 대비하여 흡음 · 차음 마감재, 단열 창호, 구역별 정밀 온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공조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활동 - 전이 - 정숙’의 수평 조닝 원칙을 운영 규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1층 홀-움집터 연계 동선의 개방 시간, 관리 주체,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도서관 · 공원 관리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층 정기간행물존의 가변형 공간은 개방(열람)-폐쇄(강의) 전환 기준, 예약 · 대관 절차, 전환 시 소음 · 동선 관리 방안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층 소파 라운지, 창가 바 테이블, 가족 클러스터 테이블 등 다양한 가구가 혼합 배치되는 만큼, 가구 재배치 주기와 관리 책임을 정하고 주통로 · 유도블록이 가구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정기 점검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정책제언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실행 전략으로,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 지역 연계 · 개방형 공간 운영관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진접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일상적 문화 ·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아가 본 연구의 계획안과 실행 전략은 진접도서관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한 여건을 지닌 남양주시 내 다른 노후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에도 참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국문자료

〈학술논문〉

- 고영선. (2019).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 김규환 · 정도현. (2023). AI 카메라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공간이용행태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김보일 · 김종애. (2013).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에 기초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보편성 평가지표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김세영. (2013).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 계획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김소연 · 임호균. (2025). 복합화 공공도서관 방문목적에 따른 사용자 군집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김은정. (2021). 사용자 중심의 도서관 공간과 가구 계획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방향 제안. 생활과학연구논총(충북대학교).
- 김지수 · 이재규 · 장영호. (2025). 스마트도서관 무인대출 시스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 김혜림 · 이정우 · 신재익. (2017). 울산 5개구 공공도서관의 공간계획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류태현 · 고재민 · 임채진. (2013).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류태현 · 고재민 · 임채진 · 임호균. (2014).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분석을 통한 조합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박성재. (2019). 스마트폰 무선신호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공간이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 반자연 · 이승혜 · Panarelli, L. (2020).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프라기능을 위한 공간계획 요소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반자연 · 이승혜 · Panarelli, L. (2021). 공공도서관의 생활SOC기능과 공간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변기동 · 하미경. (2023). 공공성 측면의 공공도서관 만족도가 주거환경 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이규일. (2019). 공공도서관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이한준 · 임호균. (2014). 공공도서관의 자료열람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 이효창 · 하미경. (2007). 공공도서관 실내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 장화 · 김민경. (2024). 공공도서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 전용석. (2015).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분석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무장애 환경 평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 정강훈 · 노태학 · 최일. (2006). 사회적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정미옥. (2025). 중장년층 이용자의 디지털 전환 인식과 공공도서관 이용행동 간 관계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정유라 · 이지연. (2017). 공공도서관의 테마전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조우리 · 최춘웅. (2016).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차성종 · 권선영. (2025). 도서관 인프라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H시의 공공도서관 발전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천혜선 · 이정미 · 임채진. (2008). 공공도서관에서의 행동장면을 통한 이용행태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최정원 · 이승민. (2025).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통합적 접근: 이용자-사서-서비스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화진. (2004). 공공도서관 이용자공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황미영. (2019). 도서관 공유공간의 이용패턴 및 만족도 분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황윤정 · 이경연 · 변기동 · 하미경. (2023). 공공도서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소년전용공간 환경계획요소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학위논문〉

송동훈. (2019).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이용행태에 따른 성능평가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경희. (2019).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이용행태 및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어린이 서비스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향각. (2022).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선호 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화. (2020). 공공도서관 이용행태가 노인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기영. (2025). 고령자 이용경험 기반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란. (2013). 전남지역 특성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동민. (2025). 대출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외국인 이용자의 장서 이용행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타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n.d.).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검색일: 2026.06.03., <https://www.libsta.go.kr>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남양주시. (2024). 장승다담공원. 남양주시청. <https://www.nyj.go.kr/culture/viewTnResrceU.do?resrceNo=390&key=307>

남양주시. (2025). 주민등록인구통계(2025.12.31. 기준). 남양주시청.

연구책임자 강민경 (남양주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NRI-정책 2026-06

이용자 중심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User-Centered Remodeling Plan for Jinjeop Library

발행인 강제상

발행처 남양주시정연구원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A동 1035~39호 남양주시정연구원
(우편번호) 12248

인 쇄 2026년 7월 31일

발 행 2026년 7월 31일

© 2026 남양주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강민경. 2026. 「이용자 중심 진접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남양주시정연구원.

비매품

